

#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Current Issues of Urban Public Space

이상민 Lee, Sang Min  
차주영 Tchah, Chu Young  
임유경 Lim, Yoo Kyoung

( a u r i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

itute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Current Issues of Urban Public Space**

지은이: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

펴낸이: 온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08년 9월 16일, 발행: 2008년 3월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8-89-93216-04-2

발간물 번호: AURI-기본-2007-5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Current Issues of Urban Public Space

( a u r i



## 연구진

---

연구책임	■ 이상민 • 부연구위원
연구진	■ 차주영 • 부연구위원
	■ 임유경 • 연구원
외부연구진	■ 김도년 •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세용 • 고려대학교 교수
	■ 김아연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 온영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유광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조상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강인호 • 한남대학교 교수
	■ 조경진 • 서울대학교 교수



# 연구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도시공간에서 공공부문 또는 공공공간과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의 개념이나 범위는 아직까지 서로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모호하게 사용되는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공공공간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고 현재 공공공간이 조성·운영·관리되는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셋째,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해 향후 진행해야 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

공공공간이란 길이나 광장과 같은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필지 내의 오픈스페이스와 건물 내부의 공간까지도 포함한다. 즉, 소유의 측면에서 사유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용 측면에서 공공이 사용한다면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공익을 구현하는 도시공간이다. 이때 공익은 사회통념상 공공에게 이익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근대에서 현대로 변하면서 공공공간의 이용 주체와 기능도 크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도시공간은 복합적 기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도시공간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도시공간을 공유지에 근거한 공적공간과 사유지에 근거한 사적공간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개방적인 공적공간’과 ‘개방적인 사적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제까지 공공공간을 이해하는 기본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공간적 특성과 소유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면서 다양한 공공공간의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와 함께 공공공간에 대한 확장된 개념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도시에서 공공공간이 갖는 다양한 속성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 3. 공공공간 관련 제도 및 조성 현황

공공공간을 다루는 법은 도시기본시설과 관련된 것, 건축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주택단지와 관련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의 종류는 매우 많고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제도는 통합된 도시공간과 경관을 조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법들은 상호 참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통합적인 공공공간 조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 모든 계획들이 공공공간을 다루고 있으나 모두 기본 방향이나 개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체 도시 차원에서 공공공간을 다루거나 각 공간(시설)들의 연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약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과 추진 사업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급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공간은 중앙 정부 시범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공간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이므로 현재 관주도식 사업 방식으로는 유지나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공공간 관련사업은 그 사업 발의 단계에서부터 계획 및 조성, 사후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둘째, 체계적이지 못한 공공공간 관리와 운영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녹지,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은 그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그에 속하는 시설물 또한 그 성격에 따라 주무부서가 모두 분산되어 있다.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사업 시행시 발주주체 일원화 등 보다 선진적인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주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대다수의 사업에 주민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민참여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 계획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의 확장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과 민간 주도의 소규모 공간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보행계획,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 도시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나 시설물 목록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4.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 도시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한 공공공간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화한 사례로 뉴욕의 공개공지, 보행가로 확충과 네트워크에 기여한 슈투트가르트의 신주립미술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새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한 싱가포르 수변공간 개발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공공공간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한 사례로 계절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는 파리 시 청양 광장과 센강변의 파리해변, 다양한 이용주체의 공존을 목표로 한 파리의 Espaces Civilises 정책과 Boulevard Clichy-Rochechouart 가로조성, 상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성된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등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사례로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뉴욕 Bryant Park와 Rockefeller Center, 민관협약에 의해 공개공지를 조성한 도쿄 마루노우치, 그리고 민관협력에 의한 에쓰링엔시 역앞 상업거리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통합적 계획과 지원체제를 구축한 사례로 리옹 시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과 계획, 리옹 시 거버넌스 체계, 영국 CABE, 미국 PPS 등의 지원체제를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지속적 관리·운영 및 교육으로는 미국 BID, 뉴욕 Central Park의 관리·운영 시스템을 살펴보고, 참여주체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CABE SPACE의 교육시스템 또한 검토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공공공간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도시에는 기존의 법이나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공간이 존재하며, 이를 유연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공공공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공간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공간의 여러 속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물리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민관파트너십으로 조성되는 공공공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관주도에 의한 공간에 비해 활용도나 관리·운영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 관리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최근 많은 도시에서는 관주도식의 관리와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주도형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 5.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국내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여 공공공간 관리·운영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시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개선과 지속적 개발을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공공공간 개념

을 정립하고 공공공간 활용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 공공공간 범위의 확장과 다양화, 공공공간 이용가치의 극대화,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제 구축, 지속적 관리 및 운영 교육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도시 공공공간, 개방성, 공공성, 역동성, 민관파트너십, 통합적 계획, 지속적 관리·운영

# 차례

<b>I. 서론</b>	<b>2</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의 현황	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b>II.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b>	 <b>12</b>
1.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2
1) 기존의 공공공간 개념	12
2) 공공공간 개념의 역사적 변천	16
2.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	19
1)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쇠퇴	19
2)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기능과 특성	21
3)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과 가치	24
4)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유형	26

3. 소결 :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공공간 .....	30
------------------------------	----

### III. 공공공간 관련 제도 및 조성 현황 ..... 36

1.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제도 .....	36
1) 공공공간 관련 법규 .....	36
2) 공공공간 관련 계획 .....	42
3) 개별 공공공간의 조성과정 및 절차 .....	43
2. 공공공간 조성 현황 .....	46
1) 공공공간 조성 주체 .....	46
2) 사업주체 유형별 공공공간 조성 과정 및 실태 .....	61
3. 소결 :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문제점 .....	84
1) 법제도적 문제점 .....	84
2) 조성방식의 문제점 .....	84

### IV.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88

1.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	88
1) 다양하고 확장된 범위의 공공공간 사례 .....	88
2) 이용가치를 극대화한 공공공간 사례 .....	96
3) 다양한 주체에 의해 조성된 공공공간 사례 .....	102
4)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제 구축 사례 .....	112

5) 공공공간의 지속적 관리·운영 및 교육 사례 .....	123
2.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132
<b>V. 결론 .....</b>	<b>136</b>
1. 연구요약 및 한계 .....	136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138
• 참고문헌 .....	140
• Summary .....	153
• 부록1. 공공공간 관련 법규 .....	161
• 부록2. 지자체 공공공간 관련 사업 목록 .....	190

## 표 차례

〈표 1〉 선행연구 목록 .....	7
〈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9
〈표 3〉 현대 공공공간의 유형 .....	27
〈표 4〉 공공공간 관련 법규 .....	37
〈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종류 .....	38
〈표 6〉 물리적 특성에 따른 공개공지의 분류 .....	39
〈표 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체계 .....	47
〈표 8〉 문화관광부 생활환경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	49
〈표 9〉 문화관광부 추진 가로경관 개선사업 개요 .....	49
〈표 10〉 국가환경 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개요 .....	51
〈표 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개요 .....	51
〈표 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요 .....	52
〈표 13〉 서울시, 울산시, 김해시 공공공간 관련 주무부서 구성 .....	54
〈표 1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추진사업 및 내용 .....	55
〈표 15〉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부문별 사업내용 .....	56
〈표 16〉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요약 .....	57
〈표 17〉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사업 추진조직 및 주요 업무 .....	81
〈표 18〉 사업주체 유형별 공공공간 조성과정 및 실태 요약 .....	83
〈표 19〉 Sony Plaza, 590 Atrium, Trump Tower의 개요 .....	89
〈표 20〉 나카도리 개선사업의 목표 및 실현전략 .....	108

〈표 21〉 PPS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공간의 성능평가의 관점 .....	121
〈표 22〉 PPS에서 제시한 공공공간 성능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	122
〈표 23〉 BID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 .....	127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흐름 .....	5
〈그림 2〉 도시공간의 구분 .....	16
〈그림 3〉 형태에 의한 공공공간 분류 .....	30
〈그림 4〉 공공공간 이해의 기본구조 .....	31
〈그림 5〉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	33
〈그림 6〉 공공공간 관련 계획 .....	43
〈그림 7〉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	44
〈그림 8〉 도시공원 조성 처리절차 .....	45
〈그림 9〉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도 .....	54
〈그림 10〉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조직도 .....	56
〈그림 11〉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원리 .....	59
〈그림 12〉 종로 간판정비사업 전후예시 .....	62
〈그림 13〉 종로업그레이드 사업대상지 : 종로1가 ~ 종로6가 .....	63
〈그림 14〉 가로환경개선 후 광복로 .....	64
〈그림 15〉 광복로의 광복 프로젝트 사업진행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	64
〈그림 16〉 광복로의 광복 프로젝트 대상지 : 광복로 일원 .....	65
〈그림 17〉 SORAK MAPLE TOWN 개발테마구상도 .....	67
〈그림 18〉 SORAK MAPLE TOWN 만선의 광장 조성 전/후 .....	67
〈그림 19〉 노유거리가꾸기 계획구역 및 위치도 .....	67
〈그림 20〉 사업 전후 노유거리 .....	69

〈그림 21〉 노유거리가꾸기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	69
〈그림 22〉 노유거리가꾸기 건축물 외관 개선을 위해 제시된 시뮬레이션 .....	70
〈그림 23〉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관련 계획 및 보행자다리인 십대밭교 최종안 .....	72
〈그림 24〉 김해 가야의 거리 배치도 .....	74
〈그림 25〉 김해 가야의 거리 조성 후 모습 .....	74
〈그림 26〉 우리동네숲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	76
〈그림 27〉 석관동 우리동네숲 1호 조성 전/후 .....	77
〈그림 28〉 성서한평공원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	78
〈그림 29〉 피드백 및 최종 홍보를 위한 도면과 이미지 .....	79
〈그림 30〉 성서한평공원 단면스터디 .....	80
〈그림 31〉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조성 후 모습 .....	81
〈그림 32〉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계획 평면도 .....	81
〈그림 33〉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	82
〈그림 34〉 Sony Plaza, 590 Atrium, Trump Tower의 위치와 배치 .....	88
〈그림 35〉 Sony Plaza 아케이드와 유개보행공간의 내부전경 .....	89
〈그림 36〉 590 Atrium 유개보행공간의 내부전경 .....	90
〈그림 37〉 Trump Tower의 지상층과 지하층 유개보행공간의 내부전경 .....	91
〈그림 38〉 신주립미술관의 위치와 배치 .....	92
〈그림 39〉 신주립미술관의 전면과 보행로인 로툰다 외관과 내부모습 .....	93
〈그림 40〉 싱가포르강 개발지역의 위치 .....	94

〈그림 41〉 싱가포르강 수변공간 야경 .....	95
〈그림 42〉 싱가포르강 수변 산책로 전경 .....	95
〈그림 43〉 싱가포르강 주변지역 전경 .....	95
〈그림 44〉 싱가포르 마스터플랜 용도계획 .....	95
〈그림 45〉 Boat Quay .....	96
〈그림 46〉 Clarke Quay .....	96
〈그림 47〉 Robertson Quay .....	96
〈그림 48〉 파리 시청앞 광장과 Paris Plage의 위치 .....	97
〈그림 49〉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되는 Paris Plage 모습 .....	97
〈그림 50〉 Boulevard Clichy-Rochechouart의 위치와 평면 .....	98
〈그림 51〉 Boulevard Clichy-Rochechouart의 주변과의 연계 및 보행로 계획 .....	99
〈그림 52〉 Boulevard Clichy-Rochechouart 조성 후 전경 .....	100
〈그림 53〉 정자동 카페거리의 위치 .....	100
〈그림 54〉 정자동 카페거리의 낮과 밤의 모습 .....	101
〈그림 55〉 Bryant Park의 위치와 배치 .....	102
〈그림 56〉 Bryant Park의 전경과 공원모습 .....	103
〈그림 57〉 Rockefeller Center의 위치와 배치 .....	104
〈그림 58〉 Rockefeller Center 전면공간의 변화과정 .....	105
〈그림 59〉 PPS에 의한 Rockefeller Center 전면공간의 통합적인 업그레이드 .....	105
〈그림 60〉 마루노우치 위치와 주변현황 .....	106

〈그림 61〉 마루노우치 마치즈쿠리 추진조직 .....	107
〈그림 62〉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개선사업 구간 .....	108
〈그림 63〉 민관 협력을 통한 가로와 건물전면공간의 통합적 디자인 실현 .....	109
〈그림 64〉 공공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 .....	110
〈그림 65〉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의 위치와 평면 .....	110
〈그림 66〉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의 낮과 밤의 모습 .....	112
〈그림 67〉 에쓰링엔시 역전앞거리 야경과 가로시설물 지침서 .....	112
〈그림 68〉 리옹시와 새롭게 조성된 리옹시 공공공간의 연계 및 주차장 위치 .....	113
〈그림 69〉 리옹시 수변공간 개발 계획 .....	114
〈그림 70〉 리옹시 야간경관계획 .....	115
〈그림 71〉 Place des Terreaux의 야경 .....	115
〈그림 72〉 Place de la République와 Place de la Bourse .....	115
〈그림 73〉 CABE 조직도 .....	117
〈그림 74〉 지자체개발계획의 단계별 디자인정책 반영과정(CABE) .....	118
〈그림 75〉 보행광장으로 성공적으로 재생된 빅토리아 스퀘어, 버밍햄 .....	119
〈그림 76〉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CABE) .....	119
〈그림 77〉 PPS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	120
〈그림 78〉 Spaceshaper 진행과정 다이어그램(CABE) .....	125
〈그림 79〉 동일한 장소에 대해 이루어진 사용자와 관리자의 평가다이어그램 .....	125
〈그림 80〉 BID 협력시스템의 관계도 .....	126

〈그림 81〉 덴버의 다운타운 BID 위치와 부담금 조닝 .....	128
〈그림 82〉 덴버의 다운타운 몰, 몰 중심부의 휴게공간과 거리 카페 모습 .....	128
〈그림 83〉 다운타운 덴버 파트너십의 구성도 .....	129
〈그림 84〉 센트럴 파크의 위치와 배치 .....	130
〈그림 85〉 센트럴 파크의 다양한 모습 .....	131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 a u r i

# 서론

##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최근 여러 분야에서 ‘공공(public, 公共)’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도시에서 공공건축, 공공공간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와 관련해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 도시의 공공공간이 가진 문제점이라면 먼저 관주도에 의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공간의 조성과 공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실제적인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과도 밀착되지 못해 결국 이용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디자인 수준 역시 낮아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관리나 운영에서도 지속적이지 못하여 결국에는 버려진 공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문제점 이면에는 도시의 공공공간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공공공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또는 계획이 부재하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 가진 공간환경의 문제들과도 같은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공공공간 또는 공공건축 등 주로 공공 분야에서 질적인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관련 법규나 제도를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들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의 바탕에는 도시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존재하며, 이 목표

의 대부분은 도시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담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시공간에서 공공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간의 개념이나 범위는 공론화되지 못한 채 서로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공간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공공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바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표피적인 개선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도시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개선을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연구 배경에 따라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으로, 모호하게 사용되는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건축도시공간과 관련하여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연구를 종합·분석하여 공공공간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공공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간의 범위는 ‘공공에서 공공을 위해 조성’한다는 기존의 공공공간 개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확장시켜 현대 도시 공공공간에 적합한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공공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으로, 국내 공공공간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공간이 조성되고 운영·관리되는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공공간의 조성 현황, 사업방식, 운영 등을 조사하여 그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세 번째 목적은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시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해 향후 진행하게 될 연구 및 정책제언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 특히 외부공간 가운데 공공에 의해 조성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을 소유의 관점에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눌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공공간이라 하면 '공공에게 공개된 공적 공간'과 '공공에게 공개된 사적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 (2) 내용적 범위

이 연구는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부분과 공공공간의 관련 법규 및 제도, 조성현황 등을 포함하는 현황 파악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
- 공공공간 관련 법규와 제도 검토
-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공공공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진행방향 제시

### 2) 연구의 방법

#### (1) 문헌조사

도시 공공공간의 개념과 역할, 변화 등에 대해 기존 관련 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역할, 범위를 정리한다. 또한 국내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공간의 유형 및 조성과정 등 현황을 이해하고자 한다.

## (2) 국내 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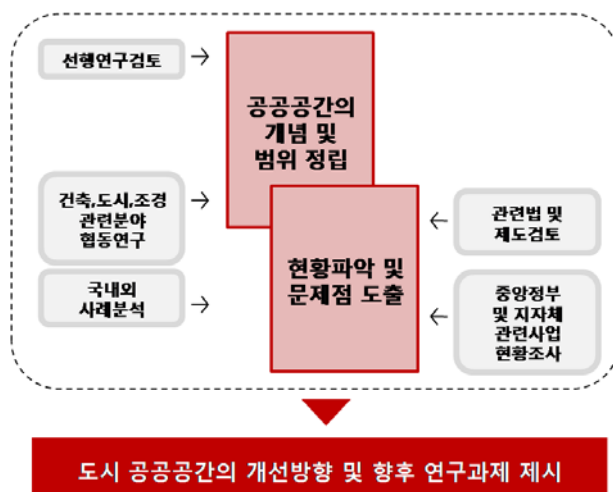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공간 조성 및 관련된 업무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로서 인구 30만 이상의 지자체 80개에 대해서는 공공공간의 조성 및 관리 등 일반적인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또한 인구 규모에 따라 대표적인 지자체를 선정(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관련 사업 담당자들과 면담조사를 통해 공공공간 관련 제도, 관련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대해 조사한다.

## (3) 국내외 사례조사

국내의 우수한 공공공간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공공공간 조성 및 운영방식, 관련 조직 등을 검토하고, 일본과 싱가포르 등 현지답사와 관계자 면담조사를 통해 향후 공공공간 개선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4) 분야별 전문가와 협동연구

각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여 분야별로 진행되는 공공공간 관련 선행 연구 및 관련 법·제도를 검토함으로써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축, 도시,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하려 한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 3

##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의 현황

공공공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공공공간의 개념이 다양하고 폭넓은 만큼 연구의 범위와 내용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연구들은 연구 대상에 따라 크게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공개공지에 관한 연구, 가로(보행공간)에 관한 연구, 건축물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구분 안에서도 연구의 내용과 범위가 폭넓게 펼쳐져 있어 이러한 구분으로만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목록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는 공공공간에 대한 의미나 개념, 공공공간의 쾌적성, 초고층건축물 개발과 공공공간, 주거공간에서 공공공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공간의 개념이나 관련 용어(공공공간, 공적영역, 공적공간 등)들이 일관성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개공지에 관련해서는 제도와 관련된 연구와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도시공간에서 민간 소유지만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에서 공공성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으로서 도로 또는 보행공간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소공원, 그린웨이, 생활권 녹지 등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 또는 시설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선행연구 목록

구분	연구자	연도	제목	발행기관
공공 공간	임종엽	2006	가변형 거주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김광현 외	2002	현대주거의 공공공간의 유형과 공동체 성격에 관한 연구-유로판 5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서인호	2005	도시 집합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장-장치-사람을 매개로 보는 공공공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세용	1997	도시 공공공간의 쾌적도의 정량적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한섭 외	2003	테헤란로 고층사무소 건물 저층부의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신연	2006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공간시설 조성에 관한 연구 :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세용	1998	도시 공공공간의 쾌적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김세용 외	1997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손종우	2000	공공공간의 도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웅	1994	공적공간의 개념과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장경철 외	2006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공간 확충에 대한 연구 - 독립적인 전문설계조직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이주영 외	2007	도심재생을 통한 현대 공공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이훈길 외	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대성 외	1989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지각 이용형태에 대한 연구 - 서울도심지 소규모공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김도년 외	2003	기성시가지 상업지의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기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공개 공지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5	해외 대도시의 공개공지 제도 운영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윤지혜	2005	도시공간에서의 실내공개공지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김세용	1999	도시설계지구의 공개공지관련 인센티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한국도시 설계학회	2006	기업과 함께하는 가로경관과 도시문화 향상을 위한 건물 전면공간 활용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홍민정	2007	서울시 고층 주거복합 단지 내 공개공지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구분	연구자	연도	제목	발행기관
가로	김영익	2006	도심부 가로 보행공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보도설치기준 국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손장원	2002	도시가로 보행자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석	2002	서울시 보행우선지구제도 운영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유휴 도로공간을 활용한 녹지 확충방안 및 보행환경 개선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현찬	2001	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범사업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건축의 공공성	김기환	2005	현대 건축에서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욱	2003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성 및 공공영역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 현대도시에서 확장된 의미로서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대익 외	2000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의 지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기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도시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혜진 외	2007	도시 내 친보행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그린웨이 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공공공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정석, 1994,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도시공공공간의 쾌적도의 정량적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김세용, 1997,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Life Between Buildings(얀 겔Jan Gehl, 1971)』 등이 있다.

관련 선행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해 포괄적이기보다는 건축이나 도시공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공공공간과 관련된 건축, 도시, 조경 등 각 분야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여 도시 공공공간의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 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정석, 199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형 도시공간설계’의 접근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업무지구 소재의 고층 오피스빌딩이 연구 대상</li> <li>필지단위로 공개공지의 일반현황 분석과 공개공지의 총량적 분석 및 유형별 성능분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형 도시공간설계’, ‘공개공지’, ‘공공성’의 개념 정리</li> <li>공개공지에 대한 분석</li> <li>공개공지의 공공성 해석</li> <li>협력형 도시공간설계를 위한 접근방안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공공공간의 쾌적도의 정량적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김세용, 199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공공공간의 쾌적성 향상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쾌적성 반응 분석</li> <li>공공공간에 대한 현황조사</li> <li>쾌적성 측정지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개념 정리</li> <li>공개공지에 대한 고찰</li> <li>쾌적성인자와 요소 추출 및 실제 상황 파악</li> <li>쾌적성인자와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및 사례지역별 쾌적도 추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fe Between Buildings (Jan Gehl), 197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공간의 설계를 통해 인간을 위한 도시만들기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사례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공간과 관련된 현재 사회상황 분석</li> <li>계획의 전제조건으로서 건물 사이의 활동들</li> <li>도시계획과 부지계획</li> <li>장소만들기를 위한 세부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정립 및 도시 공공공간 질적 개선을 위한 향후 진행과제 방향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li> <li>관련법규 및 현황 조사를 통해 공공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li> <li>전문가자문회의 운영</li> <li>관련전문가와 협동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설정</li> <li>기존연구 및 법·제도 검토</li> <li>현황 및 문제점 파악</li> <li>향후 공공공간 관련 연구방향 제시</li> </ul>



# II.

##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

1.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
3. 소결: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공공간

( a u r i

# 공공공간의 개념 및 범위<sup>1)</sup>

## 1

### 공공공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기존의 공공공간 개념

##### (1) 관련 개념 검토

공공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된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관련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공(public, 公共)

공공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 정의는 “일반사회의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에 대한 영어적 표현인 ‘public’의 어원은 ‘publicus’로 고대 그리스 폴리스(polis)에서 시민 남자가 모이는 공간을 일컫는 것이었다. ‘public’이라는 용어 자체는 15세기 말에 처음 나타났으며,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였다(손종우, 2000). ‘public’이 현재에 소통되고 있는 것처럼 공중(公衆), 혹은 공공(公共)을 의미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시민사회를 주도한 부르주아 계급의 사생활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일어났으며, “가족이나 친지들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삶이 이루어지는 지역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낯선 사람이나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을 의미하였다(Sennet, Richard, 1977, 손종우, 2000에서 재인용). 즉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자유가 사적인 생활의 여유로 이어졌고, 이러

1) 이 장 내용은 외부연구진 김세용, 김아연의 원고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한 가족과 개인을 중시하는 사적인 생활의 강화는 반대로 공적인 생활을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면서 상업적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대적 의미의 공공공간이 등장했다고 설명하는 하버마스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공공과 사적이라는 것이 여러 명과 개인이라는 수적인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은 불특정 다수, 즉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사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특정한 소규모의 집단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② 공공성(publicity, 公共性)

공공성이란 인간이 사회적 생활에서,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가운데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성의 증진에 있다. 여기서 공공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된 열린 마음이나 태도로서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이은비, 1998). 지금까지 도시의 공공성을 정성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공공의 이익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개방성, 연계성, 접근성, 쾌적성, 이용성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성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세용, 1997; 이은비, 1998; 이승지, 2003 등).

## ③ 공공영역(Public Domain)

공공영역은 소유의 개념에서 사유의 개념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의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2004). 사회적으로는 사적 영역의 반대되는 영역을 의미하기도 하며, 서구 의회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조직 원리로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분리되기 시작한 국가와 시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영역으로 보기도 한다.

공공영역이라는 용어는 공공(public)과 영역(domain)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은 사회 일반이나 공중(公衆)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중은 라틴어 ‘푸블리쿠스(publicus 인민)’에서 유래된 말이며 군중(群衆)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프랑스 사회학자 J.타르드(Jean-Gabriel de Tarde)의 주장에 따르면 공중이란 합리적, 독립적, 자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집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버마스(Jurgen Habermas)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와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공공영역은 공공성을 형성하는 하

나의 규범적 틀이자 말과 행위를 통해 인격을 드러내는 구체적 행위의 공간과 장소로서, 개인의 차이, 인간의 복수성을 핵심으로 하며 아고라처럼 정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 ④ 공공시설(公共施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동법 제128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동법 제129조).

### (2) 기존 공공공간의 개념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김영익, 2006)이다. 그러나 실제 공공공간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과연 공간의 ‘공공성’을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가 늘 제기된다. 잭슨(Jackson, 1987)이 “조성과정에 있어서 사업주체로서의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공의 권위(authority)에 의해 조성/유지되는 공간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곳”(Glazer, 1987)이라고 정의한 데 비하여, 장경철 외(2006)는 “공공공간이 시민을 위해 조성되고 개방된 공적, 사적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대지의 소유주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김세용(1997)은 공공공간의 개념을 “공공에게 24시간 개방되고,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되며, 공공에 의해서 공급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을 위해서 시설된 개방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정석(1994)은 공개공지에 대한 연구에서 공공이 소유한 공공공간과 민간이 소유한 공개공지를 구분하고, 이를 통합한 것이 도시의 “시민공간”이라고 정의하여 공공공간의 협의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도시공간을 소유에 의해서 분류하면 크게 사유지(私有地)와 공유지(公有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소유권이 개인에게 귀속된 반면, 후자는 도로나 공원 등 소유권이 공공기관에게 있다. 그러나 모든 공유지가 개방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유지라고 해서 반드시 폐쇄적인 것은 아니다. 공유지이면서 폐쇄적일 수도, 사유지이면서도 개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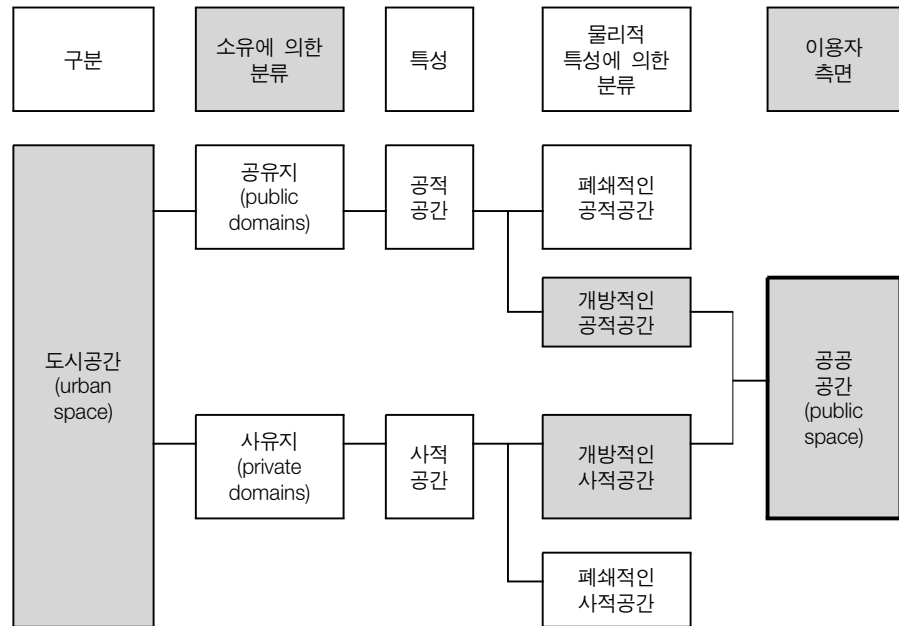
현하는 도시공간을 일반적으로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가치들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김영중, 1995).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는 개인욕구를 공동체 발전의 저해요소로 생각하였으며, ‘푸블리쿠스(publicus)’라고 불렀던 공공공간은 실제로는 지배자에게 귀속되어 사익에 우선하는 공간이었다(김세용, 1999).

도시의 공공공간은 일반적으로 외부공간을 지칭한다. 그러나 크리어(R. Krier)는 건물 내부의 중정부터 건물과 건물 사이, 넓게는 자연으로 둘러싸인 오픈스페이스까지도 공공공간으로 정의하였다(Krier, 1980). 브로드벤트(G. Broadbent)는 도시 공공공간의 유형을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건물 내부의 아트리움을 공공공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Broadbent, 1990). 따라서 공공공간이란 길이나 광장과 같은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필지 내의 오픈스페이스와 건물내부의 공간까지도 포함한다. 즉, 소유의 측면에서 사유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용 측면에서 공공이 사용한다면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개방적 공적공간이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공원이나 놀이터, 또는 도로나 보행로 등의 공간이라면, 개방적 사적공간이란 사유지이지만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건물 외부의 공개공지<sup>2)</sup>나 건물 내부에 조성된 공개공간<sup>3)</sup>, 또는 로비나 홀 등을 말한다.

2)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로 일반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설물(벤치나 조경, 파고라 등)을 갖춘 개방된 공간을 지칭한다. 1990년에 이전에 ‘공공공지’라는 용어를 쓰다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공개공지’라는 용어로 명기되었다(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995~2000).

3) 지역별 건축조례마다 다소 차이를 보여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공개공간의 정의를 ‘건축물의 3층 이하의 부분으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건축물 안의 공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공개공지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 2〉 도시공간의 구분(김세용 작성)

## 2) 공공공간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공공공간은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하면서 주체와 기능에서 크게 변화하였다. 공공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근대사회에서 공공공간의 주체는 시민계급이었으며, 주된 기능은 정치적 공공영역이었다. 이에 반해 현대사회에서는 특정 시민계급이 아니라 확장된 대중이고, 주된 기능은 여가활동 같은 비정치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가영역으로 바뀌었다. 공공공간을 이렇게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서양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대표적인 공공공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대 그리스시대의 아고라(Agora)는 기본적으로 정치집회와 토론의 장이었다. 또, 축제와 각종 행사가 열리는 문화의 장이었으며, 시장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에서는 공적생활이 매우 빈번하였기에, 아고라는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요, 여론 형성의 장이었다. 로마제국의 포럼(Forum)은 대개 가로와 세로의 비가 2:3 비율의 장방형 공공공간으로, 초기에는 시장의 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차츰 정치, 종교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어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를 혼합한 복합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대개 테쿠마누스(Dacumanus)와 카르도(Cardo)라고 불리던 도시의 중심도로가 만나는 곳에 위

치하였으나 항구 도시의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항만 근처에 입지하기도 하였다.

중세의 공공공간은 상설시장이나 주말시장이 열렸던 시장 광장, 상행위가 금지되고 정숙이 요구되었던 교회 전면의 종교 광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세 도시는 로마시대의 성곽 도시(Castra) 형태가 지속되었으나 성곽 안의 거주 인구는 전 시대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따라서 상업 활동도 활발히 일어나 성안 거리 대부분이 상설시장으로 변모해 갔으며,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1층 상점, 2층 주거형태의 건물이 일반화되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성곽을 헐고 그 자리에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었고, 도시 중심에는 초점을 갖는 대로(boulevard)가 들어섰다. 르네상스의 광장은 중세와 달리 대규모로 계획되었으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중세와 구별되는 유형으로 귀족 주택군 중앙에 위치한 주거지 광장(residential square)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민간 개발업자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입주자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반공공공간이었다.

산업혁명기에는 신흥자본가와 노동자계층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으며, 시민계급이 중산층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공공공간도 주로 중산층을 위한 놀이정원(pleasure garden)이 18세기 이후 계속 생겨났고, 이곳에는 각종 진기한 묘기와 오락이 공연되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공원(public park)이 개장되어 그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현대에는 쇼핑몰이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 등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부흥과 자가용 보유 가구의 증가는 도시의 팽창과 함께, 도시 교외에 거대한 주차장을 가진 쇼핑센터와 쇼핑몰을 수없이 양산하였다. 상당수의 쇼핑몰은 부동산 개발업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많은 경우 이용자의 출입이나 구매를 통제하기 쉬운 아트리움의 형태로 조성되면서 공공공간의 실내화는 현대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변천을 살펴보는 것과 좀 다르게, 그 당시 공공생활의 특성, 특히 사생활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주거 양식과의 분리 정도와 기반시설의 발전 수준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공공공간을 그 당시의 사적 공간, 즉 주거 형태와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 도시의 공공공간은 주로 참정권을 가진 남성 시민들을 위한 장소였으며, 여성과 노예는 아고라나 포럼과 같은 공공공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당시 주거양식은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로마의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이 거주했던 초기의 공동주택을 살펴보면, 지층부는 상가 및 작업공

간으로 이용되어 사적생활과 공적생활이 도시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기반시설은 공공화되어 있어서 물을 길거나 오물을 버리는 등 현대에는 개별 주거단위에까지 공급되어 있는 기반시설의 접근이 공공의 장소에서만 가능하였다. 즉 자연스럽게 물을 길거나 하수를 처리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공공공간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대의 공공공간은 일상생활의 영역과 더욱 더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의 공공공간은 로마의 포럼과 클로아카 막시마와 같이 당시 사회의 선악에 관한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김아연, 2006). 이후 중세를 거치면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구성원들이 공공 기반시설을 이용하며 구성원 사이의 상호교류의 장을 담당했던 공공공간은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보다 현대에 가까운 성격으로 진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시민이 모여 함께 토론, 오락 등을 즐기는 공공생활 문화가 서구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다. 대신 현대 이전의 평민계층이 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공공공간은 상업, 제례, 위락 등의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시장은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 고려 이래로 상설시장인 중앙의 경시와 1주에 2번 정도 개설되는 지방의 향시로 구분된다. 이들 시장은 물품의 거래 외에도 각종 정보의 교환, 여론의 형성, 오락 활동의 중심지였다. 제례시설로 대표적인 것은 사직단과 성황당을 들 수 있다. 사직단은 주로 고을의 서쪽에 위치하였으며,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용의 공간이었고, 성황당은 고을의 수호신에게 제사지내는 공간이었다. 제례는 주민들에게 사교와 교육의 기회도 함께 제공하였다. 읍수는 일종의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국적으로 200여 고을에 설치되었으며, 주로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여 지배계층과 서민층의 휴식과 사교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 외에 도시적 스케일이나 단지 스케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공공간의 특징 중 하나는 '길'이 여러 유형의 공공생활을 복합적으로 또는 가변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와 피맛골처럼 서로 다른 위계의 길들이 각종 의례 및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전통마을에서 나타나는 길들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어긋길, 안길과 샛길 등 위계적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마을의 안길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 기반시설을 공통으로 사용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서양과 유사하다.

윤영환 외(1990)에 의하면 한국 전통마을에서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점진적 스펙트럼이 나타나며, 마을내 공공공간은 도로공간, 신앙 및 의례 공간, 휴식공간, 생활부대공간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도시 내 하천이 중요한 공공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 상·하수가 각각의 집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근대

이전에는 ‘물’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서양과 같은 광장이 도입된 것은 근대화에 따라 도시구조가 서구적으로 개편된 이후이며, 전통적으로는 정치적, 문화적, 유희적인 교류활동은 주로 ‘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

# 2

### 1)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쇠퇴

현대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조성되면 재조성되기 어렵고 새로운 요구에 맞게 수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도시공간은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대 공간은 더욱 복합적인 기능과 유연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도시 공공공간은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쇠퇴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생활방식의 변화

첫째, 통신의 발달로 인한 대면접촉 필요성의 감소이다.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직접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도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계속 개발되어 상거래나 정치적 여론의 형성이 대면접촉 없이도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오락기능의 발달과 오락공간의 실내화, 오락의 개인화가 중요한 원인이다. 영화, 텔레비전, 전자오락게임 등 새로운 오락유형은 사람들이 외부공간에서 공동으로 즐기는 것보다 실내에서 개인적으로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주거형태의 변화이다. 초고층아파트가 늘면서 고층 거주자는 아래를 조망하는 공간으로서 단지 내 공공공간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 되고, 이에 따라 공동의 마당 역할을 하였던 공공공간의 기능도 줄어들었다. 넷째, 새로운 근린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종래의 물리적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근린 개념은 교통, 통신의 발달로 거리와는 관계 없는 개념으로 바뀌고, 이웃끼리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의 의미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 (2) 건축주의 이기적 가치관

첫째, 건축주에 의한 의도적인 이용방해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개 소유 및 관리의 주체가 사기업인 경우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벤치나 파고라 같은 휴식시설을 만들지 않거나 만들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식수대,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아 장시간의 이용을 막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둘째, 통제하기 쉬운 공간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공공공간이란 원래 별다른 목적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유의 공공공간에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비디오 모니터, 신분증 또는 출입증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통제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공공공간에 대한 과도한 또는 과시적 장식의 경향이다. 최근 고층건물이 보편화되면서 오픈스페이스는 조망을 위한 것으로 변모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공을 위한 공간이나 소공원도 하나의 미술품처럼 조성되었다. 넷째, 건축주의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즉, 건축주 개인이 공공공간의 제공을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출입을 방해하거나 인접보도와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하고 건물 내 공공공간 출입구의 식별을 어렵게 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 (3) 제도와 행정의 편의

첫째, 대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간에 대한 형식적인 인가와 관리를 하고 있다. 공공공간의 관리와 인허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간에 대한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대형건축물 측면공지의 불법적인 전용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있다. 둘째, 공공공간 관련 제도는 공공공간의 제공을 양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다. 셋째, 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사선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는 건축주들에게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고 옥상정원 등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상업지역 내 필지의 대부분이 법정 용적률을 훨씬 밀도는 상태에서 공공공간 제공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제도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 무책임한 공공공간의 계속적 공급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심재개발, 도시설계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공공간의 양적 확대를 시도해 왔으나, 그러한 공간의 상당수가 이용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많은 도시 광장, 대지 내 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도심 소공원 등이 높이 차이, 울타리 설치, 불명확한 출입구, 의도적인 주차장화 등으로 인해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상당수가 이용자의 요구나 예상되는 행태를 전혀 무시한 채 계획되어 완공 후 제대로 이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 (4) 이용자의 무지와 무관심

첫째,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무지가 중요한 원인이다.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건물 내 공개공지가 그들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에 대한 파손행위나 불법주차 등 이용자 스스로가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둘째, 문화적 특성이나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 획일적인 디자인의 문제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경우 공공공간을 찾는 대부분의 이용자는 바쁜 도시생활에서 휴식을 취하고자 그들만의 한가한 시간에 공공공간을 찾는다. 따라서 편안하고 느슨한 기분을 즐기면서 동시에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원하며, 이의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과 건축주들의 노력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이 부족하여 이용가능한 공간일지라도 관상용 공간으로 격하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되지만 이것이 곧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라 해석할 수 없다. 도리어 현대 도시에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공공간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공간의 새로운 모델 또는 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기능과 특성

얀겔(J.Ghehl)은 『Life Between Buildings(1971)』에서 공공공간이 담아야 할 인간의 행위유형으로 필수적인 외부활동(necessary outdoor activities), 선택적인 휴식활동(optional recreational activities),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ies)을 들고 있다.

필수적 활동은 대개 꼭 해야만 하는 활동으로, 크건 작건 간에 참여가 요구되는 활동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일상의 직무와 소일거리들이 여기에 속하며, 다른 활동과 비교하면 '걷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활동들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고 대체적으로 외부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며 활동의 참여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적 활동은 사람들이 원하고 시간과 장소가 허락하는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전혀 다른 활동으로, 날씨나 장소가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외부조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활동은 특히 외부의 물리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적 활동은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있어서 야기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장소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회활동이 일어나며 활동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들은 서로 연계적 활동으로 나타나며, 공공공간은 이러한 활동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공간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축제를 통해 일종의 기능적이고 의식적인 공동체 행위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장소이다(Carr외, 1992). 이러한 공공공간의 사회적 기능은 놀이를 통해 사회화되고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재생산되는 커뮤니티의 공터의 역사적 기능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잭슨(Jackson, 1984)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집단의 성원으로서 사회화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공공간과 공동체의 유기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휴대전화 등 여러 첨단과학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또한 공공공간은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하며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회의 소외 계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해된다. 즉 사회에서 사적생활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소외계층, 특히 주거환경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 즉 집이 없는 사람들(homeless), 저소득 노인층, 외국인 노동자 등이 공공공간을 자주 이용한다. 세계적으로 많은 공공공간의 문제점들이 바로 이러한 소외계층의 점유로 인하여 다른 계층의 이용자들의 심리적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능을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공간은 그 특성상 여러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얼마나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한 사회의 공공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공간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 및 주거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인 방법뿐만이 아니라 공간의 계획과 설계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마르커스(Marcus, 1998)는 공공공간이 갖춰야 할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어야 한다.
- 이용을 위한 공간이라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에서 볼 때나 내부에 들어왔을 때나 아름다워야 한다.
- 예측되는 행위들이나 바람직한 행위들을 지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도시적 스트레스로부터 이완될 수 있고, 건강과 감성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 그룹의 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소수 그룹의 이용을 장려해야 하며 그룹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가장 이용이 많이 이루어질 때도 일조 및 그늘, 통풍 등이 원활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공간 관리주체의 성격에 철학적으로 부합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한다.
- 이용자들이 공공공간의 설계, 시공, 관리의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심과 참여를 통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쉬우면서 경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간의 사회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를 중시해야하며, 둘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위에서 제시된 항목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공간의 기본적 속성은 공공의 규범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즉 공공공간의 또 다른 기능은 한 사회의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매체라는 것이다. 공공공간은 그 시행주체나 이용대상이 '공공'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가장 보편화된 당대의 가치와 시행주체의 의지와 비전을 구현하는 도구이다.

최근 거의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서 가시적으로 구현하려는 가치가 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민간에서는 쉽게 다룰 수 없는 도시의 구조와 골격,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의지는 공공과 민간을 망라하여 이미 많은 부분이 실천되고 있지만, 도시 체계를 조직하고 구현하는 일은 바로 도시 전체 골격을 다룰 수 있는 공공공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 공공공간의 기능이 정치인들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이용되어 임기 내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다. 만약 공공공간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면 앞으로 공공공간의 조성방식에 공공미학적 태도나 환

경윤리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도시공간의 복합적 기능이 더욱 요구된다. 공공공간은 다양한 시민들의 여러 행태를 통해 여러 유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도시공간에 비해 용도를 규정하기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건축물 또한 여러 용도를 복합적으로 수용하고, 여러 개의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복합개발 양상이 나타나면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공간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유기적인 연계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기술발전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이나 무선인터넷 등 발달로 외부공간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져서 고전적인 외부활동 외에 미래 생활양식을 반영한 프로그램과 이를 담을 수 있는 공공공간의 기능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3)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역할과 가치

도시생활과 환경의 질 향상을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꾀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목표라 한다면, 그 목표 구현의 수단으로 도시공간에 지속적으로 공급된 시설 중 대표적인 것이 공공공간이다.<sup>4)</sup>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하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공간의 구체적인 개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이는 곧 공공공간의 역할과도 연결된다.

첫째, 공공의 복리이다. 이는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공공공간 개발의 이유이다.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길을 포장하고, 아고라를 넓히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시민의 권리가 커지면서 이러한 명분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개발된 근대 공원이나 시민의 물리적, 심리적 조건의 향상을 이유로 개발된 현대 오락 공원도 같은 이유에서 조성되고 있다. 둘째, 도시공간의 시각적 질의 향상이다. 이 경우 주로 도시에 중요한 초점을 형성하거나 비스타 효과를 갖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Rubenstein, 1992). 셋째, 도시환경의 정비 차원이다. 쇠퇴한 기존시가지를 재개발하고 그곳에 활력을 주기 위해 쇼핑몰, 기념광장을 조성하거나 역사적 유적지의 보존을 위하여 주변부에 공공공간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경제적 논리이다. 쇠퇴해가는 기존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몰을 조성하고 구매자를 끌어들

4) 현행 건축법(제67조)에도 도심지 등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다섯째, 이미지 향상이다.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기업 사옥의 전면공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거나 일정 부지를 매입하여 기업 이름을 붙인 광장 등을 공공에 증여하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이다(Carr, 1990). 여섯째, 과시를 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종교나 정치 등 강력한 권력 체제의 상징으로서 대규모 기념광장 등을 조성한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일곱째, 의무이다. 공공공간에 관한 관련법이나 정책 등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공공에 기증하는 보행공간, 광장 등이 이에 속한다.

영국의 케이브(CABE)는 『The Value of Public Space(2004)』에서 공공공간이란 지역에서 단순한 시민의 쉼터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곧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중요한 역할이며 가능성이라 볼 수 있는데, 케이브가 제시하는 공공공간의 가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가치는 도시 재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의 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가의 문제이고 이것이 곧 투자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비만은 식습관 못지않게 운동 부족이 큰 원인이다. 또한 사회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육체건강과 더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공간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에서 머물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 : 놀이와 운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인간관계, 사회성, 도덕성, 인지능력 등을 배운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과거와 비교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졌으므로 결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외부학습 기회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에 놀이 및 스포츠 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
- 범죄 감소 및 예방효과 : 디자인이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는 공공공간은 항상 사람들이 머물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범죄를 감시하는 효과를 낳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치된 가로등, 벤치, 버스정류장 등도 충분히 범죄예방 효과에 기여할 수 있다.

- 사회적 통합의 기능 :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경우 공공 공간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운동, 놀이, 축제 등을 통하여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공공공간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림으로써 큰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차량을 억제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장려 : 무조건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걷기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며, 또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환경적 가치 : 도심 기온상승의 주요 요인은 녹지의 감소인데, 녹지를 가진 공공공간은 도시의 환경적 부조화를 해결하는 핵심이며, 야생동물과 곤충의 서식처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 복원에 큰 역할을 한다.

#### 4)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유형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의 공공공간이란 이용자에게 항상 개방되어 있어 이용자가 그룹 또는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도시의 미개발지와도 구별된다. 최근 사회가 변화하면서 공공공간이 실내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극장, 대형마트, 쇼핑몰 등 시민이 자주 모이는 장소도 넓은 의미에서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Carr와 3인은 이렇듯 다양한 의미와 범주를 갖는 공공공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3〉 현대 공공공간의 유형

구분		특징
Public Parks	Public/ Central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일부로서 공적으로 개발, 관리되는 개방공간</li> <li>· 도시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지닌 오픈스페이스</li> <li>·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li> <li>· 근린공원보다는 큰 규모의 공원</li> </ul>
	Downtown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풀밭과 수목이 어우러진 녹지로 도심에 위치</li> <li>· 전통적, 역사적 공원이거나 새롭게 개발된 오픈스페이스</li> </ul>
	Comm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나 마을에서 개발되었던 대규모 녹지</li> <li>· 오래전 공공이 목초지로 사용하였으나 현대 여가생활을 위해 이용되는 곳</li> </ul>
	Neighborhood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 안에 개발된 오픈 스페이스</li> <li>· 도시 오픈스페이스 구획으로서 공공이 개발하거나 새로운 주거지 개발의 일부로 개발, 관리</li> <li>· 운동장, 운동시설 등을 포함하기도 함</li> </ul>
	Mini/Vest- Pocket Pa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에 면한 작은 도시공원</li> <li>· 분수나 물의 지형을 포함하기도 함</li> </ul>
Squares and Plazas	Central Squ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장이나 사거리</li> <li>· 대체로 도시 중심에 오래전 개발된 부분</li> <li>· 만남의 장소로서 공식적으로 계획되거나 존재</li> <li>· 대부분 공적으로 개발, 관리</li> </ul>
	Corporate Pla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사무실, 상업건물의 일부로서 계획된 광장</li> <li>· 대부분 도심에 위치, 최근 교외 공원 개발 증가 추세</li> <li>· 건물 소유주나 경영자에 의해 건설, 운영</li> <li>· 일부는 공적으로 개발되지만 대부분 사적으로 개발, 운영</li> </ul>
	Memor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공공장소</li> </ul>
Markets	Farmer's Mark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부들이 시장이나 벵룩시장으로 이용하는 오픈스페이스</li> <li>· 공원이나 도심거리, 주차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생성되기도 함</li> </ul>
Play- grounds	Play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지역에 위치한 놀이영역</li> <li>· 많은 경우 미끄럼틀이나 그네와 같은 놀이시설을 포함</li> <li>· 어른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포함하기도 함</li> </ul>
	Schooly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영역으로서의 교정</li> <li>· 환경 학습이나 커뮤니티 이용공간으로 발전</li> </ul>
Streets	Pedestrian Sidewal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부분</li> <li>· 대부분 목적지를 연결시키기 위해 개발되거나 설립되는 길이나 통로</li> </ul>
	Pedestrian 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li> <li>· 수목과 벤치로 보행의 쾌적성을 제공</li> <li>·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주도로를 따라 위치</li> </ul>
	Transit 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 지역의 통행을 개선하는 개발</li> <li>· 전통적인 보행자도로를 버스나 간소한 철도로 대체</li> </ul>

구분		특징
	Traffic Restricted Streets	· 공공 오픈스페이스로 이용되는 거리 · 차량제한에는 보도 개선이나 도로 확장, 조경 사업 등 포함
	Town Trails	· 통합된 도심 트레일로 도시의 각 부분을 연결 · 환경 학습을 위해 계획된 오픈스페이스와 거리로 연결 · 일부는 트레일로 계획되고 지정됨
Community Open Spaces	Community Garden/Park	· 거주민들에 의해 계획, 개발, 관리되는 근린공간 · 전망 정원, 놀이영역, 공동체 정원을 포함하기도 함 · 종종 도시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의 일부로 사유지에서 개발되기도 함 · 때때로 주거나 상업 개발과 같은 다른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취약점 있음
Greenways and Parkways	Recreational and Natural Areas	· 보행도로나 자전거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자연지역과 여가공간
Artrium /Indoor Market place	Artrium	· 내부의 아트리움 공간으로 개발된 사적인 공간 · 내부의 폐쇄가능한 광장이나 보행도로 · 오픈스페이스 시스템의 일부로 많은 도시에서 채택 · 새로운 오피스나 상업개발시 단독으로 개발
	Market/Downtown Shopping Center	· 내부의 독립적인 쇼핑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이전 건물의 보수된 것 · 내부, 외부 공간 모두를 포함하기도 함 · 사적으로 개발되고 새로운 오피스나 상업적 개발의 일부로 관리됨
Found/Neighborhood Spaces	Found Spaces/Everyday Open Spaces	· 길모퉁이와 같이 공공이 접근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 건물의 계단 등과 같이 사람들이 오르고 사용하는 곳 · 공지나 개발예정지와 같은 근린생활공간에 위치한 공지 또는 미개발지가 포함되기도 함 · 어린이나 10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
Water-fronts	Waterfronts, Harbors, Beaches, Riverfront, Piers,Lakefronts	· 도시에서 물길을 따라 있는 오픈스페이스 · 수변지역으로 공공의 접근을 증가시킴 · 수변공원으로 개발

출처 : Carr, 1992

이것은 공공공간의 주요 특징과 기능에 의한 분류로, 가장 포괄적이면서 이해하기 쉬운 공공공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활양식과 서양 공공공간의 진화과정과는 거리가 있는 항목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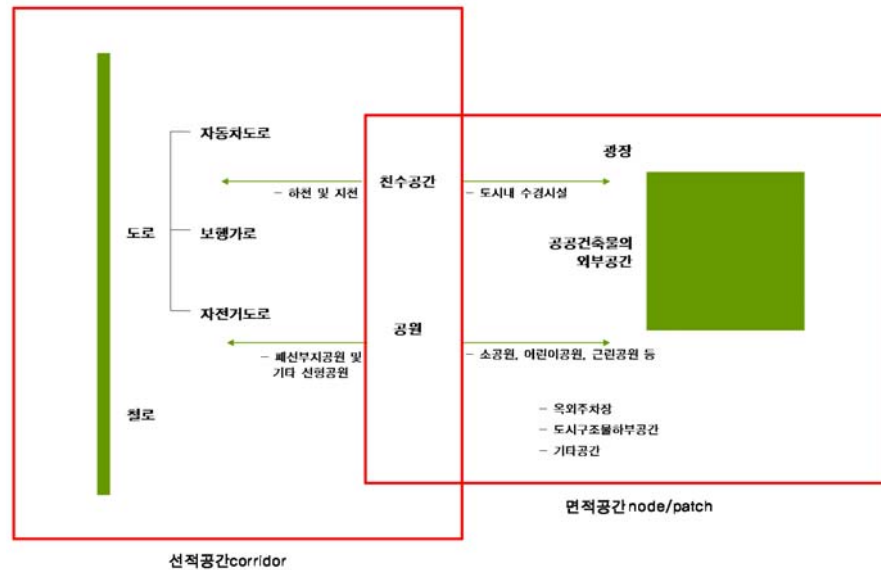
빠른 속도로 다변화,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생활양식과 함께 진화하는 공공공간의 역동성과 개방성, 그리고 시설간의 상호교차 및 병합의 가능성은 기존의 법체계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공부분

에서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시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지만 공간의 이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공공성을 띠는 도시 내 비건폐지가 존재하므로 공공공간의 논의에 기존의 법체계에 근거하면서도 이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규제와 권고를 주도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의 주체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조성과 관리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쉬운 체계를 통해 도시의 공공공간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공간은 공유지에 근거한 공적인 공간과 사유지에 근거한 사적인 공간으로 나누고, 이들 가운데 ‘개방적인 공적공간’과 ‘개방적인 사적공간’을 합쳐 공공공간 또는 시민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이제까지 공공공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구조였다. 그러나 공공공간의 개념은 공간적 특성, 소유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최근에는 민간, 기업, 관, 시민단체 등이 여러 형태로 협력해서 공공공간에 관여하므로 소유나 조성, 관리에 더욱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공간의 형태적 측면에서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선적인 공간과 면적인 공간으로 나누고 이러한 형태에 맞추어 여러 공공공간들을 분류할 수 있다. 공간을 선과 면으로 나누는 것은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간을 체계화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sup>5)</sup> 도로, 즉 차도, 보도,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하천 등이 도시 공공공간의 주요한 선형공간이다. 이러한 선형공간들은 도시의 중요한 코리더(corridor) 역할을 담당하여 고립되고 분절되어 있는 다른 면적인 공공공간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매력적인 공간 기능을 수행한다. 광장, 공원, 주요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 등은 면적인 공간에 해당하나 도로나 철도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변화시키며 보행가로 및 공원으로 변형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공원은 선형, 면적 공간에 걸쳐서 가능하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도시 내 친수 수경시설과 하천 등은 물이 주제가 되므로 친수공간으로 분류하였다. 현재 하천은 법적으로는 방재시설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류로 인해 도시의 하천은 치수의 관점에서 다루어짐으로써 공간적인 기능이 많이 희생되어 왔다. 그러나 도시 공공공간의 관점에서는 하천 둔치의 소극적/적극적 이용 측면이 모두 강조되므로 이를 친수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이미 많은 연구에서 공간의 체계를 다룰 때 고립되어 존재하는 점적 혹은 면적 요소들을 선에 의해 네트워크화하여 연속성과 이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것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림 3〉 형태에 의한 공공공간 분류(김아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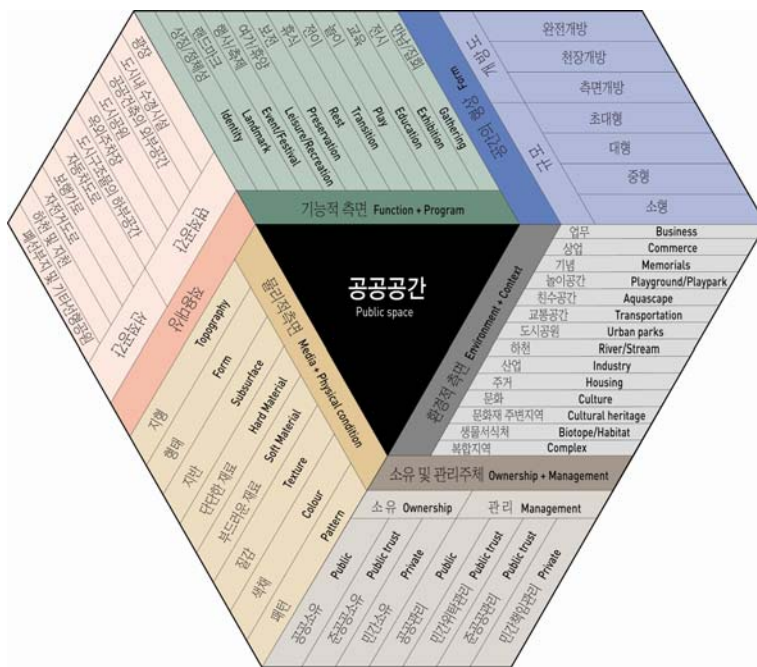
### 3 소결 : 확장된 개념으로서 공공공간

우리나라 공공공간은 1980년대까지 관주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갈수록 사회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PF, BTL 등 발주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도시개발을 예전처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명확히 분류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차적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신탁(trust)에 의해 소유, 조성, 관리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공공공간의 소유, 개발 관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화는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공공공간의 성격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도시의 공간을 자율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와 함께 공공공간에 대한 확장된 개념이 요구된다.

현대 도시에 적합한 공공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총체적인 공공공간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공공공간과 관련되어 준거가 되는 법규와 제도를 통합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타(Yukio Ota)는 시각매체를 서술하는 그의 책 『Sign Communication』에서 도시의 안내체계(sign communication) 디자인에 대해 서술하면서 흥미로운 틀의 도표를 통해 기본 범주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틀은 가로세로의 2차원적인 행렬식 틀에서 놓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을 제시한다. 이를 응용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고려할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공공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시한 공공공간의 기본구조에 의하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공간이 가진 기능적, 환경적, 그리고 물리적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공간의 형태와 조성과정의 특이성을 이해해야 한다.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해야 할 여섯 가지 측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공공공간 이해의 기본구조(김아연 작성)

#### ① 기능적 측면 (Function + Program)

- 공간에서 인간 행태와 공간 의도 및 목적을 포함한 기능적 요소
- 가변적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적 요소와 일상적/비일상적 기능을 포

함하도록 함

## ② 환경적 측면 (Environment + Context)

-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토지이용, 자연환경 및 건축물 등의 성격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도 주변 맥락에 따라 차별화

## ③ 물리적 측면 (Media + Physical Condition)

-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와 형태 등의 고려사항
- 공간의 외연을 규정하는 제반 물리적 요소들로, 직접적인 설계결과물에 반영됨

## ④ 적용대상 (Classification + Type)

- 공공공간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선적공간과 면적공간으로 분류함
- 도로(자동차도로, 보행가로, 자전거도로)가 주요한 선형공간이고, 선형의 공원과 친수공간의 하천이 선형공간에 해당함
- 이러한 선형공간은 고립되어 있는 면적인 공공공간들을 연계시키고 공간의 연속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광장/공원/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친수공간/주차장 등을 면적공간으로 규정함
- 선적공간과 면적공간의 효율적인 조합으로 도시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구축

## ⑤ 공간감 (Size + Open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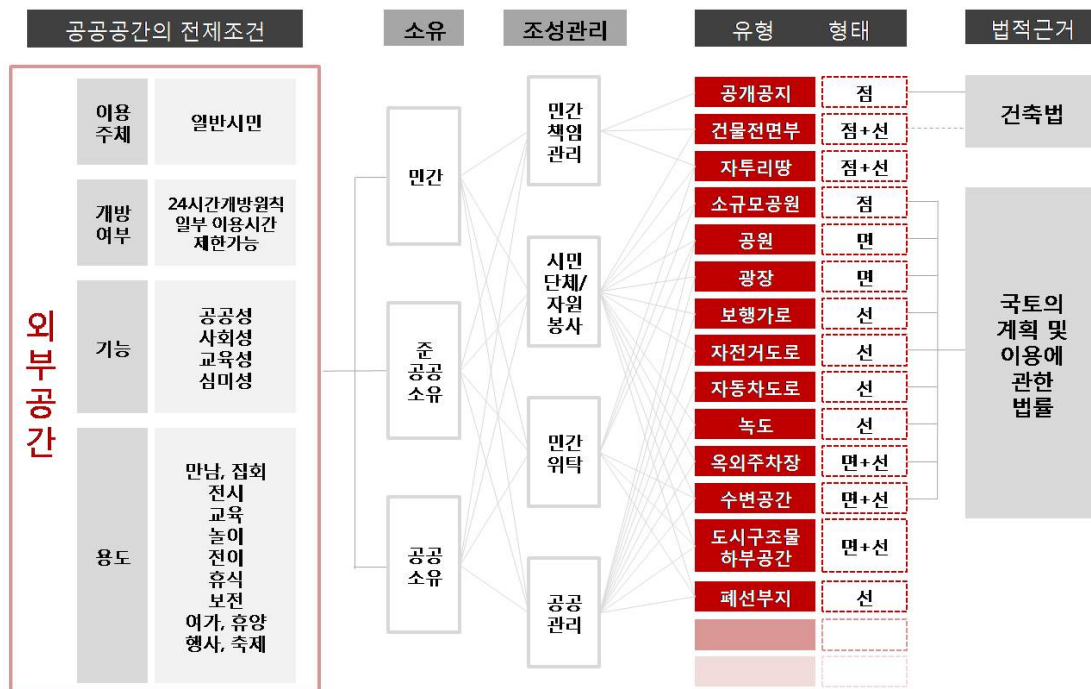
- 규모는 공간의 수용능력과 가변성,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
- 공간의 경계부가 모두 개방되어 있을 경우를 완전개방, 필로티공간과 같이 천장이 폐쇄되고 측면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를 측면개방, 선큰공간과 같이 공간의 경계부가 건축물에 의해 위요되어 있으나 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를 천장개방이라고 분류함
- 규모에 따라 복잡성과 다양성을 조절함

## ⑥ 소유 및 관리주체 (Ownership + Management)

- 공간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입장을 고려함

-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적인 단순 구도보다는 다양화된 현대의 공간 소유 및 관리방식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함

앞에서 제시한 틀로 이해될 수 있는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은 도시공간에서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을 기능적,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 건축물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개방공간으로서 특성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전파하는 매개공간으로서, 그리고 도시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동공간으로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현대의 공공공간은 한정된 범위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처럼 계속해서 진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공간을 간단히 정의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공공공간의 변화와 기능, 공공공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이라 하면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 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이라는 개념적이고 잠정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공간’이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하여 공공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전제로 공공공간의 위치, 소유, 관리, 유형(형태)에 따라 공공공간의 범위 및 분류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5〉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 공공공간 관련 제도 및 조성 현황

1. 공공공간 관련 범위 및 제도
2. 공공공간 조성 현황
3. 소결: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문제점

( a u r i

# 공공공간 관련 제도 및 구성 현황

## 1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제도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이용하며 관리하는 데 관련된 법과 제도는 매우 복잡하며 다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동일한 공공공간을 다루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어렵게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행가로를 조성하는 데 가로시설물의 종류는 97개이며, 26개 부서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06).

이렇게 복잡하고 중복되며 비효율적인 공공공간의 운영 제도는 통합된 도시공간과 경관을 조성하는 데 걸림돌이다. 따라서 관련 법과 제도가 더 유연하게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공간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 1) 공공공간 관련 법규

현행 법 체계 속에서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시기반시설과 관련된 것, 건축물과 관련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단지와 관련된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각각에 해당하는 공공공간의 유형과 근거법 및 결정기준, 조성 및 시설 설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1) 도시기반시설 관련

공공공간을 현행 법규체계에서 이해할 때 가장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법에서 공공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의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 제2조6항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구조를 결정하는 데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분류할 때 도시의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반시설 가운데서 특히 공공공간과 관련된 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이며, 구체적으로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등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공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종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설치 또는 관리주체의 공사를 막론하고 공공성과 영속성이 보장되어 있는 비건폐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대부분의 기반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성되며, 도시공원이나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2) 건축물 관련

건축물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

축선 후퇴, 사선제한, 고도제한, 대지안의 조경 및 주차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공간을 관리하였으나 1980년 들어 도시설계가 도입되고 본격적인 계획, 조성 및 관리가 시작되면서부터 공공공간의 개념과 구체적인 위치 및 조성방식, 설치시 보상방식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사유지에 조성할 수 있는 공공공간, 즉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현 제도 안에서 사유지에 조성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대지안의 공지,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공공지, 공공보행도로, 대지안의 조경,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등이 있다.(이승지, 2003)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의해 확보되는 개방공간으로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말한다. 건축물은 공개공지의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접 대지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등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는 그 위치에 따라 부정형 공개공지(비의도적이며 도로개설에 따라 생김), 건축선 후퇴에 의한 공개공지, 건축측면 공개공지로 나눌 수 있다. 공개공지를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물리적 특성에 따른 공개공지의 분류

위치	물리적 형태	건축적 형태	내용
옥외	비건폐 공개공지	광장(square)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청공 공간으로 분수, 조각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고는 하늘을 가리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됨
		보행자데크 (pedestrian deck)	보행자 전용도로의 한 형태로 2층 이상의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독립적, 입체적 도로
		선큰가든 (sunken garden)	대지 일부를 낮춤으로써 빛과 위요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건폐 공개공지	아케이드 (arcade)	한쪽면이 가로나 광장에 면하여 개방된 천장이 있는 연속된 복도형 공간
		로지아 (loggia)	2층 이상의 높이에 있는 아케이드형 공간
		포티코 (portico)	지붕이 있는 보행로로 주랑현관이라고도 함
		콜로네이드 (colonnade)	건물의 엔타블레이처를 지지하는 기둥 열
		필로티 (piloti)	건물 1층 부분에 벽이 없어 기둥만으로 지지된 공간
		칸틸레버 (cantilever)	돌출보형식으로 그 밑의 공간이 공공공간으로 이용

위치	물리적 형태	건축적 형태	내용
옥내	옥내 공개 공지	그린하우스 (green house)	온실을 뜻하나 유리로 구성된 아트리움 형식으로 많이 이용됨
		갤러리아 (galleria)	천장이 있는 2층 이상의 높이가 있는 복도형의 공간
		지하콘코스 (underground concourse)	지하 건물이나 가로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도, 지하 공공공간

외부연구진 김세웅 작성

공개공지는 소유, 관리의 측면에서는 사유공간이지만 공공공간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장소로 체험될 때 도시공간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개공지 제도는 도심에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도심 외부공간의 증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공공에서 조성되는 보행가로나 오픈스페이스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관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공개공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거나 단차를 두어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는 등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소홀한 실정이다. 개별 필지의 공개공지는 공공영역의 보행로나 오픈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인접 대지의 공개공지와 연계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지 내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 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공개공지(일반 공개공지와 필로티 공개공지), 1층 벽면 한계선에서의 아케이드, 공공보행통로 등이 있다.

### (3) 주택단지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경면적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나 유아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시설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면서 주택단지의 외부공간이 도시공간의 중요한 오픈스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공공공간

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주택단지의 경우, 주변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로나 녹지 등이 단절되기도 하고, 입주민의 구성이 반영되지 않는 일괄적인 제도로 인해 어린이가 없는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 (4) 기타

기타 관련 법규로는 경관, 간판, 건축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 공공공간에 대해 정의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물과 공공공간으로 이루어진 공간 환경을 대상으로 생활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문화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3조 3항에서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제3조 4항에서는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여 공공공간에 대한 계획을 건축디자인 안에 포괄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본법」에는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통합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공공공간에 대한 정책적인 선언을 가능케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공공공간의 충위를 담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2007년 제정된 「경관법」에서도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관계획에서 공공공간에 관한 사항을 계획 내용에서 다루고 있으며, 경관법에서 제시하는 경관사업은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지역 녹화,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지역 특성을 위한 경관사업, 농촌 자연경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공간과 무관하지 않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조례와 함께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는데, 조례에서 말하는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개선을 위해 도시건축물 등 도시공간, 도시시설물의 형태·윤곽·색채·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서울시 도시디자인조례」)제2조를 지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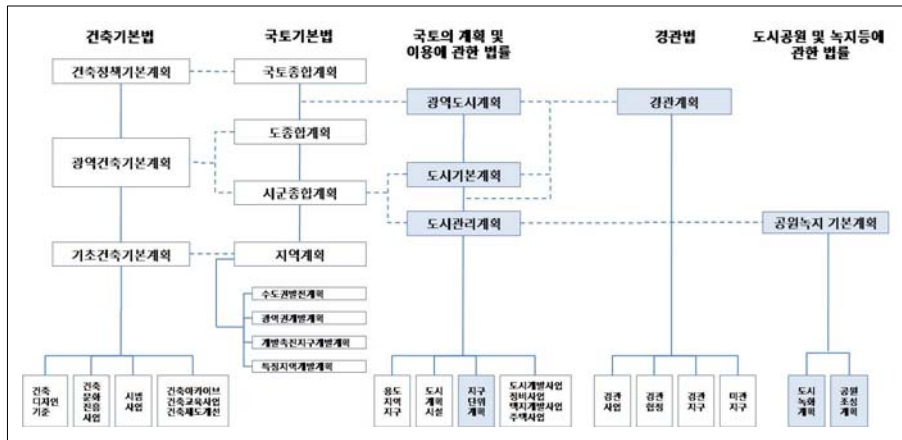
그 밖에도 주택법, 문화재 보호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자연환경보전법, 하천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개별 공공공간으로 내려가면 이에 관한 하위법 및 조례는 더욱 다양해진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살펴보면, 도로에 관련된 검토법규 및 제도만 해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도시디자인조례, 서울시 도로기전 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할지역 및 주변 여건의 특수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규칙과 조례가 있다.

이와 같이 도시의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검토해야 할 법규의 종류는 매우 많고 복잡하다. 또한 이러한 법규들은 상호 참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통합적인 공공공간 조성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 2) 공공공간 관련 계획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에서 개별시설별 또는 대상별로 다루어진다.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전반적인 도시개발 방향과 도시의 기본구조를 제시하므로 전체 도시차원에서 공공공간에 대해서는 큰 틀만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중요한 공공공간의 대상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역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실질적으로 공공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수립되는 계획 내용에도 공공공간과 관련된 부분이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서 다루는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 도시 차원에서 공공공간을 다루거나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연계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림 6〉 공공공간 관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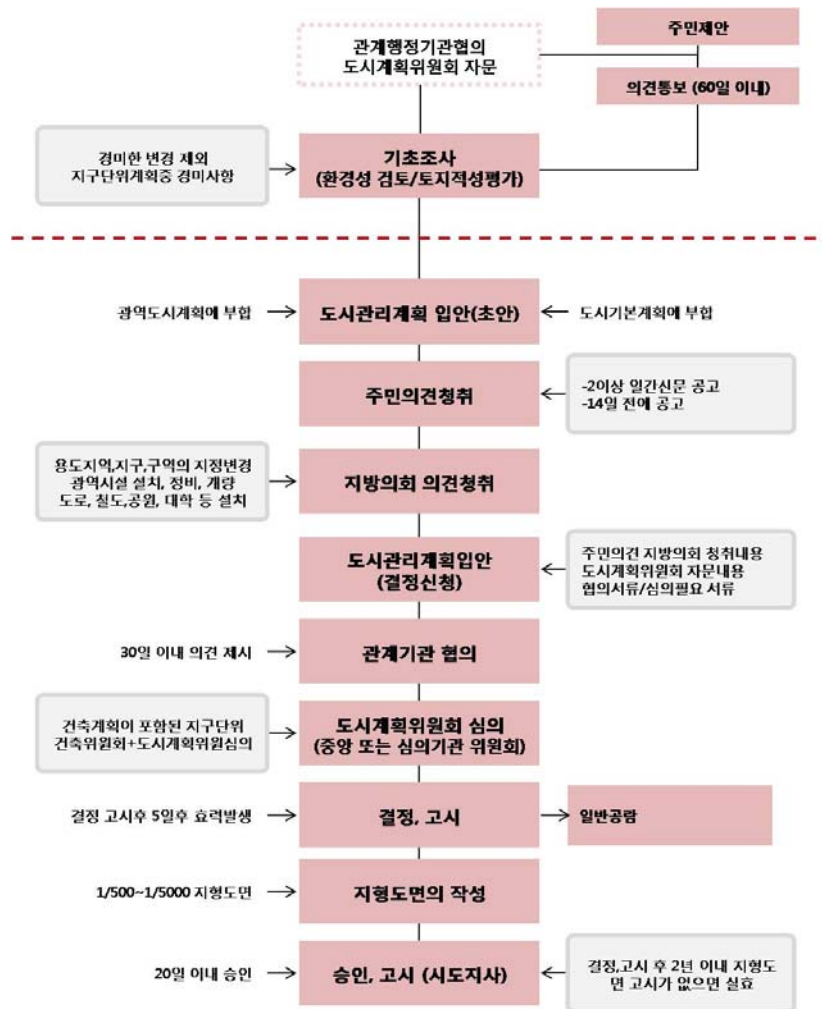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도시차원에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아직 통과된 계획안이 없어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수립지침 내용에 의하면 도시차원에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공간과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들 간의 관계 정립이나 상호보완적인 운영방식을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 3) 개별 공공공간의 조성과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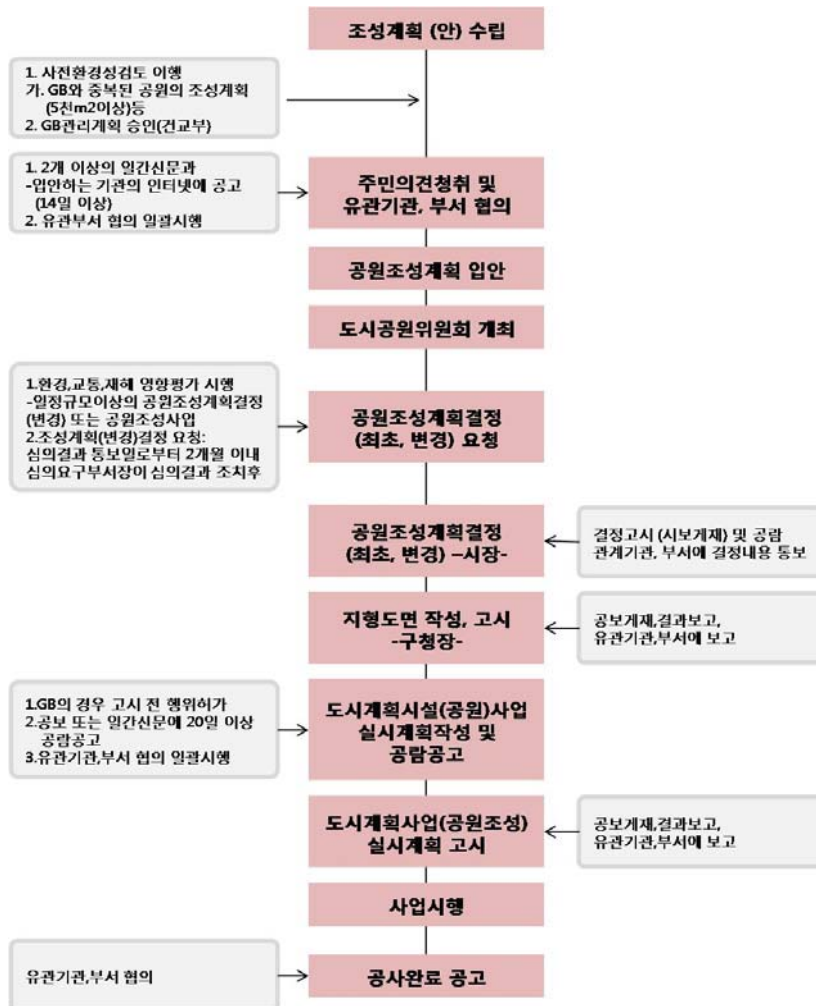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공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절차, 즉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따르고 이후에 세부시설계획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공원이 가장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밖의 녹지, 광장, 공공공지 등은 세부시행 절차 없이 계획안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다. 단, 규모가 큰 경우에만 설계안에 대한 기술검토를 거친다.<sup>6)</sup> 이러한 과정은 새로 조성할 때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난 후 세부시설계획을 거치게 된다.

6)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최현실 팀장과의 면담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공공공간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간은 건축물이나 대규모 구조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지에 조성하는 것은 법규가 까다롭거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공간, 주택단지와 관련된 공간은 허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법적 최소 규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축주 또는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림 7〉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그림 8〉 도시공원 조성 처리절차

## 2

## 공공공간 조성 현황

### 1) 공공공간 조성 주체

#### (1) 중앙정부<sup>7)</sup>

##### ① 부처별 전담부서 신설 및 협조 체계 구축

###### □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

문화관광부는 2005년 8월 문화정책국 내에 공간문화과를 신설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삶의 터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듦으로써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공간문화과의 주요 업무는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간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이며,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간판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의 공간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공간문화 인식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국·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여한다.

###### □ 산업자원부 : 산하기관과 연계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 및 공공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펼쳐 온 사업들을 묶어 산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에서 전담하고 3개 지역디자인센터(부산, 대구, 광주)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이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 요소라는 가정 아래에 공공디자인 향상을 통한 환경 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 □ 건설교통부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건설교통부는 정책지원서비스인 '도시포털'을 운영하여 살고싶은 도시 등 도시부문의 정책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고 있다.

7)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으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는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경 전 명칭을 사용하였다.

〈표 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체계

구분	세부사항	추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의 지원조직 체계화	도시만들기정책연구지원단 구성, 운영	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	도시연대, 지방의제21등
중앙행정 운영체계구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팀(TF) 구성	건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문위원회 구성	건교부
	살고싶은 도시협의회 구성	건교부
광역, 기초 지자체 지원체계 마련	전담부서 지정 또는 추진단 구성	지자체
	살고싶은 도시 지자체협의회 구성	지자체
살고싶은 도시대상	도시대상 방안 마련	건교부
	도시대상 시행	건교부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주민참여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시범 구성 및 운영(시범도시 등)	시범도시 지정지자체
	제도적 근거 마련	건교부
	공공부문 확대 구성, 운영 인재 양성, 자문 등	건교부, 국토연구원, 주공, 토공
	지자체 확대 구성, 운영	지자체
마을만들기재단 및 펀드 구성	방안연구	건교부
	구성, 운영	지자체
법적, 제도적 정비	인프라(도서관, 박물관 등) 설치기준 강화 개발관련 지침 개선	건교부
	도시계획시설의 주민자치권 부여, 마을단위 도시계획제도 등 계획시스템 개편(특별법 제정 등)	건교부
제도개선 발굴 및 지속 추진	제도 개선 발굴	건교부

참조 : 도시포털 [www.city.go.kr](http://www.city.go.kr)

또한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전담조직 위원회 시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부처 내에 전담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위한 체계도 확립하였다. 그 예로 지방의제21, 도시연대 등 도시만들기 관련 시민단체의 전국 단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및 펀드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정책 및 관계법 제언

###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는 최근 도시 내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질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단계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5년 12월 공공디자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회, 정부, 학계 등 관련 분야가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문화포럼’을 발족하여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간문화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간판 정비 및 가로 조성, 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공공디자인 개선, 건축문화 진흥, 문화역사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공간문화 창출 사업에 대해 그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연구, 포럼, 워크숍을 통해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기존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대상이 산업 디자인에 국한되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공공디자인 전반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기존 산업디자인은 제품(manufactures design) 디자인에 머물렀으나 이제 그 범위를 뛰어넘어 생활공간 전반의 조형 및 구성 요소로 ‘디자인’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자원부는 국가디자인 개선사업 및 지역디자인 혁신 사업을 펼치고 있다.

####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계획과 기존 도시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공간환경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국의 도시 및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법 제정 및 제도 정비를 추진중이다.

도시 녹지 확충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활용 계약제의 도입 등 제도를 개편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토경관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정책 추진 및 관련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개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체계나 전략계획가(MP : Master Planner)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③ 시범 사업 시행

####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생활 환경을 문화적 관점에서 개선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문화소외지역 생활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등이 있다.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은 지역의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중 구조·형태·디자인·질감 등의 변화를 통해 공간의 심미적 쾌적성 제고 또는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공간으로의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기획 및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8〉 문화관광부 생활환경 문화적 개선사업 개요

생활 환경 문화적 개선 사업	목표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발굴·지원을 통한 인간중심 공간문화 조성
	대상	지자체 내 일정 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체계	공모 → 신청(접수) → 서면심사 → 현지실사 → 선정 → 사업진행
	지원규모	10억원
	신청자격	개별 기초 지자체
	심사기준(안)	디자인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40%) 추진 주체의 역량(40%) 추진재원 확보(20%)

이후 사업 대상은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디자인 모델 제시를 위한 시범 사업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는 조성사업이 완료된 광복로의 광복 프로젝트(2008. 2. 25), 현재 진행 중인 대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 안양시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등이 있다.

〈표 9〉 문화관광부 추진 가로경관 개선사업 개요

광복로의 광복 프로 젝트 공모	목적	'토탈디자인' 개념에 의한 거리경관 업그레이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옛 부산시청 앞~부평파출소 간 길이 1km의 광복로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세계적인 문화예술거리로 조성
	대상	도시, 건축, 경관, 미술 그리고 시각 및 산업 디자인 관련 전문인이나 관련학과 학생
	사업기간	2005.6
	체계	공모 → 신청(접수) → 심사 → 선정 → 사업진행(시공)
	지원규모	80억원

영등포 시범 디자인 사업	목적	가로환경에 대한 시범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모델 제시
	대상	영등포구청 앞 가로 약 400m
	사업기간	2006.2 - 2008.6
	체계	주최: 문화관광부, 영등포구청 주관: (사)새건축사협의회/공공디자인시범사업추진위원회 총감독: 승효상(건축가, 이로재건축사사무소)
	지원규모	44억원
	사업내용	공공디자인 현장설치 및 전시
대구 동성로 디자인 개선 사업	목적	시범적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모델 제시
	목표	개성있는 지역공공디자인 개발 보급
	사업기간	2007.5 - 2008.6
	체계	추진위원회(문화관광부, 대구시, 중구청 공무원 10인) 구성 → 지역 민관협의회(주민, 유관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15인) 구성 →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완료 → 설치 및 시공 → 결과 보고
	지원규모	26억원
안양시 공공 디자인 시범 도시 조성 사업	목적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도시전체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개선사업을 통하여 문화적 정체성, 예술성 및 기능성을 갖춘 공공디자인 시범모델 제시
	목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도시 및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2007: 도시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마스터플랜 수립 후 세부내용 확정 2008~2011: 마스터플랜에 따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실시
	체계	안양공공예술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 공공디자인 감독을 두고 디자인 전문 계약직 중심으로 사업팀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집행위원회 설치 운영
	지원규모	100억원

####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는 주로 공공시설물 및 공공이미지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기술 개발사업 및 디자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 디자인 개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로 국가환경 개선사업, 지역디자인 혁신산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국가환경 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공공디자인전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공공공간의 질 향상과 직접 연관되는 사업은 국가환경 개선사업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국가환경 개선사업 및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개요

국가 환경 개선 사업	목적	공공환경 디자인 개선
	목표	환경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환경디자인 개선
	대상	정부기관, 광역·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
	체계	과제공고 → 신청(접수) → 활용기관선정 → 주관기관 선정공고 → 신청(접수) → 주관기관선정 → 협약 → 개발진행 → 결과보고
	지원규모	10.5억원
	사업기간	2006.5.1 ~ 10.31
	기타	디자인개발자 별도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	목적	시민이 향유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디자인 의식을 높이고, 국가 전체 이미지 향상
	목표	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이미지 디자인 개발
	대상	전문회사, 협회, 학교(산업디자인진흥법 9조)
	체계	공고→ 신청(접수) → 선정 → 협약 → 개발진행 → 결과보고
	지원규모	75억원(2006년 10억원, 2007년 65억원)
	사업기간	2006 - 매년 개최

####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삶의 기초적 생활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복합 사업이며 전반적인 공간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사업 내용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근거하며, 세부 사업으로는 골목길 가꾸기, 마을마당 만들기, 담장 허물기, 상업거리 만들기, 재래시장 가꾸기, 도심보행환경 개선, 하천 가꾸기, 소공원 만들기, 차없는 거리 만들기, 역사문화거리 만들기 등이 포함된다.

〈표 1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 개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목적	국토균형발전
	목표	공공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상	지자체, 마을
	체계	마을진단(지역 여건 분석) → 사업선정(특화발전방향정립) → 사업시행 → 사후관리
	지원규모	140억원
	사업기간	2007 -
	기타	주민, 지자체, 정부 공동 참여
행정 중심	목적	행정중심도시건설
	목표	다기능 복합형 자족도시

복합 도시	대상	해당 지역
	체계	특별법 공포 → 추진위원회 출범 → 사업시행자 지정 → 도시건설본부 발족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수립 → 토지매입 착수 → 부지조성공사 착공 → 행정기관 이전 및 주민 입주
	지원규모	토지보상금 3조 4천억
	사업기간	2005 - 201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 계획 시 중심녹지 공간 계획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2002년부터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지정 시범지역을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타 부처와 연계하여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 지역을 성공 거점화하고 21세기 신개념 지역모델로 창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간판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자체 시범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간판 문화 개선을 위해 범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효과적으로 간판 관련 행정을 관리하기 위해 간판 디자인 모델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표 1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목적	국토균형발전
	목표	각각의 지역들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공간의 질을 재창조
	대상	지자체, 마을
	체계	마을진단(지역 여건 분석) → 사업선정(특화발전방향정립) → 사업시행 → 사후관리
	지원규모	20억원
	사업기간	2002 -
	기타	주민, 지자체, 정부 공동 참여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목적	무질서하게 남של된 광고물을 민관 합동으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
	대상	지자체(20개 우수지자체 선정)
	체계	간판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선정계획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도

사업		평가 → 자체평가 → 우수지자체 선정
	지원규모	60억원 (선정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억 × 20개 지자체)
	사업기간	2006.12 -

## (2) 지방자치단체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인 8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고자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부서 조직 및 진행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도시를 100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30만~50만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표본으로 서울특별시(10,356,000명), 울산광역시(1,102,988명), 김해시(464,964명)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디자인 중심도시’를 민선 4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전면적인 도시디자인 개조 사업을 총괄할 전담조직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 발족하였다.

울산시는 생태 복원과 도심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외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디자인 관련 전담 조직으로 2008년 2월 도시국 건축주택과 산하에 도시디자인계를 신설하였으며, 2008년 경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2000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도시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면서 도시의 질적 성숙과 더불어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와 취약한 공공공간에 대한 개선 문제를 역사문화 복원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공공공간 개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 ① 공공공간 관련 전담 부서 부재 : 디자인 중심 총괄부서 신설 움직임

대상 지자체에서 공공공간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진행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 등 법적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체계와 녹지 체계가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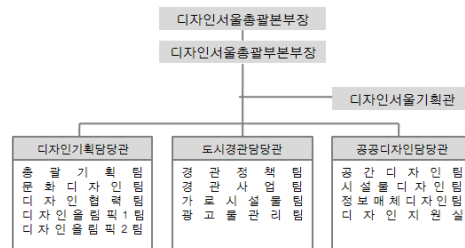
별일 경우에도 일관성 있는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 관련 조직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디자인 총괄부서의 신설인데, 최근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미 조직되었거나 또는 신설 예정이다.

〈표 13〉 서울시, 울산시, 김해시 공공공간 관련 주무부서 구성

법적분류		서울	울산	김해
교통 시설	도로	도로교통본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교통기획과	건설교통국 도로과
	공원	푸른도시국	환경국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공간 시설	녹지	푸른도시국	환경국 녹지공원과	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하천	푸른도시국	환경국 환경정책과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방재 시설	하천	푸른도시국	환경국 환경정책과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기타	경관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도시국건축주택과 경관위원회구성 예정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지구 단위 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국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 도시과
통합 부서		디자인총괄본부 - 디자인기획담당 - 도시경관담당 - 도시디자인담당 균형발전추진본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도시국 건축주택과 내 도시디자인계 신설 예정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설립 배경 및 목적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시 이미지 향상이다. 기본 목표는 잘 읽히는 서울(비우는 디자인 서울), 효율적인 서울(통합디자인 서울), 행복한 서울(더불어 디자인하는 서울), 건강한 서울(지속가능한 디자인 서울)을 만드는 것이며, 주요 업무는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체제 정비, 서울의 도시경관 수준 향상이다. 조직은 1본부, 1부분부, 1기획관, 3담당관으로 이루어지며, 조직도 및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9〉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조직도(<http://design.seoul.go.kr>)

〈표 14〉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추진사업 및 내용

추진사업	사업내용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체제정비	1. 경관법 제정에 따른 추진계획 2.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추진
서울의 도시경관 수준 향상	1.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 추진 2. 한강시민공원 및 연변 건축물 조명개선 3.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계획

참조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007 주요업무계획

#### □ 울산시 도시국 건축주택과 산하 도시디자인팀

울산시는 2008년 1월 도시디자인팀 구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용 공고하고 2008년 2월 도시국 내 건축주택과 산하에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했다. 도시디자인팀에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울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분야별 세부경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간, 경관, 환경, 산업, 행정 등 5개 디자인 부분으로 나누어 도시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도시디자인 전담 부서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에코폴리스 울산을 완성할 방침이다. 도시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키는 공공디자인이 울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공해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업과 문화 디자인, 친환경이 공존하는 진정한 에코폴리스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디자인팀의 주요 업무는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운영, 도시경관디자인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수립 및 추진, 디자인 시책개발 및 가이드라인 개발 시행, 공공사업(시설물) 디자인 개발연구 및 감독, 디자인 시범사업 개발 및 시행 운영, 디자인 관련 자치법규 작성 및 정비, 디자인 실무 협의기구 운영, 디자인 관련 행정부서의 디자인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이다.

현재 도시디자인팀이 소속된 건축주택과 추진 사업 중 공공공간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강화, 우수 광고물 모음전,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 등이 있다.

#### □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김해시에서는 개발 위주의 성장을 자제하고, 고도 가야의 정체성을 되살리고 도시 환경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간다는 취지로 2000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다. 도시디자인과는 1과 3팀(13명)으로 구성된다.



〈그림 10〉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조직도(<http://gimhae.go.kr>)

주요 업무는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특색있는 거리 조성 및 도시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야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지정 등이며 부문별 사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5〉 김해시 도시디자인과 부문별 사업내용

건축미관	아름다운건축물가꾸기사업, 아름다운 주택모델 사업 건축미관 협의 조정 택지개발지구 경관(건축부분)계획 추진 문화마을 등 경사지붕 지원 사업 건축대상제 운영,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운영
거리미관	도시경관사업 계획수립 시범가로(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 정비사업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거리미관 정비사업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 도시시설의 디자인 (교량, 공원, 광장, 보도블록 등 도로시설물) 협의 조정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 공모전 이미지통합 프로그램(디자인) 개발
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 불법광고물 지도 및 단속, 간판 시범거리 조성

참조 : 김해시청 홈페이지 <http://gimhae.go.kr>

## ② 관련 조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중 공공공간과 관련된 것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경관조례, 옥외광고물 조례, 그리고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최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수립 중인 도시디자인조례가 있다.

각 지자체는 규제적 성격을 띠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옥외 광고물이나 가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공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례나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다수의 지자체가 수립·제정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조례의 경우 시민의 이용 환경 개선이라는 공공공간의 본

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디자인만을 개선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표 16〉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요약

제1조	목적	도시경관 종합적 체계적 개선 및 관리
제2조	용어의 정의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1.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관리 3.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 수준향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야간경관 기본계획	1. 야간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야간경관관리의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구축·개선 3. 야간경관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경관의 수준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계기관 협조	예산 및 행정 지원, 교육·홍보 등의 활동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위원회 1.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야간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3.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관리대상 광고물의 규격·색상 등 관리에 관한 자치구간의 형평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조안·권고 5.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자문 등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
제9조	회의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소집
제10조	소위원회	심의·의결
제11조	협조요청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협조 요청
제12조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 지급
제13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2006. 7. 19 공포시행

공공공간은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 시설물 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이므로 공공공간의 올바른 디자인을 위해서는 제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디자인조례의 경우 그 대상은 도로·교량·입체교차로와 같은 도시구조물, 가로등·도로명판·표지판·휴지통·자전거보판대 같은 가로시설물, 광고물 등 개별적인 시설물에만 머무르고 있다.

지자체별로 수립된 경관조례 및 도시디자인조례가 각 지역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는 위치한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색있는 도시경관 및 도시디자인이 형성되며, 도시가 가진 문제점 혹은 발전 방향 또한 도시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경관 및 디자인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은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다수 지자체의 경관조례 및 도시디자인조례는千篇일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③ 다양한 공공공간 개선사업 추진

본 연구에서는 인구 30만명 이상인 8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참고자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공공간 관련 사업 추진 실태를 조사하였다.<sup>8)</sup>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 가로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테마가로, 가로환경 업그레이드, 보행자 다리 건설,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자전거도로 건설, 보도 설치,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이에 속하며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 □ 수변공간 관련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대표되는 수변공간 관련 사업의 예로는 자연형 하천 복원, 하천생태 복원 및 수변 공원화 사업 등이 있다.

#### □ 공원조성 관련사업

울산대공원 같은 대규모 도시공원을 비롯하여 고밀도의 도심에서 공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학교운동장을 잔디로 조성하여 공원화하는 사업, 근린공원 조성, 1동 1마을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녹지확충 관련사업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녹도(Greenway)구축뿐만 아니라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담장 녹화 등 다양한 방법의 녹지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 기타

위에서 분류한 유형 외에도 담장없는 녹색마을 조성 사업, 야간경관 사업, 광고물 개선사업 등을 통해 공공공간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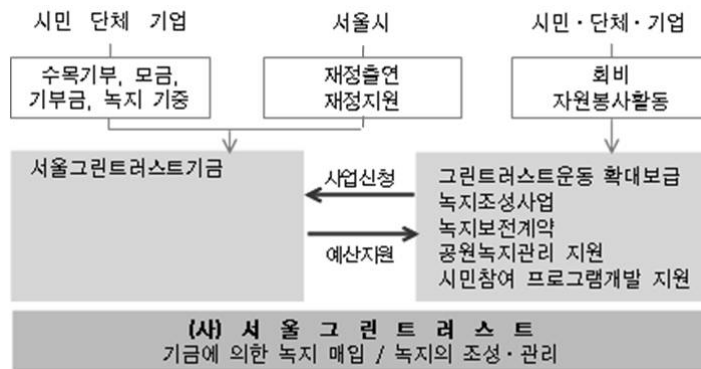
---

8) 부록2 참조

### (3) 민간단체

#### ① 민+관 파트너십 : 서울 그린트러스트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생명의숲 대표 3인, 서울시 대표 3인, 그리고 사회지도층, 법조계, NGO, 숲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등 18인이 참여하여 2003년 6월 24일에 창립되었다.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공유화 정신에 기반을 두고, Ground Trust 운동, 일본의 Local Trust 운동을 실천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국의 공원 Conservancy와 같은 시민참여 공원운영을 모델로 삼고 있다. 민간에서 이사장을 맡아 시민사회의 공익재단 성격을 띠며, 민간이 중심이 된 이사회에서 인사권을 가진다. 운영예산은 재단의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사업비는 민관매칭펀드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운영 원리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림 11〉 서울 그린트러스트 운영원리(서울 그린트러스트, 2006)

#### □ 목표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한 도시 생태계의 복원, 생활 주변 녹지 확대, 지역 녹색공동체의 복원이 목표이다.

#### □ 주요 활동

서울 그린트러스트의 주요 업무는 시민과 서울시의 파트너십을 통한 녹지조성 및 관리이다. 그린비전2020을 실천하기 위해 서울숲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우리동네숲을 조성하는 것 외에 서울시의 그린벨트를 지키고 용산기지 및 난지도 공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숲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시숲 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위하여 서울숲기금, 우리동네숲기금, 그린벨트기금 등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숲을 만들어 관리

한다. 실제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도시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

## ② 시민단체 : (사)건강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도시연대)

### □ 개요

도시연대는 1994년 '시민교통환경연구소'로 출발, 1997년 '건강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로 개칭하였다. 건강하고 열린 시민운동, 전문가 참여를 통한 대안중심적 시민운동, 구체적 생활현장 속에서 실천을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에 밀착한 현장 운동을 추구한다. 교수, 연구원, 건축·건설·도시 관련 전문가, 행정가, 사업가 등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며 사무국에서 사업 진행을 총괄한다.

### □ 목표

도시연대는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환경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문화와 역사를 보존, 창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민 누구나 걷기 쉽고 존중받는 도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문화가 있는 도시,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역사를 보존·재창조하는 도시, 다양한 계층이 한 장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 □ 주요 활동

업무의 범위는 연구에서부터 제도개선, 교육 및 홍보,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연구사업은 학문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을 띠며 보행환경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현황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행조례 제정, 보행환경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다. 교육과 홍보 또한 도시연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북촌 문화학교, 어린이 도심문화학교 등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업에서 시민 참여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하거나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놀이터 리모델링, 한평공원 등 주민 참여 사업을 직접 추진한다.

## ③ 사회적 기업 : 공공작업소 심심

### □ 개요

공공작업소 심심은 공공적인 것을 시민운동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논리로 접

근하자는 취지로 김병수 소장이 2002년에 설립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립한 정책에 따라 공공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상태의 지역을 입체적으로 놓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재를 기획하고 동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Public Studio'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공공작업소 심심'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명칭은 '심심한 듯 일하자,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 □ 목표

공공작업소 심심은 도농 통합시의 성격을 띠는 전주라는 특정 지역이 기반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지역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또한 지역의 쇠락한 도심지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과 문화적 공간구성에 대한 노력을 통해 공공공간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특유의 지방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도시공간, 장소성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작은 부분부터 전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시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진정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 주요 활동

공공작업소 심심이 추진하는 사업은 벽화나 설치물 등을 통하여 공간을 문화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에서부터 지역의 역사 수집, 축제 기획, 신문 발행, 지역공동체에 대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 2) 사업주체 유형별 공공공간 조성 과정 및 실태

### (1) 중앙정부 주도

#### ① 행정자치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 □ 개요

프로젝트명	: 서울시 종로구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사업 주체	: 행정자치부, 서울시
소요 예산	: 60억원(점포당 500만원 무상 지원)
사업 기간	: 2004.11 ~ 2005.12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범 위	: 종로1가 - 종로6가 (2.8km)

#### □ 추진 배경

옥외광고물은 그 자체가 도시의 한 특성을 이루며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자치부는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범거리 조성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 중심거리인 종로를 국제 수준의 시범거리로 만들기 위해 간판 정비를 시행하였다. ‘종로업그레이드 사업’은 보도포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 건물외관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간판정비 사업으로 축소되었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행정자치부에서 간판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지역발전정책국 내 생활공간개선과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관련 정책을 이전의 규제 및 관리 위주의 시스템에서 자율 시스템으로 전환, 법과 시행령 위주의 획일적 관리 체계에서 지역 특색 및 자율성을 고려한 지자체 조례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광고업자의 자율규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중점 육성하고 지원 및 평가를 통해 우수 성공 모델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간판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공무원, 전문가 합동으로 건물주·점포주와 면담하여 시범사업 참여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간판 교체 비용 500만원을 무상지원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규격화하였다. 먼저 주민(건축주, 점포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설명회를 통해 현재 간판이 가진 문제 의식을 공유했으며, 이후 수립된 광고물 설치 기준에 따라 광고물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종로 프로젝트는 사업 초반에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 조직 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일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무질서한 간판을 색상이나 글씨체를 순화시켜 디자인한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간판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상 지역을 종로 1가에서 6가까지로 전면 확대하여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비사업의 기본원칙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개수, 형태 등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보편성 확보,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수성 부각,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응성과 융통성을 가질 것 등이다. 또한 보행레벨인 1,2층은 다양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유도하였다.



〈그림 12〉 종로 간판정비사업 전후예시  
(www.seoul.go.kr)

## □ 성과 및 한계

상업시설에서 간판은 호객행위의 수단이므로 대부분의 간판은 눈에 잘 띄 수 있도록 크고, 자극적으로 설치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상업 건물 대부분은 간판으로 뒤덮여 있고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인 공공공간의 경관은 간판 풍경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판 정비 사업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간판 개선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일부 가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비 사업이 완료된 종로 거리에 대한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 원래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발전 사업으로 기획되었다가 단순한 간판 교체 사업에 머물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간판 정비 역시 관 주도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그림 13〉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 대상지 : 종로1가 - 종로6가(서울특별시, 2004)

② 문화관광부 가로환경 개선사업 : 광복로의 광복 프로젝트

## □ 개요

프로젝트명 : 광복도의 광복 - 아름답고 활기찬 광복로 가꾸기  
사업 주체 :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요 예산 : 86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56억원)  
위 치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일원  
범 위 : 광복로(길이 750m, 폭 15m) + PIFF광장(길이 240m, 폭 15m)

## □ 추진 배경

‘광복로의 광복’은 문화관광부, 부산광역시청, 중구청이 공동으로 광복로와 PIFF 광장 약 1km 구간의 거리를 개조하는 프로젝트이다. 하나의 장소로서 풍부한 잠재력이 있는 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주변의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재생할 것인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광복로 사업은 전국 최초로 문화관광부 지정 도로환경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 2005년 3월 출범하였다. 광복로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범가로추진위원회(전문가 9, 주민 3, 공무원 3)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였으며, 단체장의 요구나 지시에서 자유로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다.

국제 아이디어 공모(2005. 9)와 설계·제안서 공모(2005. 12)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비법정 주민투표로서 기존의 공청회 참여를 통한 수동적인 의사 전달 체계보다 한 단계 진보하여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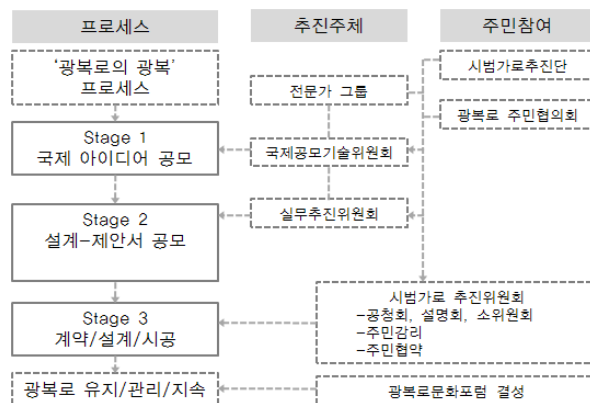


〈그림 14〉 가로환경개선사업 후  
광복로  
(<http://news.busanilbo.com>)

광복로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사업이 종료된 후의 유지 및 발전 단계를 중시하여 이를 위한 ‘광복로문화포럼’을 결성하였다는 데에 있다(2007. 1. 17). 광복로문화포럼에서는 상권활성화 정보기획, 대내외 협력 홍보사업, 가로경관관리, 광복로 지원협의회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을 총괄 진행한 우신구 교수(부산대)는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이 가지는 특성을 7개의 키워드로 정리한다. 이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공디자인, 민·관·학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적 공공 디자인 프로세스 지향, 보행자를 위한 ‘느림의 거리’를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하는 토탈 공공디자인, 부산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원도심을 재활성화시키는 공공디자인, 유지 및 관리를 중시하는 공공디자인으로 요약된다.



〈그림 15〉 광복로의 광복 프로젝트 사업진행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울산지역혁신아카데미, 2007)



〈그림 16〉 광복로의 광복 프로젝트 대상지 : 광복로 일원(강동진, 2005)

#### □ 성과 및 한계

부산시 중구청은 2008년 2월 25일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을 완료했다. 이 사업은 최근 새로운 민주적인 행정모델로 거론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고 이후 건물주가 바뀌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예가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광복로문화포럼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역시 필수적인데, 부산시 중구청은 정비된 간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일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에서 이면의 골목길들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다. 주요 도로 가로환경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시각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③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 속초시 SORAK MAPLE TOWN

#### □ 개요

프로젝트명 : 속초시 SORAK MAPLE TOWN  
 사업 주체 : 속초시  
 소요 예산 : 208억원 예정(국비 64억원, 지방비 98억원, 민간투자 46억원)  
 사업 기간 : 2006 - 2009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일원  
 범 위 : 중앙로(국민은행 ~ 청학사거리) : 연장 830m, 폭원 20m  
 해안도로변(갯배 연계) : 연장 520m, 폭원 10m  
 재래시장 일원 : 연장 640m, 폭원 8 - 10m

#### □ 추진 배경

정부는 우리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추진중이다. 여기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란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 있는 문화도시, 주거·교육·안전·교통 등의 기초생활 환경과 쾌적한 환경, 경관조성, 마지

막으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문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2006년부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공적 부문이 가장 손쉽게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공공공간이므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사업은 공공공간 개선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속초시는 기존 도심 외곽에 개발된 신도시의 상권 형성과 주변 인프라 재편으로 속초지역 상권의 중심지인 구도심은 심각한 수준의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상권이 가장 발달한 중앙로 일원을 대상으로 문화관광거리(SORAK MAPLE TOWN)를 조성함으로써 도시기반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2006년 건설교통부 선정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행정자치부 공모 '간판 시범거리 조성' 도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 상인,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SORAK MAPLE TOWN 조성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행정지원을 위해 '속초발전추진단 살고싶은 도시추진팀(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구성하였으며, 사업추진 지원조직으로 대학교수,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사업대상지의 상인 30명이 참여한 상인자율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추진 과정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 관련 시장공약 발표에 이어 상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기본구상안 설명회, 시민과 상인 대상의 설문조사, 사업기본구상계획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발주, 상인 대상 선진 사례 지역 견학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업지구 교통계획 수립 후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이루어졌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속초시 SORAK MAPLE TOWN은 단순한 간판정비 사업이 아니라 교통 및 동선 계획, 조경계획, 포장계획, 건물외관 정비계획, 간판 정비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전기·통신계획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 성격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간판정비 시범사업,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시설 설치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속초시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림 17〉 SORAK MAPLE TOWN 개발테마구상도(www.city.go.kr)



〈그림 18〉 SORAK MAPLE TOWN 만선의 광장 조성 전/후(www.city.go.kr)

## (2) 지방자치단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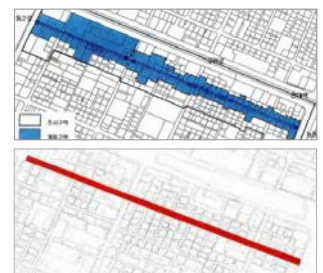
### ① 기성시가지 환경정비형 개선사업 : 서울 노유거리

#### □ 개요

프로젝트명 :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 시범사업 활기찬 노유거리가꾸기  
 사업 주체 : 서울시 광진구청  
 소요 예산 : 18억원  
 사업 기간 : 2000 - 2002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노유1동 1-2번지 일대 “노유로데오거리”  
 범 위 : 노유거리 길이 610m, 도로폭원 8m(계획면적 30,300㎡)

#### □ 추진 배경

서울시는 시가지 여건상 신축 위주의 도시설계로서는 기성시가지 환경개



〈그림 19〉 노유거리가꾸기  
 계획구역 및 위치도  
 (서울특별시, 2001)

선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정비수법 연구를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1996년 주민참여형 상업지 정비수법 개발, 1998년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기법 연구, 1999년 개축·보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이어 2000년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기도 하였지만 도시설계에 주민 참여 과정의 활성화에 큰 의미를 두고 진행되었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주민참여형 도시설계로 이루어진 노유거리가꾸기 사업의 첫 단계로 상인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통된 통로로서 노유거리가꾸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상인들과 관련 행정, 전문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도시설계기획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도시설계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광진구청 도시관리국 공무원, 도시연대, 노유거리가꾸기 추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설계 구상을 논의하였다. 도시설계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체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이라는 특성에 비춰볼 때 노유거리가꾸기에서 주민 참여는 필수 요건이었다. 노유거리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의사소통구조를 단일화하고 32번의 공식회의와 다수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노유거리가꾸기를 위한 주민 약속을 제정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인들이 사업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유거리의 환경관리 규범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집 앞 차 안세우기, 내집 앞 깨끗이하기 등 걷기 좋은 거리 가꾸기에 관련된 사항과 간판 변경, 건물외관 개선시 환경개선 지침에 따를 것 등이 주민 약속의 주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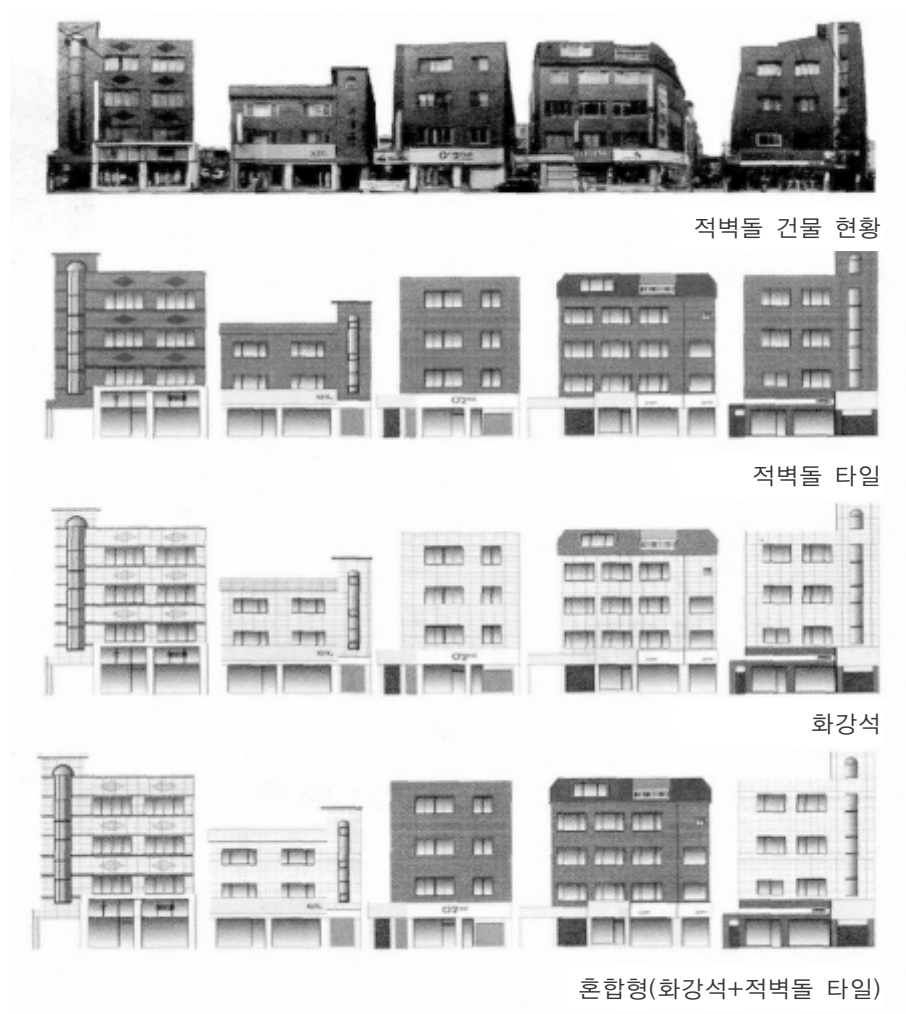
프로세스	행정	전문가	주민참여
시행 여건 평가	서울시 행정총괄조정 여건평가 업무지원	지역특성 파악	주민협의체활동파악
	자치구 공공사업계획 파악 예산지원계획 주민대표체구성지원	건축여건 검토	주민대표체 구성
	동사무소 공공사업계획 파악 예산지원계획 주민대표체구성지원		
	환경개선 기본방향 도출		
기획위원회 조직	예산지원 및 제도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의 주민참여유도 기획위원회 지원	도시설계:기획·조정 조경:가로환경계획안 건축:건축물의관 시민단체:주민대표체 구성 및 활동 지원	주민대표 추진상황전달 의견수렴 전문가 및 행정기관 대화통로 역할 수행
설계 대상 결정	공공부서 설계대상 제안	설계대상 조사분석	환경개선을 위한 설계대상 제안
	타당성 검토	공공사업연계 이용방식개선 상점개보수와 연계	타당성 검토
	기획위원회 협의	설계대상 결정	주민협의(설명회)
계획 공공부서 민간부서 결정	관련부서·기관 협의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지원방안 검토	주민약속안	주민약속안 검토
	지원방안 검토	통합가로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수렴(설명회)
시행계획	시행계획수립	연차별시행방안 마련	공사일정 및 역할
사후 유지관리	행·재정적 지원방안	주민협의체지원자문	자율적환경개선 시행

〈그림 21〉 노유거리가꾸기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서울특별시, 2001)

〈그림 20〉 사업 전후 노유거리  
(윤혁경, 2007)

#### □ 성과 및 한계

광진구 노유거리가꾸기는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이 제안한 일종의 마을만들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민이 발의한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획하고 광진구청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였기에 주민 참여가 자발적이 아닌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주민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다는 성과를 얻은 반면, 보다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거리공간을 가꾸는 문화적 차원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림 22〉 노유거리가꾸기 건축물 외관 개선을 위해 제시된 시뮬레이션(서울특별시, 2001)

## ② 수변환경 개선사업 : 울산 태화강 마스터플랜

### □ 개요

프로젝트명	: 태화강 마스터플랜
사업 주체	: 울산광역시
소요 예산	: 2,374억원
사업 기간	: 2005 - 2014(단기사업 : 2005-2009, 장기사업 : 2010-2014)
위 치	: 울산시 태화강(발원지~울산만 )
범 위	: 태화강 전역(총연장 43.1km)

### □ 추진 배경

울산시는 1970년대 공업단지 건설에 따른 고도성장과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급속한 산업발전 과정 속에서 태화강은 빠른 속도로 오염되었고 하천의 자정능력은 초과되었다. 이에 울산시는 태화강 생태복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환경보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화강 마스터플랜이다. 마스터플랜의 내용적 범위는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수질 및 수량 확보 계획, 생태복원 계획, 공간조경 계획 등을 포함한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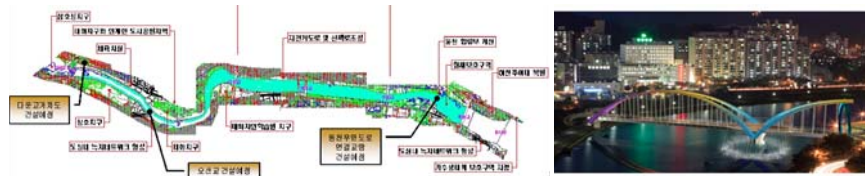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통괄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울산시 환경국 환경정책과이며, 태화강관리단이 설립되어 태화강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태화강 마스터플랜에는 주제별로 40여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그 특성에 따라 환경정책과, 건설도로과, 녹지공원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체육지원과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태화강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사항 중 하나는 기업 참여의 활성화이다. 울산시는 ‘1사 1하천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 87개 구간에 136개 단체(단체 50, 업체 86)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일정 구간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을 기업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기업 또한 홍보 효과를 얻게 하였다. 이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태화강변 초화류 및 꽃나무 식재, 잡초 제거 및 쓰레기 제거 등이다. 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태화강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해 2003년 12월 시민환경감시대를 결성하였다. 일반시민, 환경단체,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3-4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하천의 청결 상태 등을 감시하고 있다.

태화강 마스터플랜에서는 이렇듯 관리주체별 역할 분담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태화강 마스터플랜 기본구상은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등 4개 분야로 수립되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태화강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는 하천수질 개선, 하천수량 확보, 지천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둘째, 생태적으로 건강한 태화강을 위한 사업으로는 수변생태계 회복사업,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생태인프라 구축사업, 오산십리대숲 연결,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 포함된다. 셋째, 친숙하고 가까운 태화강을 위한 사업으로는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수변무대 조성사업, 보행자 접근로 개선사업, 자전거 순환도로망 조성사업, 교량경관 및 리모델링 사업, 물환경관 건립 사업 등 시민들이 태화강 또는 강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미래가 있는 태화강 조성을 위해 태화강 역사문화 탐방로 발굴, 태화루 역사복원 조사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3〉 태화강 국가하천구간 관련 계획(울산광역시, 2005) 및 보행자다리인 십대밭교  
최종안(<http://taehwagang.ulsan.go.kr>)

## □ 성과 및 한계

울산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태화강 마스터플랜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통합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40여개가 넘는 사업들이 각기 다른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사업들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울산에서는 SK기업이 울산대공원 조성에 1,000억원을 기부하는 등 공공공간 조성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태화강 마스터플랜 사업의 일환으로 중·남구 지역의 태화강 둔치를 연결하는 십리대밭교의 경우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태화강 인도교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 예산 49억원 중 38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수익자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조성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십리대밭교는 기업들이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공공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한 좋은 사례이다.

### ③ 역사문화 거점화 사업 : 김해 가야의 거리

#### □ 개요

프로젝트명	: 김해 가야의 거리
사업 주체	: 김해시청
사업비	: 151억원(연지교~봉황교:62억원, 봉황교~전하교:89억원)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변
범위	: 연지교~봉황교(569m), 봉황교~전하교(720m)

#### □ 추진 배경

김해시는 1999년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계획(한국건축문화연구소)을 수립하고 역사적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 특성이 강조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역사경관의 정비 또는 조성시 그 대상은 점적 또는 면적 특성을 가진 역사유적과 도시의 주요 거점공간을 연결하는 선적 요소인 가로이다. 해반천변을 따라 형성된 가로를 역사적인 테마와 연관지어 형성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가야의 거리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가야사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가야사 복원 정비사업은 김해시 문화재과와 관광과에서 추진하였으며, 유적 복원 중심의 1단계 사업(문화재과 주관)이 완료되고, 이를 도시적 차원에서 그린 네트워크로 조성하는 2단계 사업(문화재과와 관광과 주관)이 진행 중이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김해시는 해반천을 중심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이 마주 보고 있으며, 신도심의 등장에 따라 구도심은 쇠퇴하였다. 김해시의 경우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써 구도심이 담고 있는 역사환경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역사와 관습, 문화가 도시경관에 정체성과 지역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가야의 거리 프로젝트는 북쪽으로부터 수로왕비릉,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사회교육관, 대성동고분군 휴게소, 노출전시관, 대성동 고분전시관, 수로왕릉, 한옥체험관, 봉황대, 패총 등 도시에 점 또는 면적으로 흩어져 있는 문화 유적 및 시설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 □ 성과 및 한계

현재 전국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신도심 개발 과정에서 구도심이 쇠퇴하고 지역 상권이 몰락하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의 역사유적 정비사업은 지방 중소도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

다. 가야의 거리 사업을 비롯한 역사문화 복원사업을 통하여 쇠락한 구도심이 점차로 공원과 수변공간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로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녹지축은 보행 체계와 관련을 가지면서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유적정비를 통한 가로, 도시경관 등 도시기반시설의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광이나 체험 환경과 생활환경이 동시에 개선되었다.

가야의 거리는 여러 단계에 나누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별구간의 경관은 조화와 통일성이 부족하다. 즉, 구역단위 경관설계방식으로 통일적인 역사경관을 창출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관요소간의 상호관계나 전체 경관과의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4〉 김해 가야의 거리 배치도(월간 건축문화, 2006.4)



〈그림 25〉 김해 가야의 거리 조성 후 모습(이호열, 2007)

### (3) 민간단체

#### ① 민+관 파트너십 : 서울 그린트러스트 동네숲<sup>9)</sup>

##### □ 개요

프로젝트명 : 석관동 우리동네숲 1호  
 사업 주체 : 서울 그린트러스트(SGT)  
 사업 기간 : 2007.4 - 2007.9  
 재정 지원 : 1+1 기금, 민관매칭펀드  
 설계 자 : 오브제플랜(objectplan)  
 위 치 : 성북구 석관2동 334번지 일대  
 면 적 : 497㎡

##### □ 추진 배경

석관동 자투리땅 공원화 사업은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주관하는 ‘우리동네숲’ 운동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다. 서울시에서는 그간 일방적으로 자투리땅을 설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함께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하여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참여의 방식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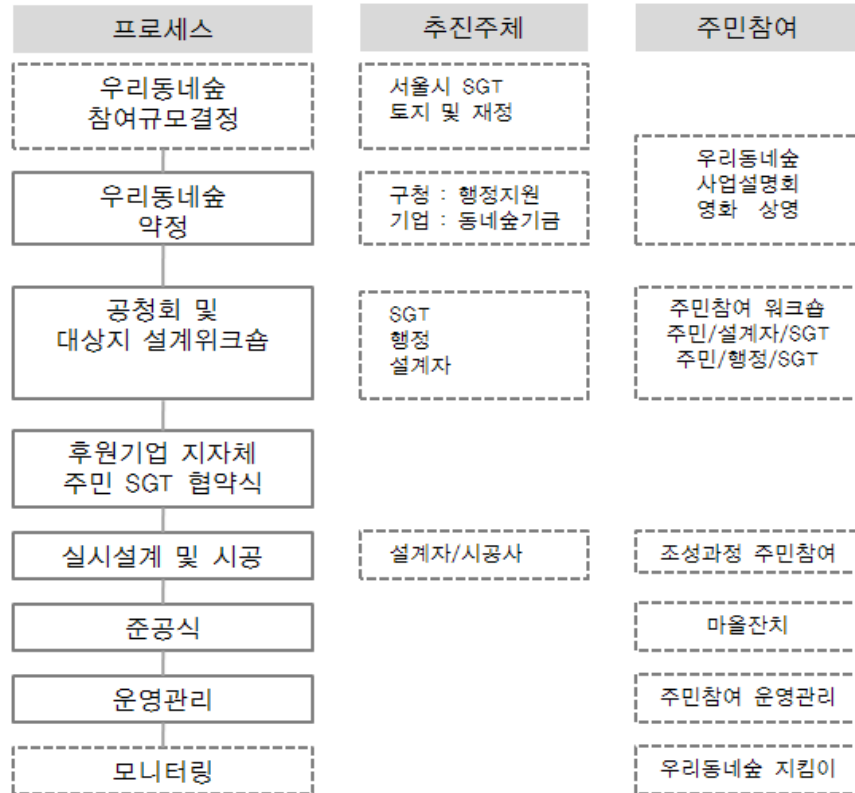
##### □ 추진 조직 및 과정

우리동네숲 사업 대상지 선정은 서울시 조경과를 통하여 25개 구청으로부터 신청 받은 후, 현장조사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성북구 석관동을 포함한 최종 6개소를 선정하였다. 사업은 주민설명회(인지), 사전조사 및 기본 컨셉트 구상(구상), 주민워크숍 I(소통), 기본설계(제안), 주민워크숍 II(통합), 최종 설계안 작성(결정), 시공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조성 후에도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숲 지킴이’를 조직하여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우리동네숲 사업은 행정, 기업, 주민,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는데, 각 참여 주체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관 중 서울시 조경과에서는 대상지의 모집과 선정과정 및 예산을 지원했으며, 토지 제공, 주민 접촉, 주민조직에 협력, 나무심기 행사 지원, 폐기물 처리 등 각종 행정 지원은 관할 구청에서 담당하였다. 기업은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설계 과정, 시공 및 사후 관리에 참여하였다. 주민 참여 역시 컨셉트 과정에서부터 설계, 공사,

9) 서울 그린트러스트, 2007, 우리동네숲 리포트 참조



〈그림 26〉 우리동네숲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나무심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학교수 및 대학원생, 조정 전문회사 등 전문가 집단은 설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 □ 성과 및 한계

우리동네숲 위원회 박미호 박사는 도시숲 주민 참여의 의미를 “주민자치의 실현, 의견 공유에 의한 합의 형성, 동네숲 가꾸기 과정을 통한 주민간 교류 기회 확대, 워크숍을 통한 지혜의 총집합, 주민과 행정과의 교류에 의한 개방된 행정”으로 요약한다. 도시는 여러 시대, 여러 방식의 개발 형태들이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유기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분적인 소유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자투리땅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동네숲 운동은 전면적인 개발이 가능하던 시대가 끝난 시점에서 도시 내에서 점적인 부분들의 개선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추진 과정에서 다영역간 파트너십(Multi-Sectoral Partnership)을 통해 행정, 기업, 전문가, 주민의 참여와 역

할분담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추진 주체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각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프로세스 자체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석관동 우리동네숲 1호 조성 전/후(서울 그린트러스트, 2008)

## ② 시민단체 주도 : 도시연대 한평공원

### □ 개요

프로젝트명 :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성서한평공원  
 사업 주체 : 도시연대, 마포두레생협, 서울대학교 도시건축보존계획연구실  
 사업 기간 : 2005 - 2006  
 설계자 : 박소현, 김현수, 안현찬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성미산마을  
 범위 : 성서초등학교 후문 옆 공터

### □ 추진 배경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나 진정한 주민참여보다는 주민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다. 도시연대가 주도하는 한평공원 만들기는 주민들의 행위가 모아지면서 동네의 비전과 실천과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향한다.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 만들기는 기존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달리,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가치와 정보, 의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성서한평공원은 서울대학교 도시건축보존계획 연구실, 도시연대, 그리고 성미산 학교 교사하면서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발족으로 시작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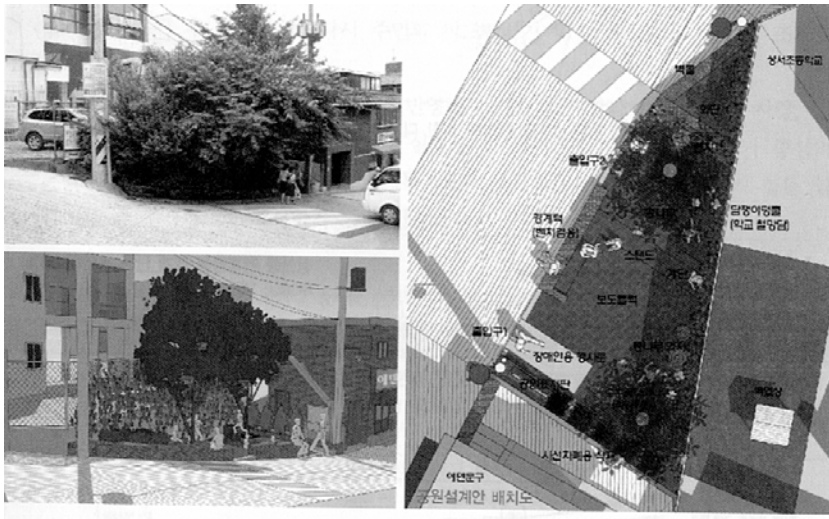
이 적극적인 참여주체가 되어 만드는 한평공원을 시발점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마스터플랜 작성을 프로젝트의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였다. 프로젝트는 주민에게 프로젝트를 알리는 주민 홍보로부터 시작하여 워크숍을 통한 주민의 디자인 참여, 결과정리 및 피드백, 그리고 실시설계 순서로 진행되었다.

프로세스	추진주체	주민참여	
사전 조사	마을축제 방문,현장조사,설문조사 생활가로/골목길/자투리땅으로 나누어 '성미산마을가꾸기' 작업진행	서울대학교 도시건축 보존계획연구실	설문조사 의견수렴
시작 하기	전문가그룹 발족 목표 설정, 전체적인 계획 수립 대상지 물색 및 확정	전문가그룹	
주민 홍보	홍보아이템 개발, 주민인터뷰 성서초등학교 운영위원 및 주민 만남, 의견교환 홍보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주민인터뷰
디자인 참여	시공전문가와 대상지 답사 성서초등학교에 디자인참여 프로그램제안 디자인워크샵:성서초등학교 학생		디자인참여 (디자인 워크샵)
결과 정리 피드백	워크샵 결과정리 및 분석		
실시 설계	Design 회의 주민대표와 설계안에 대한 피드백		주민대표 설계안 피드백
주민 홍보	Design 회의 최종설계안과 공사계획을 담은 벽 보 동네 곳곳에 부착		최종설계안 인지
실행	방학기간동안 큰 공사 진행 개학 후 작은 공사 진행 성서한평공원 완공, 개장식		
통화로 개선 사업	성서한평공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안 및 공사계획 인지

〈그림 28〉 성서한평공원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성서한평공원 사업을 진행한 주체는 서울대학교 도시건축보존계획연구실, 도시연대, 성서초등학교이다. 2005년 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협동과정에 개설되었던 단지계획특론 세미나에서는 주민참여형 마을설계수법을 다루었으며, 성미산마을을 대상으로 생활가로, 골목길, 자투리땅 등 3개의 팀으로 나누어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과 소통하였으며, 이후 실제 프로젝트로 실현되었다.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1990년대부터 진행해 온 도시연대는 주민들과의 인터뷰, 성서초등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대상지 환경개선 등의 역할을 진행하였다. 성서초등학교는 공원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학부모 모임과의 만남 주선, 한평공원 대상지 소유주민의 동의형성, 어린이 참여프로그램 협조, 한평공원 개장식 프로그램 진행 등에 협조했다. 이들 세 개 진행주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성서한평공원 사업은 관주도로 단순하게 벤치나 나무를 심는 도시녹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생활환경 개선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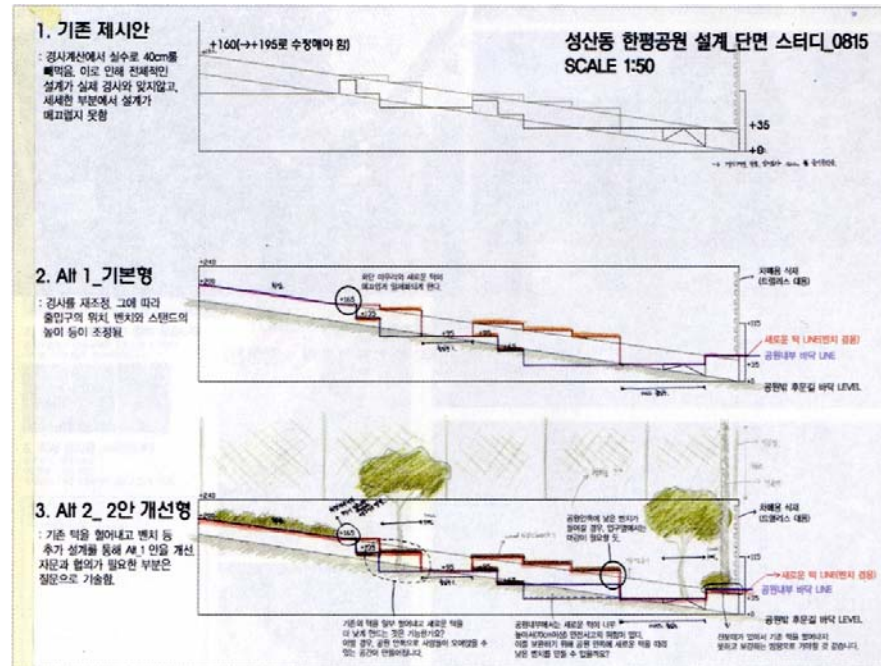


〈그림 29〉 피드백 및 최종 홍보를 위한 도면과 이미지(현황/개선안, 배치도)  
(검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6)

### □ 성과 및 한계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주민참여라는 '방법론'에 매몰되었다. 성서한평공원 사업을 총괄 진행한 서울대학교 박소현 교수는 성미산 마을에서 진행된 한평공원만들기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자평한다. 한평공원은 바로 옆 주차공간을 잔디블럭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으며, 행정과 주민들이 손을 맞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평공원을 통해서 동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신 삶의 영역으로 흡수하여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림 30〉 성서한평공원 단면스터디(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6)

### ③ 사회적 기업 주도 : 공공작업소 심심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 □ 개요

프로젝트명 : 남부시장 하늘정원 만들기  
 사업 주체 : 공공작업소 심심,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  
 소요 예산 : 6000만원(토지공사 초록사회만들기위원회 사회공헌사업기금 후원)  
 사업 기간 : 2007.4 - 2007.11  
 위 치 : 전주 남부시장  
 범 위 : 남부시장 2층 옥상 유휴공간 약 660㎡

#### □ 추진 배경

전주 남부시장은 조선 중기부터 시작하여 근세 도시변화 과정에서 중심 유통시장으로 성장했으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신시가지에 들어선 백화점, 대형 유통체인점 등에 고유 기능을 빼앗긴 채 침체기를 맞고 있다.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의 어려움, 기존 상권 붕괴위험, 도시기반시설확충의 어려움 등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여건 속에 상가 기능의 악화와 소상공인 몰락 방지 대책으로 콤팩트한 개발유형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협력 사업을 통해 낙후된 공간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 및 청소년 교육과 연계를 모색하였다.

#### □ 추진 조직 및 과정

하늘공원 조성사업에는 사업 주체인 공공작업소 심심과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뿐만 아니라 상인 협의체인 남부시장 번영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업무 및 사업 프로세스는 그림 33과 같다. 사업 추진은 대상지 조사, 참여 전문가 구성 및 협의, 상가번영회 간담회, 마스터플랜 및 설계, 상가주민간담회, 시설물 디자인, 시설물 제작, 상가 간담회, 시설물 설치 및 정원 시공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그림 31〉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조성 후 모습  
© 공공작업소 심심

〈표 17〉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사업 추진 조직 및 주요 업무

기관 및 단체	주요 업무
공공작업소 심심	연구작업 총괄, 주민과 네트워크 실행 주체 간 매개역할 연구팀과 프로그램팀 시스템 운영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	청소년 교육활동, 언론 홍보, 참여프로그램 기획 예산집행 및 관리, 사업계획 관리
남부시장번영회	각종 조사사업 협력, 공연장, 전시장 운영에 관한 협력 주민 단결과 협력을 위한 논의구조 확보 교육, 문화프로그램, 건축행위에 관한 참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각종 데이터 분석, 남부시장 공간분석

#### □ 기획 및 계획의 특성

하늘정원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계획되고 시공과 함께 종료된 것이 아니라 상인의 참여, 문화예술활동, 청소년 교육과 함께 진행되고 지속되는 사업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공간 분석 및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낙후 및 방치된 공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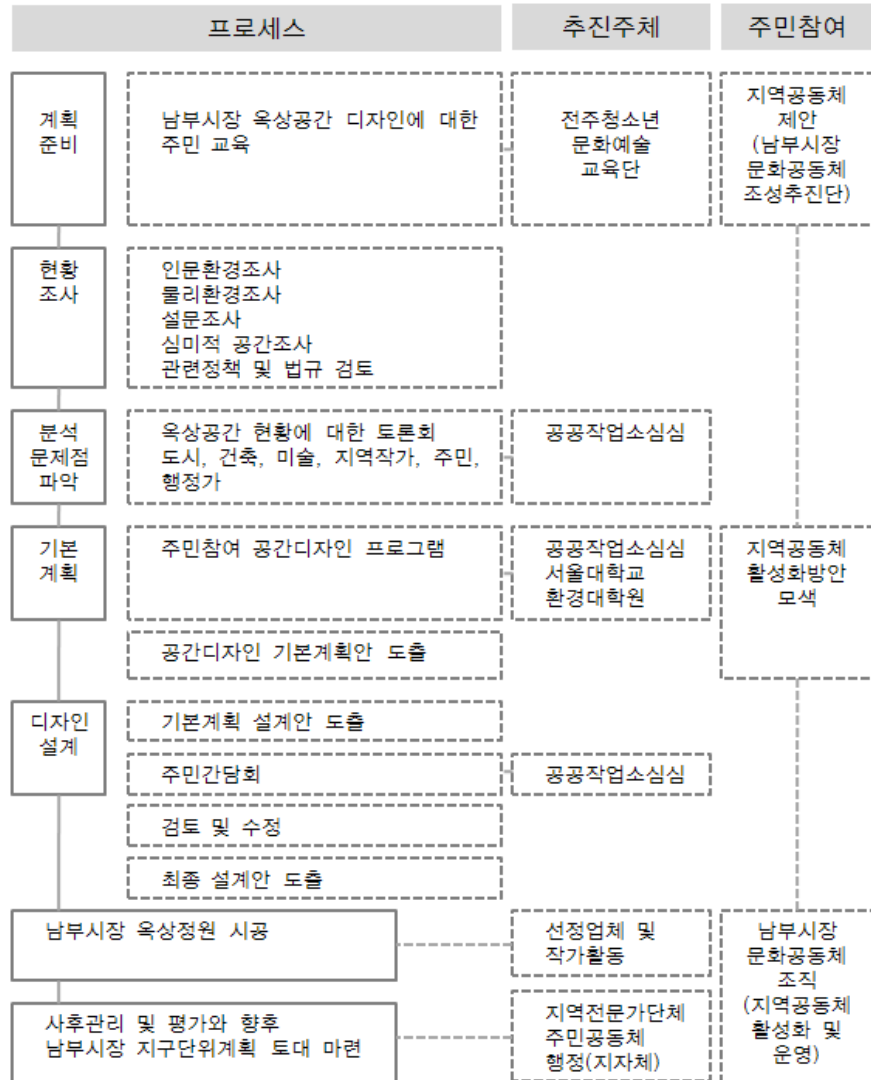
#### □ 성과 및 한계

하늘정원은 교육(Education)과 공원(Park), 시장(Market)을 조합한 E-Parket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하늘정원 조성은 재래시장의 기능변화를 통해 전면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문제를 문화적 감수성으로 극복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



〈그림 32〉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계획 평면도  
(공공작업소 심심, 2007)

다. 또한 조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시장이란 일상적 공간을 교육으로 확장시켰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지역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기계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적 교육 및 실행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림 33〉 전주 남부시장 하늘정원 사업 프로세스 및 참여주체

〈표 18〉 사업주체 유형별 공공공간 조성과정 및 실태 요약

조성주체	중앙정부주도				지자체주도			민간주도		
	행정부 기관 정비사업	문광부 기획환경개선	간교부 살고싶은도시	기성시기지 환경정비	수변환경 개선	역사문화 거점화	민+관 파트너십	시민단체 (도시연대)	사회적기업 공공작업소	심신
사업	종로구 아를다운 간판 시범거리	부산 광복로의 광복	속초시 SORAK 설악 MAPLE TOWN	광진구 노유거리 가구기	울산 태화강 마스터플랜	김해 가야의 거리	서관동 우리동네숲	성서 한평공원	전주 남북시장 하늘정원	
사업유형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	수변공간 개선	가로환경 개선	공원화	공원화	공원화	
	선	선	선	선	선	선	면	면	면	
사업내용	간판정비	간판정비 보도포장 시설물정비 가로수식재	간판정비 보도포장 시설물정비 녹지체계	리모델링 간판정비 보도포장 시설물정비 가로수식재	생태복원 친수공간 보행교	역사복원 보도포장 시설물정비 녹지체계	수공원조성	수공원조성	옥상공간의 수공원화	
주민참여	홍보설명회	추진위원회 주민투표 문화포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도시설계기획위원회 주민협의 주민약속	선호도조사 1사하천살리기 시민환경감시대		사업설명회 주민워크숍 조성참여 마을잔치 운영관리 우리동네숲 자립이	설문조사 주민인터뷰 디자인참여 설계피드백 설계안인지	사업제안 지역공동체 활성화방안 모색 교육문화활동 참여	

# 3

## 소결 : 공공공간 조성 현황과 문제점

### 1) 법제도적 문제점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이용, 관리하는 데 관련된 법과 제도는 복잡하며 다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동일한 공공공간을 다루는 관련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방해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중복되며 비효율적인 공공공간의 운영 제도는 통합된 도시공간과 경관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특히 도시의 공공공간을 조성할 때 검토해야 할 법규의 종류는 매우 많고 복잡하다. 또한 이러한 법규들을 상호 참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통합적이고 다양한 공공공간의 조성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공공공간 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기본 방향이나 개념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도 공공공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 위주의 시설 지정 등의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어, 전체 도시 차원에서 공공공간을 다루거나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연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부터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과 녹지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타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공공공간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공적영역에 해당하는 공공공간의 조성에 비해 사유 재산인 건축물은 그 조성절차나 변경이 복잡하다. 그러나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건축주나 사업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사유지의 공개공간은 많은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개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공간 확보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2) 조성방식의 문제점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과 추진 사업,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1) 관주도의 획일적·일방적인 공급

서울 그린트러스트, 도시연대, 공공작업소 심심을 비롯하여 희망제작소 등

의 민간단체들이 공공공간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공간 개선은 중앙정부 시범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 결과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가로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있으며, 생활 개선이 아닌 간판 및 시설물 정비 등 외관 개선에만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소규모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 주도 사업은 지역 특색이나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관조례, 도시디자인 조례 등 관련조례를 대다수 지자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 또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급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이므로 현재 관주도의 단계적 사업 방식으로는 유지나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공공간 개선사업은 그 사업 발의 단계에서부터 계획 및 조성, 사후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준다.<sup>10)</sup>

## (2) 관리와 운영 방식의 체계화 필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도로, 공원녹지,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은 그 분류에 따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그에 속하는 시설물 또한 그 성격에 따라 주무부서가 모두 분산되어 있다. 최근 공공공간 관련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예로 들면 신호등, 가로등, 배전반, 소화전, 교통표지판, 가로수, 휴지통, 장애인보호시설 등의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달라 통합 경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가로환경 관리를 위한 가로환경개선추진단, 디자인총괄본부, 균형발전본부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공공사업 시행시 발주주체 일원화 같은 선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주민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대다수의 사업에 주민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주민 참여 방식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관주도 사업에서 주민 참여는 사업 설명회 개최, 선호도 조사,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발의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경우 행정 및 전문가와의 업무분담 및 의사소통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10) 공공작업소 심심의 김병수 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공간은 ‘조성’ 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행정·주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진행되므로 각 주체의 역할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경관문화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규제적 제도를 자율적 참여를 통한 문화적 장소 만들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sup>11)</sup>

### (3) 통합적 계획의 부족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공모, 신청서접수,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선정, 사업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자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통합적인 체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공공공간 개선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심재개발, 도시설계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도시 공공공간의 양적 확대를 시도해 왔으나, 이 역시 특정 지구에 국한된 점적인 개선에 머무르거나 주민의 요구와 괴리된 정치적 사업으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최근 공간환경의 질 향상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공공공간 개선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고밀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들 소규모 공간들을 연계하여 공공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시범사업과 민간 주도의 소규모 공간 확보를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이 요구된다.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계획을 통해 보행계획,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도시 차원에서 시설물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11) 위와 같은 의도 하에 문화관광부에서는 『주민과 함께 도시경관 만들기 : 규제에서 참여로 그리고 문화로(연구책임 및 총괄 : 김도년·김명환·김영배)』를 발간하였다.

# IV.

##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2.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 a u r i

#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1 공공공간 관련 국내외 사례

### 1) 다양하고 확장된 범위의 공공공간 사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다양해진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대 도시에는 다양한 공공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이 공공공간을 소유하고 조성,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점차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방재시설로 간주되던 수변공간을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복합적인 용도가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공공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다양하게 조성된 공공공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뉴욕시 Sony Plaza, 590 Atrium, Trump Tower



〈그림 34〉 Sony Plaza, 590 Atrium, Trump Tower의 위치와 배치  
(뉴욕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 참조 [www.nyc.gov/html/dcp/](http://www.nyc.gov/html/dcp/))

〈표 19〉 Sony Plaza, 590 Atrium, Trump Tower의 개요

Sony Pla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뉴욕시 Madison Avenue 서쪽, 55번가와 56번가 사이</li> <li>○ 소유주 : Sony Corp of America</li> <li>○ 건축설계 : Johnson / Burgee</li> <li>○ 공간설계 : Gwathmey Siegel Associates</li> <li>○ 연도 : 건축물 완공 1984년 / Sony Plaza 1992년</li> <li>○ 면적 : 15940sf (아케이드 5,542sf, 유개보행공간 10,398sf)</li> </ul>
590 Atr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뉴욕시 Madison Avenue 서쪽, 56번가와 57번가 사이</li> <li>○ 소유주 : 590 Madison Avenue Associates, LP</li> <li>○ 건축설계 : Barnes</li> <li>○ 공간설계 : Barnes / Zion &amp; Breen / Stern</li> <li>○ 연도 : 건축물 완공 1982년 / 리모델링 1995년</li> <li>○ 면적 : 20102sf (아케이드 1,851sf, 블럭간 아케이드 4,669sf, 유개보행공간 8,261sf, 좌석공간 3,500sf, urban plaza 1,821sf)</li> </ul>
Trump T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뉴욕시 Madison Avenue 서쪽, 56번가와 57번가 사이</li> <li>○ 소유주 : Donald Trump</li> <li>○ 설계 : Swanke / Hayden / Connell</li> <li>○ 연도 : 건축물 완공 1983년</li> <li>○ 면적 : 15528sf (유개보행공간 7,922sf, 옥외 테라스 7,006sf, 연결 통로 약 600sf)</li> </ul>

## ① SONY PLAZA

Sony Plaza는 본래의 AT&T 건축물을 ‘ㄷ’자로 감싸고 있는 공간으로 55번가와 56번가에 면해 있는 남북의 아케이드와 두 공간을 잇는 유개보행자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4년 Philip Johnson과 John Burgee에 의해 AT&T사의 사옥으로 설계되었을 당시, 이 건축물은 공개공지에 의한 용적률 보너스를 받아 그전까지 미드타운에서 가장 높았던 길 건너의 IBM보다 약 200피트 더 높은 약 648피트로 미드타운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그림 35〉 Sony Plaza 아케이드와 유개보행공간의 내부전경  
 (<http://www.nyc.gov/html/dcp/html/priv/550mad.shtml>)

1992년 AT&T 건축물의 주인이 Sony로 변경되면서 Sony는 외부 아케이드를 포함한 건물의 인테리어를 재단장하였다. 외부공간으로 설계되었던 아케이드의 대부분을 상점으로 바꾸는 대신 55번가와 56번가를 잇는 건물 뒤편 공간에 3층 높이의 유리천장을 설치하여 유개보행로를 만든 것이다. 이 통로는 길 건너의 590 Atrium을 통해 Trump Tower까지 이어진다. Sony Plaza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개방되어 있고 벤치와 같은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쉬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밖에도 Sony Wonder Technology Lab과 카페, 다양한 상점을 유치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뉴욕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관광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 ② 590 ATRIUM

IBM 스페이스로 더 널리 알려진 590 Atrium은 1983년 IBM 사옥과 더불어 조성되었다. 3층 높이의 시원한 유리 아트트리움으로 디자인된 이 공간은 처음 조성될 때부터 상가와 같은 상업적 용도를 배제하고, 대나무, 이동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는 등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조성하여 모든 뉴욕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994년 Minskoff사가 이 건축물을 사들이면서 기존의 식재와 의자를 바꾸는 등 IBM 스페이스를 미술품의 전시공간으로 기획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만을 변경, 현재는 기존의 식재와 휴식공간, 미술품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남동쪽의 Urban Plaza, Seating Area, Covered Pedestrian Space, 그리고 Through Block Arcade 등 다양한 공간들로 구성된 590 Atrium은 민간소유의 사적 영역이지만 주변의 다른 유개공간과는 달리 기업의 상업적인 용도가 배제된 공공공간으로서 의미가 깊다.



〈그림 36〉 590 Atrium 유개보행공간의 내부전경  
(<http://www.nyc.gov/html/dcp/html/priv/590mad.shtml>)

590 Atrium은 서쪽 Trump Tower와 바로 인접해 있어 뉴욕시에서는 유일하게 보행로로 연계된 공개공지이며, 남쪽 Sony Plaza에서부터 Trump Tower를 거쳐 Niketown까지 공개공지를 이용한 보행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③ TRUMP TOWER

앞서 설명했던 590 Atrium과 5번가 사이에 위치한 Trump Tower내의 공간은 공개공지에 의한 유개보행로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이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

Trump Tower의 공공공간은 여러 층에 걸쳐 각기 다른 세 개의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가장 면적이 큰 지상층의 유개보행로는 서쪽의 5번가와 동쪽의 590 매디슨 아트리움을 잇는 공간으로 지하의 공공공간과도 연결되며 상점과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다. 그러나 호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과 더불어 고급 상점과 레스토랑이 들어선 지하와 지상층의 공간은 고급 쇼핑몰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4층과 5층에 있는 테라스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녹지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계획되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거의 이용이 되지 않는다.

590 Atrium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유개 보행공간이지만 그 용도와 공간디자인에 따라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 공공공간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다르다. 590 Atrium은 일반 시민을 위한 만남과 휴식, 문화의 장으로서 열린 성격이 강한 반면, Trump Tower의 공간은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장소라기보다는 특정한 계층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림 37〉 Trump Tower의 지상층과 지하층 유개보행공간의 내부전경  
(뉴욕시 도시계획국 <http://www.nyc.gov/html/dcp/html/priv/7255th.shtml>)

도심내 공공공간 확보를 위해 뉴욕시에서는 공개공지와 보너스 제도를 통해 민간 소유의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소유의 공공공간

은 실내 혹은 실외라는 공간적 형태의 제한보다는 건축주와 설계자에 의해 기획되는 공개공지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정해진다. 특별한 상업적 용도가 기획되지 않은 590 Atrium이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활용되는 반면, Sony Plaza와 Trump Tower는 기획된 활동, 즉 쇼핑과 다양한 행사를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한편 공개공지가 도시 내 공공공간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용도의 기획도 중요하지만 접근성과 주변공간과의 연계성, 그리고 열린 공간으로서의 디자인 또한 중요하다. Trump Tower에는 여러 층에 걸쳐 다양한 용도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저조하다. 민간소유의 공공공간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개공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내 다른 공공공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행정당국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슈투트가르트시 신주립미술관 (Neue Staatsgalerie)



〈그림 38〉 신주립미술관의 위치와 배치(maps.google.com)

- 위치 : Stuttgart 시
- 건축주 : 독일 Wuerttemberg주, Stuttgart시, 주립미술관협회 공동
- 건축설계 : James Stirling Michael Wilford & Associates
- 연도 : 현상설계 당선 1977년 / 건축물 완공 1984년
- 면적 : 15.300 m<sup>2</sup>
- 비용 : DM 69.700.000 (약 35억원)

19세기 초 왕립미술관과 미술대학으로 건축된 구주립미술관을 확장시키기 위해 건축된 슈투트가르트시의 신주립미술관은 1977년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영국 건축가인 James Stirling의 계획안이 채택되어 1984년 완공되었다. 고전

주의에 입각한 건축물의 모뉴멘탈한 외형 때문에 한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건축주인 뷰르템베르그주와 슈투트가르트시, 주립박물관 측은 구주립 미술관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지형적인 여건을 반영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물 내 공공보행로를 도입하여 주변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인 점을 높이 사 James Stirling의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주립미술관은 서쪽의 시내와 동쪽의 주거지 사이에 위치하며 주립오페라, 시립음악당, 미술관, 도서관과 역사건축물 등 문화시설과 녹지가 있는 슈투트가르트시의 문화의 축선상에 있다. Stirling이 설계한 주립미술관은 한편으로는 시내와 구릉지의 주거지역을 연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마련하였다. ‘ㄷ’자 모양의 평면 중앙에 위치한 둥근 로툰다 형태의 외부공간은 시내와 동쪽의 주거지를 잇는 보행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4시간 열려 있는 이 공간은 조각물이 전시된 야외 전시장으로 실내 전시장과 연장선상에 있으며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품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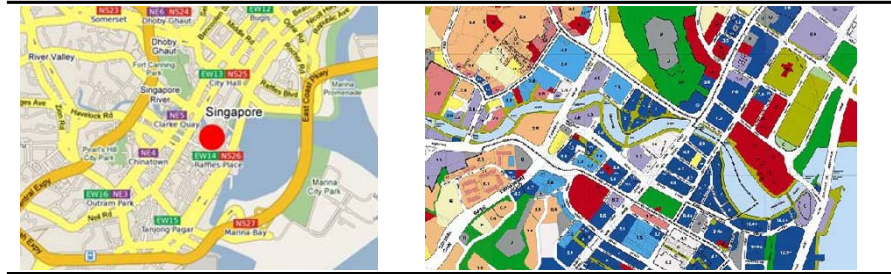
〈그림 39〉 신주립미술관의 전면과 보행로인 로툰다 외관과 내부모습

지형에 맞게 테라스 형태로 설계된 건축물은 기단부에 주차장이 있고 2층 높이에 주 출입부와 전면 광장이 있다. 광장과 같은 2층 레벨에서 남쪽의 시립음악대학을 지나 도서관까지 연결되는데, 자동차 도로와 단차를 두어 자동차와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였다.

James Stirling의 주립미술관이 주는 시사점은 건축의 공공성을 도시적 차원까지 끌어올린 데 있다. 미술관의 가장 중심적인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한 점은 도시 내에서 공공건축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찾아가던 미술관이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실질적으로 주립미술관 로툰다 내의 공공공간은 시각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고 머물기에 그다지 편하지도 않다. 미술관의 일부가 공공공간이 된 것인지, 공공공간이 미술관의 한 전시물이 된 것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

다. 하지만 건축물 배치가 끝난 후의 자투리땅을 공개공지로 내어 놓는 기존의 계획과는 달리 공공공간이 설계의 출발이 된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은 크다.

### (3) 싱가포르시 수변지역 개발



〈그림 40〉 싱가포르강 개발지역의 위치(maps.google.com, www.ura.gov.sg)

- 위치 : 싱가포르시 싱가포르강
- 건축주 : 싱가포르국
- Masterplan :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 연도 : 1999년 완공
- 길이 : 약 6km

싱가포르 시내를 관통하는 싱가포르강은 역사적으로 주요한 수상교통로로 강변을 따라 여러 개의 항구가 발달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항구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항구와 관련된 물류와 산업시설이 자연적으로 확산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싱가포르강은 오염이 심해져 30년 전까지만 해도 악취 나는 더러운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다. 오염된 강을 다시 살리고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강 마스터플랜’이라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0년대 강의 정화를 시작으로 6km에 달하는 수변지역을 3개 지역(Boat Quay, Clarke Quay, Robertson Quay)으로 나누어 꾸준히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변지역 재생을 위해 ‘싱가포르 강 마스터플랜’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용도이다. 낮과 밤에 관계없이 활발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지구에 주거, 상업, 주상복합, 업무, 산업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되도록 복합개발을 계획하고 토지의 고밀도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기존의 산업시설과 창고부지의 단계적 제거를 장려하였다. 그 밖에도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를 유치하여 일상과 업무, 여가 및 관광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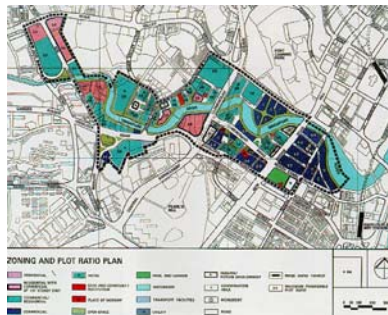
〈그림 41〉 싱가포르강 수변공간 야경



〈그림 42〉 싱가포르강 수변 산책로 전경

두 번째는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공간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공간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변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산책로를 계획하고 보행도로와 보행교를 확충하며 오픈스페이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세 번째는 경관에 관한 것으로, 건물 높이 제한을 통해 스카이라인을 계획·관리하고, 싱가포르 시만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이다. 수변의 전통적인 건축물 높이가 4층인 것을 기준으로 강에 인접한 지역과 보행로 주변에는 건축물 높이를 4층으로 제한하고, 그 뒤쪽은 10층, 원경을 구성하는 지역의 건축물은 35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20여년에 걸친 싱가포르시의 노력으로 현재 싱가포르강 주변지역은 다양한 광장과 산책로로 조성되었으며, 볼거리가 많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탈바꿈하여 싱가포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싱가포르 수변의 3개 구역, Boat Quay, Clarke Quay, Robertson Quay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특색있는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43〉 싱가포르강 주변지역 전경  
([www.jimlei.com/images/photo\\_ir006.jpg](http://www.jimlei.com/images/photo_ir006.jpg))〈그림 44〉 싱가포르 마스터플랜 용도계획  
([www.ura.gov.sg](http://www.ura.gov.sg))



〈그림 45〉 Boat Quay

(<http://3-meals.com/wp-content/uploads/2007/06/chinatown.jpg>)



〈그림 46〉 Clarke Quay



〈그림 47〉 Robertson Quay

(Carol Lim, 2003, river of life the quays to good life, URA)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분주했던 Boat Quay에는 박물관, 의회, 호텔로 개조된 식민시대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유명한 레스토랑과 카페와 바(Bar)가 밀집되어 있다. Clarke Quay는 다섯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건축물을 복원하면서 외부공간을 유개공간으로 연계하여 대형 아케이드를 조성하였다. 다양한 페스티벌과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으로 레스토랑과 테마펍, 와인 바 등이 있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지막 구역인 Robertson Quay는 3구역 중에서는 가장 한가한 곳으로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많다.

## 2) 이용가치를 극대화한 공공공간 사례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은 소통과 교역, 교통의 전통적인 기능 이외에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과 계절,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고려하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용가치를 극대화시킨 공공공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파리 시청앞 광장과 Paris Plage(파리해변)



〈그림 48〉 파리 시청앞 광장과 Paris Plage의 위치

파리 시 센강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강변을 따라 루브르박물관,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적과 박물관, 공원이 있어 파리 시의 도시구조상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공공공간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장소이다. 그러나 센강변을 따라 건설된 고속화도로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많았다. 파리시에서는 최근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센강 강변도로의 용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그 일환으로 2001년 여름,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교통을 통제하고 강변도로를 시민에게 개방하였으나 강변도로의 개방만으로는 보행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2002년부터 강변도로를 일종의 ‘해변(plage)’으로 꾸미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림 49〉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용되는 Paris Plage 모습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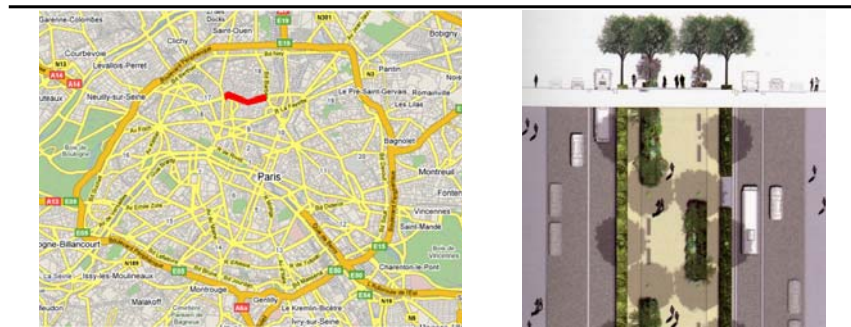
‘Paris Plage(파리 해변)’이라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2002년 파리시가 주체가 되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름마다 행해지고 있는데, 파리 시민은 물론 전 세계의 여행자들을 센강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름휴가 기간 중 한 달 동안 늘어난 교통량으로 신음하던 센강 강변도로는 현재 야자수가 들어선

모래사장으로, 수영장까지 갖춘 해변으로 변모하였다. ‘파리해변’ 행사는 평소에는 주요 도로로 쓰이던 공간을 한시적 기간 동안 100%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여가와 축제의 장소로 변모시켜 그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파리시청 앞 광장 또한 계절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여름에는 모래사장을 설치하여 비치발리볼 경기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파리를 벤치마킹하여 매년 겨울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는 스케이트장 역시 시간에 따른 이용가치 극대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도시가 점점 고밀화되고 새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할 여지가 점점 좁아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파리시 및 서울시의 사례에서 보이는 시간, 계절에 따른 다양한 효용가치 창출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2) 파리시 Espaces Civilisés 사업

‘다양한 이용주체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목표 아래 파리시는 2001년 ‘Espaces Civilisés’ 정책과 헌장을 발표한다. 이 정책의 골자는 자동차 중심의 기존 가로 체계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더 나아가 롤러블레이드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고 가로변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이다.



〈그림 50〉 Boulevard Clichy-Rochechouart의 위치와 평면(Simon Texier, 2006)

이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파리시는 파리의 도로 중 교통량이 많고 그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간선도로(Axe Rouge)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목표는 첫째, 다양한 이용 주체를 위한 공공공간의 균형있는 배분, 둘째, 녹지공간 확충, 셋째, 시각적·청각적·환경적 오염 최소화 및 청결한 환경조성, 넷째, 문화적, 상업적 측면에서 대상 지역의 활성화, 마지막

으로 도시 경관요소 및 건축·도시 문화유산의 보존이다.

첫 사업의 대상지는 Boulevard Clichy-Rochechouart(클리쉬-로슈슈아르 가로)로, 2004년 시작하여 2005년 11월 17일 종료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 Boulevard Clichy-Rochechouart와 주변과의 연계 및 보행로 계획  
(Simon Texier, 2006)

- 주요 도로는 양방향 1개 차선으로 제한
- 대로 가운데 위치한 보행자 산책로 유지 및 녹지 확충
- 보행자 공간 옆에 버스 전용차로 지정 및 보행자 산책로와 버스 전용차로 사이에 자전거 도로 신설
- 보도 너비 확충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보도 위 주차공간 제거
- 보도 옆 주차공간 설치 및 장애인 차량과 주변 상가를 위한 화물적재 공간 확보

사업 시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로수 추가 식재로 320주에서 사업 후 376주로 가로수량 증가
- 녹지 공간 확충으로 21㎡에서 사업 후 4,270㎡로 녹지면적 증가
- 4개의 장애인 주차 공간 확보
- 56개의 가로변 주차 공간 확충
- 벤치 확충을 통해 16개에서 사업 후 58개로 벤치 수 증가
- 17개의 추가 화물 적재공간 확보
- 2,500m의 버스 전용차로 및 2,350m의 자전거 도로 확보

파리시 Espaces Civilisés사업이 주는 시사점은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다양한 이용주체, 즉 자동차나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공공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공간인 도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며 보행

로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보행공간이 개별적으로 구성되거나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oulevard Clichy-Rochechouart 사례는 도심 내 주요 가로체계와 보행자 도로가 개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가 보행자의 산책로과 도심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 Boulevard Clichy-Rochechouart 조성 후 전경(Simon Texier, 2006)

### (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그림 53〉 정자동 카페거리의 위치

정자동 카페거리는 분당 정자역 근처의 주상복합 아이파크 3단지과 성원 상떼빌 그리고 동양 파라곤 사이의 길로, 4차선 도로 양면을 따라 설치된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밀집된 지역을 일컫는다.

신도시 계획 당시 중심상업용지, 업무용지, 쇼핑단지로 계획되었던 분당의 정자동 일대는, 신도시 입주 완료 시기가 끝난 후에도 3년간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50%, 전체 면적의 20%만이 개발되는 등 대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2000년 용도변경을 통해 주상복합을 허용, 개발은 활성화되었으나 저층부의 상가는 공실률이 높고 사람들의 이용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자동 상가 번영회는 2004년부터 정자동 일대에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상가의 고급화와 함께 상점에서 보도 쪽으로 1.5m 폭의 테라스를 만들어 유럽스타일의 노천카페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또한 차양과 간판, 테라스, 가로등과 같은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을 통일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었다.



〈그림 54〉 정자동 카페거리의 낮과 밤의 모습

300m에 이르는 정자동 안정길 양쪽 보도에는 현재 50여개의 상점이 테라스를 이용하여 유럽풍 노천카페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카페거리를 조성한 이후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2006년 9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05년만 해도 미미했던 유동 인구가 2006년에는 평일 5천~1만명, 주말 2만~3만 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2004년과 비교하여 2005년 정자동 카페거리 일대의 임대료는 약 50% 상승하였고, 2007년에는 2004년과 비교하여 2.5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정자동 카페거리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분당은 물론 다른 신도시에서도 테라스 설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상에 전면공지로 지정된 곳에 테라스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불법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잇따르기도 하였다. 2007년 최지영의 논문 『신도시 상업가로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벤치와 같은 공공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자동 카페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물리적인 공간계획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종 수요자인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활동의 기획이 공간을 계획할 때 동시에 진행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상권의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상가 전면부의 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거리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이며, 셋째는 이러한 이용가치의 극대화를 통해 평범한 주상

12) 2004년 봄부터 2005년 초까지 평당 800만원대, 2005년 여름 아파트 값은 평당 1150만~1200만원이었던 것이 테라스 거리가 자리를 잡은 현재 시세는 평당 2200만원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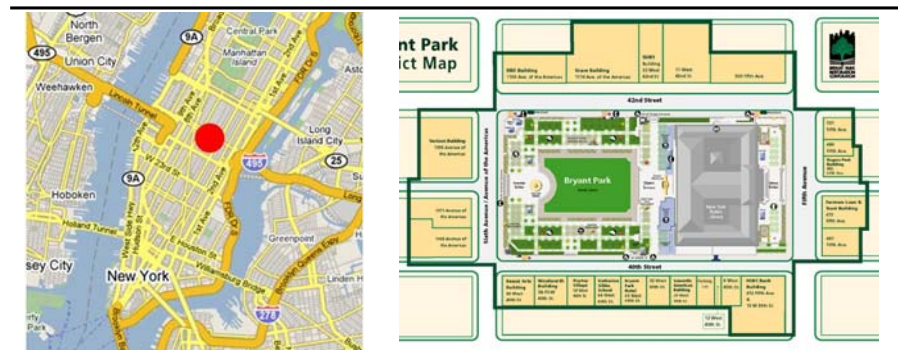
복합 밀집지역을 특색있는 새로운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 3) 다양한 주체에 의해 조성된 공공공간 사례

기존의 공공공간은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점점 많은 공공공간이 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조성된 공공공간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공공간에 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지속성이 강하다. 다양한 조성주체에 의해 조성된 공공공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뉴욕시 Bryant Park와 Rockefeller Center

##### ① BRYANT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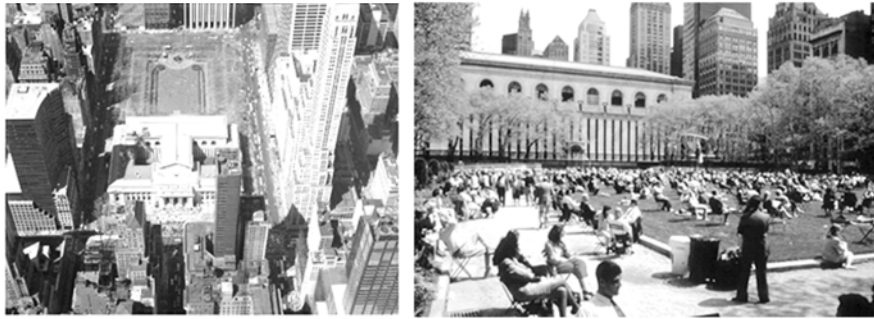


〈그림 55〉 Bryant Park의 위치와 배치(www.bryantpark.org)

- 위치 : Ave. of America 동쪽, 40번가와 42번가 사이
- 개발 : Bryant Park Restoration Committee(BPRC), Rockefeller Foundation(재정)
- 관리 : Bryant Park Corporation(BPC)
- 공원 설계 : 로버트 하나와 로리 올린 조경설계사무소

뉴욕시 브로드웨이와 42번가의 중심, 뉴욕시 공공도서관 앞에 위치한 Bryant Park는 뉴욕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공원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평소 평일 점심시간에는 약 5,000명의 직장인들과 20,000여명의 방문객이 찾는 명소이며, 뉴욕의 많은 집회와 이벤트가 일어나는 도심내 중요 오픈스페이스이다. 1970년대까지 브라이언트 파크는 주변에 있는 6번가의 고가철도가 공원에 그늘을 만들어 도시에서 가장 볼품없는 공원

중의 하나였고, 마약과 범죄가 만연한 장소였다. 또한 고가철도를 철거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장비와 자재 적치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현재 브라이언트 파크는 거대한 잔디밭, 오솔길, 돌난간, 가로수길, 타원형의 플라자를 중심으로 한 훌륭한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김기호, 2003).<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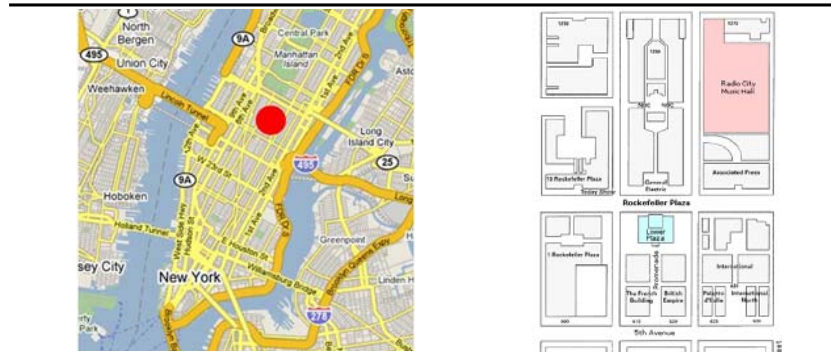
〈그림 56〉 Bryant Park의 전경과 공원모습(한광야, 2007 / www.pps.org)

이렇게 브라이언트 파크가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뉴욕시보다 비영리단체인 BPRC와 PPS에 힘입은 것이다. BPRC는 1981년 록펠러 기금으로 출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특별과세로 운영기금을 마련하여 브라이언트 파크의 재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뉴욕시가 공원을 운영하던 때에 비해 6배 이상의 기금을 조성한 BPRC는, 이를 기반으로 4년간의 복원공사를 거쳐 1992년 브라이언트 파크를 재개장하였다. 브라이언트 공원이 조성과 관리를 민간 비영리조직이 주도하게 된 것은 뉴욕시의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시는 브라이언트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비영리 조직에 그 일을 위임하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BPRC가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PPS는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PPS는 지역주민과의 인터뷰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원으로의 접근 방법과 주변 교통상황 등을 분석하고 공원의 프로그램과 조경요소, 관리방법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Bryant Park, Intimidation or Recreation?”라는 보고서에서 PPS는 공원이 어떻게 공공의 활동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공원을 전면개방하고 시각적 개방과 연계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여 이동 가능한 100여 개의 의자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키오스크와 티켓 판매점 등의 상업용도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어메니티와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PPS의 제안으로 브라이언트 파크는 도시에서 가장 편안하고 유명한 공원으로 탈바꿈하였다.

13) 김기호(2003)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설계: 프로젝트단위의 민간 비영리조직 설립의 필요성

## ② ROCKEFELLER CENTER<sup>14)</sup>



〈그림 57〉 Rockefeller Center의 위치와 배치(www.rockefellercenter.com)

- 위치 : Fifth Avenue, 47번가와 50번가 사이
- 개발 : Rockefeller Center, Inc.
- 관리 : Rockefeller Center, Inc.

록펠러 센터는 민간자본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민간소유의 공공공간으로, 록펠러 재단이 자본을 대고 R.후드, W.해리슨 등 건축가가 1929~1940년에 건설된 뉴욕의 대표적인 장소로 시민들의 기억에 자리매김해 왔다. 처음에는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려 했으나 경제공황으로 오피스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록펠러 센터가 세워진 이후 록펠러재단은 록펠러 센터의 활성화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그 첫 번째로 1931년 록펠러 센터의 중심건물인 GE빌딩 전면에 22m 높이의 나무를 설치하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전구 30,000개를 점등하여 이벤트 장소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1936년에는 지하 쇼핑물로 연결되는 Lower Plaz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화단으로 채워진 광장을 아이스링크로 리노베이션하였다. 아이스링크 설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으로 계획당시 사업이 취소될 위기도 있었으나 전문가의 제언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서 Lower Plaza는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꼭 한 번 찾게 되는 명소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1970년대 이후 록펠러 센터의 통합적인 개선을 통해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데 민간단체인 PPS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PPS는 시기별로 현황분석과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록펠러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975년 PPS Atlas Court의 주도로 실시된 프로젝트에서는 원형의 벤치와 식수대 설치라는 작은 변화가 공간의 이용빈도를 높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기쁨

14) 록펠러 센터에 관한 내용은 외부연구진 김도년의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서 건물전면공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후 PPS의 적극적인 권유로 인해 Channel Gardens에도 추가적으로 벤치가 설치되었다.



〈그림 58〉 Rockefeller Center 전면공간의 변화과정

1970년대 후반에는 록펠러 센터 지하 쇼핑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사인시스템을 도입하고 활력을 주는 상점을 입점시켜 다양한 계층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1980년에서 1990년까지 PPS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몰려드는 방문객의 혼잡을 줄이고 록펠러 센터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빌딩에 통일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4개의 건물로 둘러싸인 외부광장과 사용이 저조한 실내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여름에는 오픈 카페로,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활용되고 있는 록펠러 센터의 전면공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활기차게 이용되고 있으며,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꼭 보고 가는 명소로 탄생하였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공공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매력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PPS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림 59〉 PPS에 의한 Rockefeller Center 전면공간의 통합적인 업그레이드

## (2) 도쿄 마루노우치 마치즈쿠리<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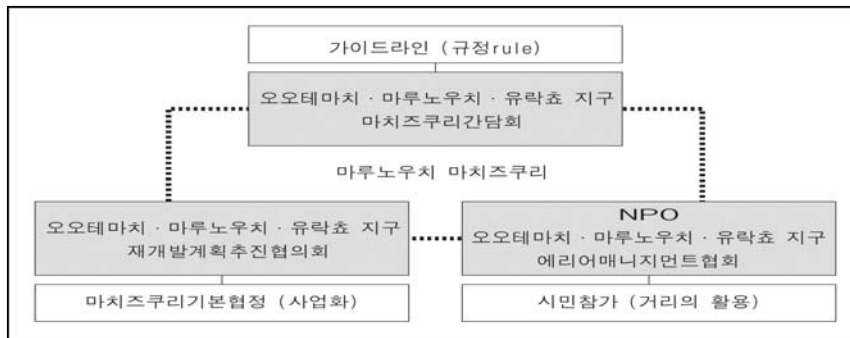
〈그림 60〉 마루노우치 위치와 주변현황  
(마루노우치 홈페이지 [www.marunouchi.com](http://www.marunouchi.com))

도쿄의 마루노우치는 ‘三菱村(미즈비시무라)’라고 불리듯이 미즈비시 은행과 미즈비시 상사 등 미즈비시계 기업의 본사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지난 100년간 미즈비시 지소(주)는 마루노우치의 미래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59년 이래 미즈비시 지소(주)는 마루노우치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웠으며, 이러한 미즈비시 지소(주)의 노력은 1990년 말에 와서 구체적으로 실현화된다. 부도심 개발에 따른 마루노우치의 지위 하락과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미즈비시 지소(주)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의 일체적인 재개발을 위해 민간 지권자를 모으고 행정과의 협력을 이끌어 나갔다. 또한 NPO 조직인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초 지역매니지먼트협회(2002년)를 발족하여 시민들과 각계 계층의 사람들을 참가시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적극적인 힘을 기울였다. 마루노우치는 미즈비시 지소(주)를 중심으로 지역내 기업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여러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이루어내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조직은 다음과 같으며, 지역의 토지소유자에 의한 ‘재개발계획추진협의회’, 민관협력의 ‘마치즈쿠리 간담회’, 거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NPO단체인 ‘에리어매니지먼트협회’에 의해 종합적·일체적 마치즈쿠리가 추진·운영되고 있다.

15) 도쿄 마루노우치 마치즈쿠리에 관한 내용은 외부연구진 김도년의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서 건물전면공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그림 61〉 마루노우치 마치즈쿠리 추진조직

### ① 나카도리 개선사업

도쿄 구도심에 입지한 마루노우치의 나카도리(仲通り)는 최초의 업무지구로 개발되어 지난 100년간 일본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비즈니스 가로로서, 거품경제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건물 1층에 대기업 본사나 은행지점이 입지하여 3시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삭막한 가로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건물 공실률 증가, 취업인구 감소, 투자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의 재정비가 추진되었다. 이 지역 토지의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미츠비시 지소(주)가 주도가 되어 지구 내 민간지권자 협의조직<sup>16)</sup>을 설립하고 지구 개념과 미래상을 설정하여 새로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민간지권자 협의조직은 ‘마치즈쿠리 협정서’(1994년)를 바탕으로 국제적이며 쾌적하고 일체화된 도시정비를 실현하기 위한 지구 전체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그 일환으로 가로환경에 대한 나카도리 개선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시기는 지구 전체의 재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1998년부터 3차에 걸쳐 단계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범위는 폭 21m(보도 9m, 차도 6m), 길이 1,100m의 나카도리 가로공간과 나카도리에 면한 26개의 건물(재개발 건물 8개 포함)이 대상이며, 사업 목표는 첫째, 110년 역사를 계승하고 현대에 어울리는 활력 넘치는 거리로 재생, 둘째, 세계에서 가장 상호작용 활발한 거리 실현, 셋째,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거리 조성, 넷째,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커뮤니티를 실현하는 데 있다.

16) ‘재개발추진협의회’는 지구의 일체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지구 내 민간기업이 설립한 협의조직이다. 1988년에 미츠비시 지소가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현재 90개(법인회원 69단체, 읍저버 10단체, 특별회원 9단체)의 토지소유자와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협의회에서는 내부의 의견교류 및 외부의 학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개발과 관리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산한다.



〈그림 62〉 마루노우치 나카도리 개선사업 구간

나카도리의 경우, 동경역과 함께 마루노우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가로로 정비하기 위한 가로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다. 나카도리의 목표는 마루노우치 비즈니스 지구의 중심축으로서 보행의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은 합의하여 ‘매력이 넘치는 나카도리 활기의 축 만들기’란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의 개별 건축물의 재건축시 가로와 통합적인 환경에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기법과 제도를 메뉴얼화하였고, 이를 통해 활력있는 가로만들기 위한 민간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표 20〉 나카도리 개선사업의 목표 및 실현전략

나카도리의 컨셉트	· 매력이 넘치는 나카도리 활기의 축 만들기
나카도리의 목표	· 나카도리는 마루노우치 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비즈니스 활동, 어메니티 활동의 중심축이며, 永代토오리의 금융, 정보기능과 晴海토오리의 교류 기능이 특징인 동서축과의 기능 연계를 도모하면서, 활력과 매력을 살림
실현전략	· 가구에 정연하게 일렬로 정렬된 가로를 재구축하고, 휴먼스케일의 휴식공간을 창출 · 건물 양측의 친밀감이 있는 활력으로 넘치고, 매력있는 가로 실현 · 건물 저층부는 입지특성과 건물특성에 맞게 점포와 음식점을 유도하여 활기가 있는 도로로 정비

마루노우치에서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 협력조직인 ‘마치즈쿠리 간담회’<sup>17)</sup>(이하 간담회)가 설립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지구 전체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는데 디자인가이드라인에는 가

17) ‘마치즈쿠리 간담회’는 동경도, 치요다구, JR히가시니혼(주), 재개발추진협의회가 참여한 관민 협력조직이다. 간담회는 정비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간의 활동을 유도,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의 통합적 디자인(Total Design) 원칙 아래 민간의 개별적인 계획을 유도·조정하여 공적공간인 가로와 함께 민간 건물의 전면공간을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이 수립되어 있다.

나카도리의 활기의 축 만들기 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작성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실현되었다. 현재 정비가 완료된 1차 구간의 정비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적영역인 가로에서는 보도의 폭을 확충하고 차량진입을 일반통행으로 전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보도와 도로의 일체적인 포장과 함께 벤치, 가로수, 조형물, 가드레일, 안내 시설물이 통합적으로 정비되었다. 민간영역에서는 기존 건물의 외관을 투과성 높고 개방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된 건물은 기존 나카도리의 3lm 처마선을 유지하면서 1층부 외관을 개방감있게 정비하였다.



〈그림 63〉 민관 협력을 통한 가로와 건물전면공간의 통합적 디자인 실현

민간과 공공은 간담회를 통해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부분, 지구의 유지관리와 이벤트 개최, 문화활동 유치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리조직인 지역매니지먼트협회를 발족하였다. 지역매니지먼트협회는 시민, 취업자, 방문자, 학계전문가가 참여한 NPO단체로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지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매니지먼트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나카도리 활기의 축 만들기’를 들 수 있다. 협회에서는 협의회와 간담회의 지원을 받아 나카도리의 공적공간 및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나카도리 오픈 카페, 동경밀레나리오, 마루노우치카우(COW) 퍼레이드 등 공연, 축제, 이벤트 등을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커뮤니티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동경도는 ‘동경의 세련된 가로경관만들기((東京のしゃれた街並みづくり推進条例) 조례’를 책정하여 지역관리조직에게 자주적인 수익확보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sup>18)</sup>를 마련해 주고 있다. 지역매니지먼트협회는 안정된 재원확보 구조 속에서 공개공지 활용으로 수익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프로모션 사업의 수익비율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역매니지먼트협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는 민간과 공공의 상호작용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지역취업자 및 방문자의 안전 확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취업환경의 개선, 지역의 활성화와 교류증진의 도모, 다양한 커뮤니티의 형성을 위한 지역매니지먼트 협회의 노력은 지역주민과 각계각층 사람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여 협의회와 간담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림 64〉 공공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활동

### (3)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Bahnhofstrasse)



〈그림 65〉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의 위치와 평면(이석정·차주영, 2000)

18) 이 조례를 통해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이벤트 개최하거나 오픈카페로 이용할 경우 지역관리조직을 통해 등록하게 하여 수익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 위치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주 에쓰링엔시
- 개발자 : 에쓰링엔시
- 설계 : Stadtbauatelier
- 연도 : 1997년 설계, 2000년 완공
- 면적 : 약 3000㎡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는 19세기 건축된 에쓰링엔시의 중앙역과 중세시대 조성된 고도의 중심지구를 잇는 가로로, 레스토랑과 상점, 업무시설, 수공업, 주거 등이 공존하는 변화한 상점가로이다. 가로정비 전, 역앞 거리는 전후 재건축된 건축물과 기존의 고전주의 건축물과의 부조화로 미관이 조악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통의 증가로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도심내 열악한 가로환경으로 가장 직접 피해를 본 이들은 역앞 거리 상인들로, 이들이 구심점이 되어 가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역앞 거리 상인들은 가로 환경개선을 목표로 '역앞 거리 이니시어티브(Initiative Bahnhofstrasse)'를 결성하고 가로의 열악한 환경과 교통문제, 불편한 보행공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시의 담당국에 도시설계 차원에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의 재정상, 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니시어티브가 첫 단계의 설계비를 마련하고, 시 담당국에 역앞 거리의 미래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시와 상인조합 간의 민관 파트너십(private-public-partnership)이 형성되었으며, 시의회는 다른 용도로 책정되었던 자금을 투입하여 우선 역앞 거리 개선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시의회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는, 도심지 내에 활력있고 매력적인 상점거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도시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구매력에 따른 세금 수입의 증가 등 주변의 다른 시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 개선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민관 파트너십(private-public-partnership)에 의한 공공공간의 조성관리와 운영과정이다. 역앞 거리의 개선사업은 1997년에 처음 계획에서 2000년 완공되기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처음의 설계개념이 비교적 일관성있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시 담당부서와 이니시어티브가 대표한 시민, 그리고 설계자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여 계획을 진행시켰기 때문이다. 가로 설계, 포장 및 기타 구조물의 디테일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에게 소개되었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포장 재료와 문양, 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의 견본을 2주일간 설치하여 실제 공간상에서의 공간감과 기능을 테스트하여 시민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반영하였다. 그 밖의 시의 도시계획국, 도로국, 환경국 등 많은 관련 공무원들과 수평적인 공동 작업을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림 66〉 에쓰링엔시역 앞 거리의 낮과 밤의 모습(이석정 · 차주영, 2000)



〈그림 67〉 에쓰링엔시 역전앞거리 야경과 가로시설물 지침서(차주영, 2005)

결과적으로 이니시어티브는 총 공사비의 10%를 부담하였고,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도 가로에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니시어티브는 가로에 통일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 가로시설물에 대한 지침서 제작을 시에 요청하고 상인들 간의 협정을 이끌어내 각 상점에서 상점 앞에 설치하는 사적인 가로시설물에 대한 통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가로에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로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니시어티브와 시와의 긴밀한 대화와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 4)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사례

개별적인 공공공간의 조성은 통합적 계획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통합적 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에서 출발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 장기적인 계획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한 사례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리옹시 공공공간 정책 및 통합적 계획



〈그림 68〉 리옹시와 새롭게 조성된 리옹시 공공공간의 연계 및 주차장 위치(Jan Gehl, 2000)

리옹시는 프랑스 중부 론(Rhône)강과 손(Saône)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고대 로마시대부터 발달한 도시로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많은 도시이다. 근대 이후 자동차 교통의 확산과 도심공동화 등으로 쇠락해가는 리옹시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도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1980년 말 리옹시에서는 리옹시내와 광역권 전체의 공공공간에 대한 제고를 시작하였다. 1989년 미셸누아르(Michel Noir) 시장이 도시계획담당 부시장으로 앙리 샤베르(Henry Chabert)를 임명하고, 앙리 샤베르는 기술적인 자문 역할을 맡은 건축가 장 피에르 샤르보노(Jean-Pierre Charbonneau)와 함께 공공공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후 리옹시에서는 현재까지 115개의 공공공간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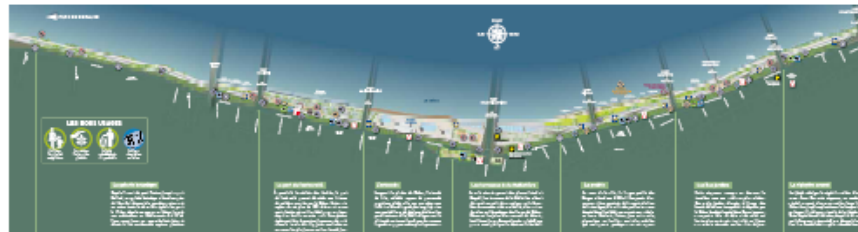
리옹시의 공공공간 정책은 새로운 교통정책에 의해 보완되었다는 특수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공간의 유기적 연계에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시내 중심지의 광장을 새로이 조성할 때는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그 밖의 리옹시만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통일성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해 특별한 디자인과 지정된 재료를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가로등, 휴지통, 벤치, 볼러드 등 도시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유명 건축가인 장미셸 빌모트(Jean-Michel Wilmotte)로 하여금 표준 모델을 만들도록 하였다.

리옹시는 테마별 공공공간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블루, 그린, 조명, 그리고 색채 등 4개 계획이 있다. 블루 계획(Plan

Bleu)은 수변 공간 및 주변 환경의 개선에 관한 계획이며, 그린 공간 계획(Plan Vert et Espaces Publics)은 공원·녹지공간 및 공공공간 통합 계획, 조명 계획(Plan Lumière)은 야간 경관 계획, 색채 계획(Plan Couleur)는 하천변 둔치 및 주택단지에 대한 색채 계획이다.

블루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종류의 수상 활동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 1991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변을 정비하고 수변공간의 자연·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8년 개정된 두 번째 계획은 론(Rhône)강과 손(Saône)강 수변 재정비 계획으로 리옹의 도시계획에 수변 공간을 주된 요소로 도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수변공간이 단절된 여러 지역을 잇는 연계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에 착안해 보행자 공간 및 자전거 이용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블루계획에 의한 실천 사례는 선착장 및 램프 설치 등 국지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에서부터 도시계획 수립시 하나의 틀로서 작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시테 앙테르나쇼날(Cité Internationale), 제르랑 공원(Parc de Gerland), 페신느 공원(Parc de la Feyssine) 조성 계획 등이 있다.

## Un parc urbain au fil de l'eau



〈그림 69〉 리옹시 수변공간 개발 계획([www.grandlyon.com](http://www.grandlyon.com))

리옹시의 야간 경관계획(Plan Lumière)은 세계 모든 도시의 야간경관계획의 모델이 될 만큼 선도적인 계획으로, 아름다운 리옹시의 경관을 밤에도 드러나게 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리옹시는 조명계획을 도시와 건축을 디자인하는 중요한 건축적 언어로 보고, 도시설계의 맥락에서 리옹시의 도시 경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명으로 강조되어야 할 도시 경관적 요소는 일차적으로 도시의 구조를 이루는 주요 가로와 광장, 관문과 같은 결절점,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구릉과 수변공간, 역사유적과 주요한 건축물, 그리고 리옹시의 특징적인 지구들이다. 리옹시는 공공공간 정책과 더불어 새로이 조성되는 광장과 가로를 중심으로 야간 조명을 차츰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낮뿐만 아니라 밤에

도 여러 공공공간에서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리옹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 계획은 통합적 운영방식으로 이어져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체화된다. 리옹시는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주 주체를 일원화하고 리옹광역시에 공공공간 전담 부서를 개설했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진행 및 코디네이션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앙리 샤베르(도시계획 담당 부시장)가 이끄는 공공공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공공공간 조성의 각 단계(프로그램 설정, 외부 전문가 선정 등)를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정기적인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공모 방식을 통해 외부 전문가(조경전문가, 건축가, 도시계획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하였다.



〈그림 70〉 리옹시 야간경관계획  
(Annie Boyer, 2001)



〈그림 71〉 Place des Terreaux의 야경  
(Jan Gehl, 2000)



〈그림 72〉 Place de la République와 Place de la Bourse  
(Jan Gehl·Lars Gemzøe, 2000, New City Space)

도시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Urban Vocabulary를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작성된 목록은 개별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도로국 등 공공공간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참고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1989년 이후 시행된 115개 프로젝트는 각각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공간 언어를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를 인식하는 데에 가로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로 시설물을 위한 국제 현상공모를 시행하고, 가로시설물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도시의 경관을 통일성있고 특색있게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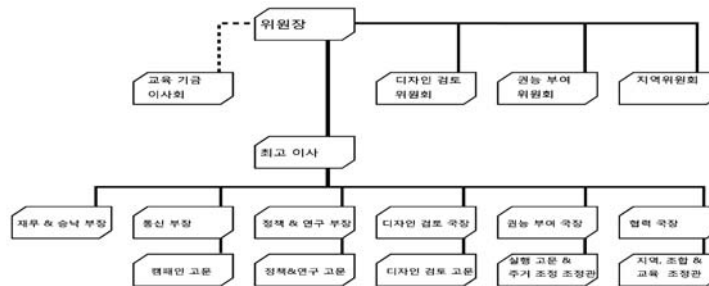
리옹시의 공공공간 정책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도시구조를 고려하고, 일하고, 생활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제반 계획시스템과 공공시설물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공간의 조성 과정에 반영되었다.

## (2) 영국 공공공간 정책과 CABE

1997년 영국은 『계획정책지침서 (Planning Policy Guidance: PPG)』와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 교체한 2004년 『계획정책보고서 (Planning Policy Statement)』, 그리고 1999년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 (Towards an Urban Renaissance)』를 발표하여 도시개발과 연관된 종합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였다(김정후, 2007). 그리고 이러한 건축과 도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원체계 수단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한 자문기관인 건축·건설환경위원회(Commission for Architecture & Build Environment)인 CABE를 설립하였다. 1999년에 설립된 CABE는 총 350명이 활동하는데,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와 부총리실(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16명의 중앙위원회와 중앙운영회가 운영을 담당하고 디자인 리뷰 패널(분야별 전문가들), 지역별 CABE 사무소, CABE Space 자문위원단, CABE 학교 디자인 패널 등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영국의 건축 및 도시 관련 정책 및 구체적 실천 방안 수립, 주요 건축과 공공공간의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신축건물, 마스터플랜, 도시구상(urban framework), 녹지공간 조성계획(green space strategies)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입안자, 전문가, 그리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건축 및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건설환경을 위한 더 나은 교육, 기술, 경험 제공, 건축과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작업 및 홍보활동, 특히 일반인에게 더 높은 공공디자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CABE SPACE는 2003년 CABE 산하에 설립되었으며,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공공공간 관련 특화연구 및 주민 참여형 공공공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구체적 실천 방안 수립, 공공공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교육과 홍보, 공공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가이드를 통한 시민참여 유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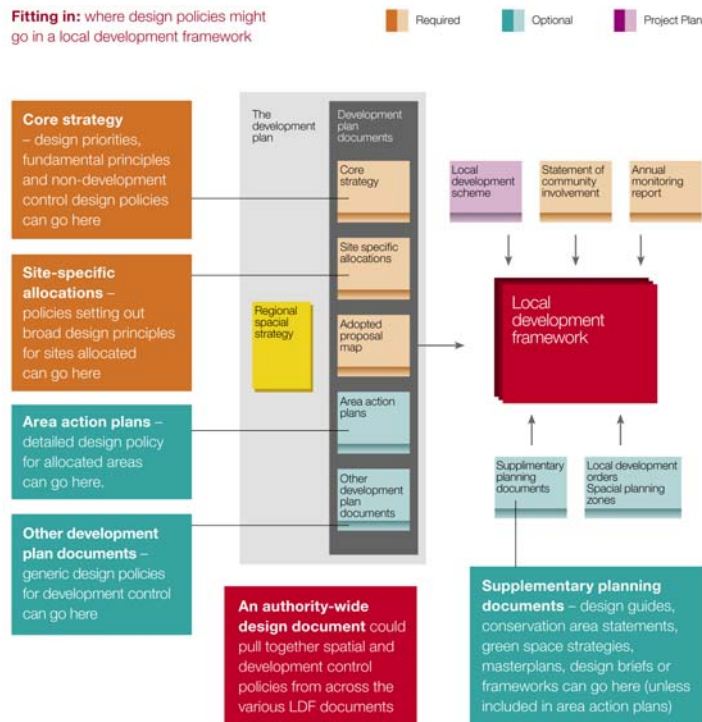
〈그림 73〉 CABE 조직도

영국은 건축과 도시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 디자인 기본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CABE는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기존의 용도계획을 보완하는 공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간의 디자인 정책을 모든 계획단계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과제로 인식, 이를 위해 '더 나은 디자인정책을 위한 5가지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디자인은 local development framework 정책 위계를 넘나들며 개별 커뮤니티 전략에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 디자인은 다른 모든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적 이슈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 디자인 정책은 지역적 컨텍스트와 디자인 프로세스의 면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개별 대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디자인은 중요하고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공간 레벨에서 local development framework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 시각적이고 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지속적인 디자인 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과 도시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계별 정책과 실천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21세기 영국 도시 아젠다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책의 근

간을 제시한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는 기존의 원론적 정책에서 탈피하고 영국적인 도시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정책은 도시계획과 건축의 질적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건축물과 건축물, 건축물과 공간, 공간과 공간 사이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을 강조하고 개별적 공공공간들이 기존의 도시맥락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공공공간을 사적공간의 반대 개념이 아닌 사적공간과 더불어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공간통사론 등과 같은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도시 전체에서 녹지, 길, 광장 등이 각각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하여 도시 전체에서 공공공간의 위치, 비율, 연결, 사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확한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림 74〉 지자체개발계획의 단계별 디자인정책 반영과정(CABE, 2005)

1997년 발표된 『계획정책지침서(PPG)』는 건축과 도시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지침서이다. 그 중에서 PPG17은 외부공간과 운동 및 여가활동 공간을 다루는 정책으로 공공공간 계획에 관한 핵심사항을 포함하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공공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PPG17에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으로 10개의 주요 공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①공원과 정원, ②녹지회랑, ③녹지편의시설, ④시민 및 커뮤니티 정원과 농장, ⑤도시 주변의 접근 가능한 전원지역, ⑥천연 혹은 준천연 공간, ⑦외부 운동시설, ⑧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시설, ⑨묘지 및 교회 앞뜰, ⑩시민광장 및 시장 등을 포함한 시민공간 등이다.



〈그림 75〉 보행광장으로 성공적으로 재생된 빅토리아 스퀘어, 버밍엄(CABE, 2000)

〈그림 76〉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CABE, 2005, Making Design Policy Work)

이러한 CABE는 PPG의 정책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CABE의 공공공간 정책은 21세기 영국 도시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서 중의 하나인 『By Design - 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 Towards Better Practice』에 잘 드러나 있으며 이 정책서는 도시계획을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예술'로 규정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이 갖는 공학적, 기술적 차원을 예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통해 공공공간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CABE에서는 공공공간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세부 목표와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공공공간의 세부 목표

- 특성: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장소
- 연속과 분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된 장소
- 공공영역의 퀄리티: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외부공간을 지닌 장소
- 용이한 이동성: 도시 내에서 접근성과 연계성이 좋은 장소
- 식별성: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장소
- 융통성: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소
- 다양성: 지역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

특히 세부목표 중 세 번째 공공영역의 퀄리티에서는 수준 높은 공공공간은 실질적인 디자인 요소(도로 및 공간의 포장, 식재, 조명, 방향, 그늘, 신호, 거리 시설물 등)에 의해 좌우되며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보여지고, 주변 길

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공공공간의 디자인 기준

- 기존의 환경과 어우러진, 접근성이 좋은 개방된 녹지 공간
- 행위와 관심을 유발하는 보행자와 연계된 1층 공간
- 건물과 적절히 연계된 공간
- 자연스런 감시가 가능한 안전한 공간
- 국지적인 기후조건을 감안한 공간
-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나타내는 예술적 공간

(3) 미국 PPS(Project for Public Space)<sup>19)</sup>

미국 PPS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공적공간의 생성과 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75년에 건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이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 훈련, 연구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소만들기’라고 불리는 공적공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공원, 시장, 가로, 역사, 도서관, 그리고 도시 속의 공적공간을 개선하여 활기가 넘치는 커뮤니티 중심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PPS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47개주, 26개국의 2000여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PPS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도시공간을 좋은 장소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들 수 있는데, 참여자들로 하여금 직접 지역을 진단하고 스스로 개선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활동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조율을 통해 지역과 장소를 재생시키기 위한 ‘장소만들기 기법’의 개발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기법과 실현사례들은 인터넷이나 책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여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림 77〉 PPS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www.pps.org](http://www.pps.org))

19) 이 연구의 PPS에 관한 내용은 외부연구진 김도년의 “도시공공환경의 계획요소로서 건물전면공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PPS에서 마련한 '성능평가 기준'은 앞서 기술한 '장소만들기 기법'의 일환으로, 좋은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람의 활동과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장소의 질적인 성능을 평가한다. 전 세계 유명 장소의 분석을 토대로 제시한 4가지의 평가기준은 접근과 연계(Access & Linkages), 편안함과 이미지(Comfort & Image), 이용과 활동(Uses & Activities), 그리고 사회성(Sociability)이다([http://www.pps.org/info/bulletin/what\\_is\\_placemaking](http://www.pps.org/info/bulletin/what_is_placemaking)).

〈표 21〉 PPS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공간의 성능평가의 관점

평가 기준	평가의 관점
Access & Linkages	장소의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관련된 요소가 시각적, 물리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특히 가로와 건물이 맞닿는 경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폐쇄된 창과 벽이 만드는 건물 전면보다 상점과 카페가 건물 전면에 연속하여 입지한다면 가로는 활력있고 매력있는 장소로 발현될 수 있다.
Comfort & Image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는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편안함은 안전하고(safety), 깨끗하며(cleanliness), 앓을 공간이 충분하여 이용 가능(availability of places to sit)할 때 만들어진다. 특히 편안한 장소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많다. 때문에 편안함과 이미지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자와 아이들을 측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Use & Activities	사람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건물의 용도와 기능에 의해 만들어진다. 건물의 용도와 기능에 의해 사람들은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한다. 반대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가 공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활동은 사라지고 가로의 활력도 없어지게 된다. 때문에 건물의 용도와 기능이 사람의 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
Sociability	장소의 질을 측정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좋은 장소에는 사람들의 복직임,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 등 적극적인 활동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교류와 활동은 장소가 갖는 특성(sense of scale)을 강화시키고, 장소성은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4가지 평가기준은 다시 직관적이고, 정성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평가항목과 실제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PPS의 평가기준과 항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공적영역인 가로와 사적영역인 건물과의 통합적인 관계에서 가로와 공간의 접점(interface)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접근과 연계(Access & Linkage)의 평가에서는 가로와 맞닿는 건물의 물리적인 특성과 건물에 담긴 용도에 주목하고 있다. 건물 전면에 사람과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용도가 입지한다면 가로의 투과성(permeability)이 높아져 건물과 맞닿은 공간의 활력이 높아지는 반면, 건물의 경계면이 벽과 폐쇄적인 창으로 이루어질 경우 건물 전면 공간의 활력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사람의 활동과 행위에 관계된 요소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편안함과 이미지(Comfort & Image)의 평가에서는 여자와 아이,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등 사람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

하여 공간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부여되고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과 활동(Use & Activities)의 평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다양성, 그룹화, 행위의 다양성을 통해 공간의 활력을 측정하고 있다. PPS의 성능기준은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평가보다 실제로 공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공간의 어떠한 요소가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공한 장소들의 분석을 토대로 제시되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 공간의 활력과 장소성이 경제적인 가치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PPS에서는 성공한 장소가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창출함을 증명하고 있다. 잘 이용되지 않는 광장, 중정, 건물의 로비 등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리모델링되고 관리될 때 사람들의 만족감은 높아지고 이에 따라 건물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간과 맞닿은 건물의 용도가 음식이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리테일 상점, 음식점이 입지할 경우 사람들의 만족감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때문에 PPS의 성능평가기준에는 재산가치(property values), 임대수준(rent levels), 상점판매고(retail sal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2〉 PPS에서 제시한 공공공간 성능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직관적이고 정성적인 평가항목	양적인 평가항목	성능평가기준과 항목의 특징
Access & Linka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로부터 공간이 인지되는가?</li> <li>· 건물전면에 내부의 영역이 얼마나 보이는가?</li> <li>· 공간과 연계된 건물의 벽면처리는?</li> <li>· 장소 접근은 용이한가? 예를 들어 주차출입구 등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가?</li> <li>· 보도와 공간의 연계는 좋은가?</li> <li>· 공간기능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가?</li> <li>· 대중교통과 횡단보도 등 장소로 가기 위한 접근성은 좋은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관련 데이터</li> <li>· 형태의 쪼개짐(mode splits)</li> <li>· 대중교통의 수단(transit usage)</li> <li>· 보행자 활동(pedestrian activity)</li> <li>· 주차사용 패턴(parking usage patterns)</li> </ul>	1. 가로와 건물의 통합적인 관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2. 사람의 활동과 행위에 관계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3. 공간의 활력과 장소성이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omfort &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의 첫인상은 어떠한가?</li> <li>·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은가?</li> <li>· 앉을 자리는 충분하고 위치는 적절한가?</li> <li>· 공간은 깨끗한가 아님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는가?</li> <li>· 유지관리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 공간은 안전한가?</li> <li>·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가?</li> <li>·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가?</li> <li>· 불법주차로 위험하지 않은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율(crime statistics)</li> <li>· 공중위생시설 비율(sanitation rating)</li> <li>· 건물의 조건(building conditions)</li> <li>· 환경 데이터(environmental data)</li> </ul>	
Use & Activities 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에서는 활동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가?</li> <li>·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경제 소유권</li> <li>· 토지이용패턴(land-use patterns)</li> </ul>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하는가?</li> <li>·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서 있는가?</li> <li>· 사람들의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걷고, 먹고, 쉬고, 독서 등 다양한 활동)</li> <li>· 사람들의 활동을 이끌어내는 시설물이 있는가?</li> <li>· 이벤트나 문화 활동이 일어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가치 (property values)</li> <li>· 임대수준 (rent levels)</li> <li>· 상점판매비율 (retail sales)</li> </ul>	
Soci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남의 장소로 애용되는가?</li> <li>· 사람들은 그룹으로 서로 이야기하는가?</li> <li>·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있는가?</li> <li>· 사람들은 그 장소를 남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가?</li> <li>· 주기적으로 장소를 이용하는가?</li> <li>· 떨어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가?</li> <li>· 서로의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와 노인의 수 (number of women, children&amp;elderly)</li> <li>·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s)</li> <li>· 참여수준</li> <li>· 밤의 이용률</li> <li>· 가로에서의 활동</li> </ul>	

## 5) 공공공간의 지속적 관리 · 운영 및 교육 사례

공공공간의 조성만큼이나 조성된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은 질 높은 도시공간의 유지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에 대한 교육 역시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데 중요하다. 공공공간의 관리 · 운영 및 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CAFE SPACE 시민참여와 교육지원 사업

CAFE SPACE는 CAFE 산하에 설립된 조직으로, 주요 업무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실천 방안 수립,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 유도 등으로 다양한 정책서와 교육 · 홍보물의 발간을 통해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공공공간의 수준 높은 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 범죄 감소 및 예방 효과, 사회통합의 기능, 환경적 가치 등을 알리고 장려하기 위해 발간한 대표적인 안내서로 『공공공간에서 반사회적 행위 예방하기(Preventing anti-social behaviour in public spaces, 2004)』,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What would you do with this space?, 2004)』, 『도시공원에서 생태적 다양성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 (How to encourage biodiversity in urban parks, 2006)』, 『포괄적 디자인의 원칙 (Principles of inclusive design, 2006)』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지침서들을 출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공간(It's our space, 2007)』,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Spaceshaper, 2007)』 등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공간(It's our space-a guide for community groups working to improve public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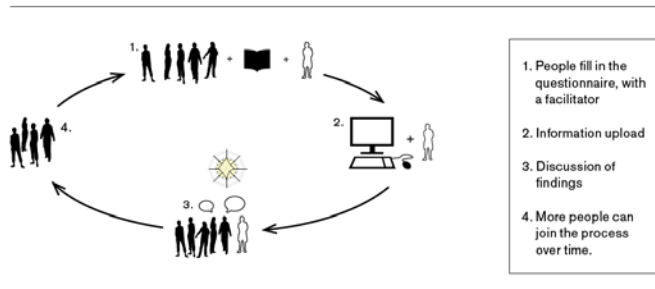
『우리의 공간』은 부제에 드러나 있듯이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담은 지침서이다. 공공공간이 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회공동체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강조한다.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디자인이 잘 된 공공공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특성과 차별성, 명확성과 경계, 연계성과 접근성, 가독성, 융통성과 안전성, 사회적 통합성, 생태적 다양성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조성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를 실제 프로젝트를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 클라이언트 팀과 역할 설정, 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설정, 주민들의 참여유도, 부지의 이해, 재정확보, 디자인 컨설턴트 정하기, 부지의 비전 개발, 프로젝트 개요 등
2. 디자인단계: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 해설, 디자인 초기의 스케치 제안서, 디테일 제안서, 관련서류 제출 등 각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즉 주요 재료, 시공 방법, 각각의 작업에 대한 견적, 설계변경 비용, 공사승인 서류 등에 대한 확인 당부
3. 작업 단계: 사업자 선정, 공사과정의 교육기회 활용, 공사시작 등에 대한 안내.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주변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확인하고 챙겨야 자료 등에 대한 내용
4. 사용단계: 개장 축하, 최종 마감 확인, 유지관리, 프로젝트 평가, 지속성 등을 다루고 있음. 특히 공동으로 즐기고 사용하는 장소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 장소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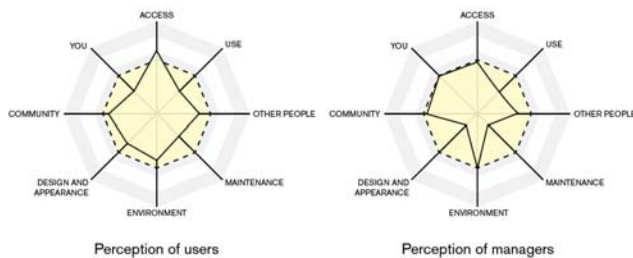
□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Spaceshaper-a user's guide)』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공공공간의 질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견학과 토론중심의 도구모음서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용자 그룹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공공공간 조성의 첫 단계인 준비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기준은 접근성, 사용, 다양성, 관리, 환경, 디자인과 모습, 커뮤니티, 개별평가 등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통해 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The Spaceshaper process



〈그림 78〉 Spaceshaper 진행과정 다이어그램(CABE, 2007)



〈그림 79〉 동일한 장소에 대해 이루어진 사용자와 관리자의 평가  
다이어그램(CABE,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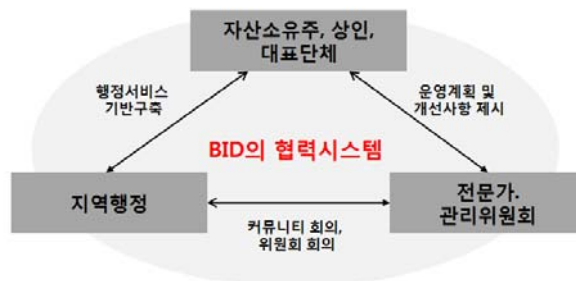
CABE SPACE에서 출간하는 다양한 보고서와 지침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며 공공공간의 조성·관리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다.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공공공간의 성공적인 조성관리는 모든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2)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up>20)</sup>

미국의 BID는 상업 및 업무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된 특별지구로, 지구 내 자산소유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포괄적인 지구정비를 하여 매상, 임대료, 자산가치의 상승을 이루고 다시 자산소유자에게 그 이익이 환원되는 상업지역 활성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성상업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 적용되어 온 수법인데, 지역공동체의 거버넌스 구축과 자체적인 재원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0년대 쇠퇴기를 맞이한 전통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구조개혁 의지에 의해 상업지역의 부활을 보장하는 세입증대안이 제안되었다. 민간의 자력구제 주창과 관리단체 조직은 BID의 민간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기틀이 되었고, BID는 많은 도시지역에 이상적인 세입증대 해결방안으로 적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BID는 국가변영과 함께 민관 파트너십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규모를 확대하지 않고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BID 지정을 장려했고, 자산소유주나 사업자는 공공재원의 지원없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재원마련과 독자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BID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도시 거버넌스에 변화를 가져온 BID의 효용성은 모든 규모의 미국 도시들과 도심부 상업지역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국의 자산 소유주들은 BID를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을 조성·지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BID는 해당 상업지역의 자산소유주 및 상인들의 발의에 의해 구성되는 기구로서, BID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활동범위 결정에 관한 주도권을 가진 민간이



〈그림 80〉 BID 협력시스템의 관계도

20) 이운용 외(2007)의 '미국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금의 형태로 나누어 마련하는 주민자치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제 BID는 지역행정의 적극적 개입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가 협력된 민관 파트너십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도시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을 고안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능률적인 프로세스를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즉, 운영주체간 상호협력은 주민자치에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BID 운영의 전 단계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문단체와 지역의 행정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BID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만들기다. 가로청소, 낙서제거, 지역순찰 활동 등은 미국 대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BID 프로그램이다. 그 밖에도 BID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범죄예방부터 기업유치, 사회복지사업, 조경관리, 중심지개선사업 등 사회·환경 및 도시디자인 사업 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구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BID는 해당 상업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산타모니카의 베이사이드 BID나 뉴욕시 34번가 파트너십은 도시디자인을 전략적으로 향상시키고자 수준 높은 가로경관 디자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표 23〉 BID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

구분	프로그램 내용
지구의 환경관리	쓰레기와 낙서제거, 보도청소, 제설작업, 잔디깎기, 식재관리
공공안전유지	안전요원, 안내요원, 전기안전장치설치, 컴퓨터화된 범죄추적시스템운영협조, 경찰과의 협동 보안계획
소비자유치 마케팅	축제개최와 이벤트 기획, 세일광고, 광고물제작, 이미지 증대 및 광고캠페인, 운전자 및 보행자 방향표지
사업체 모집 유지방안	시장조서, 시장보고 공고, 신규 확장사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투자자 마케팅
법적지원시행	보행자로 법률에 대한 원조, 택시 승차장, 스트리트퍼니처 설치기준, 건물의 기호화와 같은 이슈에 대한 시정활동지지, 공공의 행동양식 기준
주차시설 교통수단운영	공공주차 개선계획, 공공주차시설의 관리와 증진, 대합실의 유지관리, 차함깨타기 프로그램 운영,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 조경경관 가이드라인의 계획, 건물외관개선, 상점전면부 미관개선 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	홈리스 구제, 직업훈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구상
비전제시	지구의 비전 발의, 지구를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
중심지 개선사업	보행자 스케일의 거리조명 설치, 스트리트퍼니처, 가로수, 화단, 공원과 공공지역 증대

### ① 다운타운 덴버 BID 운영사례



〈그림 81〉 덴버의 다운타운 BID 위치와 부담금 조닝

덴버시 16번가 몰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몰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2년 시당국은 10년간 다운타운 덴버 BID의 지정을 승인하였다. 제도적 근거 하에, 덴버시의 다운타운 BID는 보행몰과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상점, 레스토랑, 공공이벤트를 연계한 도시재생계획을 추진하였고 재원조달, 거버넌스, 부담금 등 운영방식에서 유동적인 체계로 몰을 관리하였다. 또한, 몰과는 떨어져 있지만 BID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에도 자산소유주들의 요청으로 직접적인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몰관리의 성공은 2001년 자산소유주들이 BID 서비스를 10년 연장하여 갱신을 승인받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림 82〉 덴버의 다운타운 몰, 몰 중심부의 휴게공간과 거리 카페 모습

다운타운 덴버 BID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기성 시가지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청소와 몰 유지관리, 지구 내 치안서비스, 중심지역 정비사업,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공공공간 관리, 14번가 가로경관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BID는 덴버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시설을 중복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운타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운타운 덴버 BID의 관리위원회는 시장에 의해 임명되고, 시의회가 승인된 7명의 유권자로 구성된다. 다운타운 덴버 BID는 지구의 운영과 관리를 다운타운 덴버 파트너십에 계약 위탁하고 있다. 이 기구는 다운타운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약 500여개에 이르는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지구 내 빈 건물들을 매각하고,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비영리단체이다.



〈그림 83〉 다운타운 덴버 파트너십의 구성도

다운타운 덴버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다운타운 덴버(Downtown Denver Inc. DDI)와 덴버시빅벤처(Denver Civic Ventures, DVC), 다운타운덴버이벤트(Downtown Denver Events, DDE)가 운영되고 있다. DDI는 경제문제, 조세정책, 운송수단운영 등을 포함하여 다운타운덴버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경영하고, DVC는 자원개발, 주거정책지지, 디자인과 계획, 사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운타운과 관련된 각각의 사업분야를 다운타운 덴버 파트너십이 총괄하는 체계속에서, BID는 다운타운을 활성화하는 직접적인 방안들을 실행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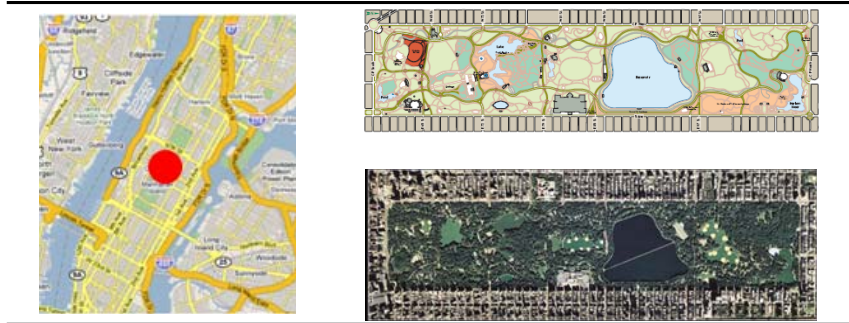
다운타운 덴버 BID는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몰과 관련된 활동과 지구 전체의 활동으로 분류하고, 두 가지 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에 근거하여 지구를 12개 존으로 구분하여 부담금을 적용하고 있다. 16번가 몰과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위치에 따른 복합적인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식은 BID가 지역의 요구에 어떻게 상응하며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 (3) 뉴욕시 센트럴 파크 운영 관리<sup>21)</sup>

- 위치 : 뉴욕 맨해튼 중심부

21) CPC에 관한 내용은 서울 그린트러스트 (2006)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 개발 : 뉴욕 도시계획국
- 관리 : CPC(Central Park Conservancy)



〈그림 84〉 센트럴 파크의 위치와 배치(ww.centralparknyc.org)

센트럴 파크는 뉴욕의 중심부, 초고층 건물들이 대규모 군을 이루고 있는 맨해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약 343ha의 대지에 남북으로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를 가진 미국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매년 2,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19세기 뉴욕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상하수도, 의료, 보건, 주택, 교통 등의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정부관리들과 자본가들은 도시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과거에 무계획적으로 세워진 도시를 정비하고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뉴욕시는 공원법을 통과시켰고, 사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도시를 숨쉬게 하고자 하였다. 센트럴 파크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1853년 뉴욕주 의회가 맨해튼 한가운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계획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계획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센트럴 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복구해온 주체는 CPC(센트럴 파크 컨서번시)라는 조직이다. CPC는 1980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로 공원의 관리와 복구, 주요 공원자산 증진을 위한 기금 모금, 자원봉사자와 방문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 설립 후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원자산 복원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운영협약을 뉴욕시와 체결하여 민간-공공 파트너십에 의한 도심 공원관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CPC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민간기금에 의한 공원관리

CPC는 1980년 설립된 이래 오늘날까지 총 3억 달러의 민간기금을 조성하였으

며, 공원을 복원하기 위해 7,000만달러를 넘게 지출하였다. 1993년에 컨서번시 위원회는 센트럴 파크의 복원을 위해 17,00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운영지원과 복구된 경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620만달러의 모금 운동을 계속해 왔다. 공원의 1년 운영예산인 2,000만 달러의 85% 이상을 제공하며, 조성된 기금의 80%는 직접 공원 운영관리, 조경, 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향상에 지출되고 경관 복구에 따른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 개선사업 계획

CPC는 지역사회 및 공원이용자 그룹과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모든 공원 이용자들 간의 연대와 공감대를 증진하고 있다. 컨서번시의 공원 개선사업계획은 공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사회로부터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구해 수립되며,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슈에 대하여 컨서번시를 도와 함께 일한다.

#### □ 사회교육 및 고용기회 증대

컨서번시 공공프로그램은 센트럴 파크에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이용, 환경과학과 공원역사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 가족, 사회구성단체, 그리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청소년과 어른을 대상으로 원내나 공원 안내 서비스 관련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그 외에도 일년 내내 공원 전체에서 수많은 무료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러한 행사는 컨서번시에 의해 운영되는 방문자 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5〉 센트럴 파크의 다양한 모습([www.centralparknyc.org](http://www.centralparknyc.org))

## 2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시 내 공공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의 외부공간이 아니다. 도시의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는 사회적인 공간이며, 산 교육의 장이고,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적공간으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살펴본 공공공간의 사례들은 공공공간의 이러한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변하는 현시대를 반영하는 사례들로,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공공공간 범위의 확장과 다양화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생활행태와 요구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 도시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동수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자동차 중심의 공간을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더 넓은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네트워크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도시 내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그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위한 공공공간이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데, 수변공간이나 산업이적지, 쓰레기 매립지 등이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놀이 공간으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지하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지하상가나 지하철 역사와 같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공공공간이 조성되기도 한다.

한편 기존의 공공공간은 대부분 공적영역인데 반해, 최근에는 사적영역 안에 조성되는 공공공간이 점차 늘고 있다. 재개발이 어려운 기성도시에 공공공간 확보를 위해 제정한 공개공지 제도나 대기업의 기증으로 조성되는 공공공간, 쇼핑몰이나 녹지공간으로 이용되는 백화점 옥상과 같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공간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현대 도시에는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공공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시민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공공공간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 공공공간 이용가치의 극대화

덴마크의 도시설계가 얀겔(Jan Gehl)은 전통적인 공공공간의 이용 방식을 크게 세 종류, 즉 만남의 장소, 장터 그리고 교통공간으로 분류하였다(Jan Gehl 외, 2000).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소통과 교역, 교

통의 기능이외에 여가나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고, 주변 상황이나 시간과 계절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계절과 시간에 따른 시민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한 공간 안에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여름에는 비치파라솔이 있던 자리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조성되는가 하면, 밤시간대의 이용을 고려한 야간조명 계획도 활발하다. 보행공간과 휴식공간이 공존하고 놀이와 이벤트가 함께 이루어지는 가로나 공원, 광장의 예도 많다.

공공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장소이다. 공공공간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가능한 활동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노약자와 장애인,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가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의 마련 역시 공공공간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공간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획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역특성과 문화, 구성원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정성, 쾌적성과 편리성, 지속가능성과 심미성 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물리적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기존의 공공공간은 공공기관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최근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공간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조성된 공공공간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공공간에 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관리·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성이 높다.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민간이 조성하는 공공공간 중 대표적인 것이 공개공지이다. 공개공지 제도로 확보된 공공공간은 민간 자본이 조성하기 때문에 소유주의 경제적인 이익의 측면이 강조되기도 하나, 베를린 시의 포츠다머 플라츠와 같이 지자체와의 협의에 의해 공적 영역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졌을 경우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민관 파트너십으로 조성되는 공공공간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도시에서 공공영역의 조성사업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거나 협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시가 쇠퇴하거나 시의 예산부족으로 공공에서 필요한 공공공간의 확보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민간투자나 민관 협력으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데,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공공간 조성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 장소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성된 공공공간은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조성 이후 관리 측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제 구축

한 도시의 구조적인 틀을 제공하는 도시의 공공공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지형과 용도, 교통 등 주변상황에 따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접목되어 있으며, 그 기능이 시대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도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통합 계획이 전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공공공간 조성 사업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공공공간의 통합 계획은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에서 출발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 계획을 전담하는 거버넌스에서 자문, 연구, 교육, 홍보, 시민참여 유도 등을 전담하는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체제가 있다.

#### □ 지속적 관리·운영 및 교육

공공공간의 조성만큼이나 조성된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은 질 높은 도시공간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많은 도시에서는 관에서 주도하던 관리와 운영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주도형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각 도시가 가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간을 사용하는 실수요자가 직접 운영 자본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직접 관리와 운영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 전략 제시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공공공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공공공간의 조성 관리·유지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 V.

## 결론

1. 연구요약 및 한계
2.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 (a u r

# 결론

## 1

### 연구요약 및 한계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기반시설과 주택 등의 양적 확충에만 치우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환경과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공간에서 공공부문 또는 공공공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질적인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에 대한 공유된 개념과 정책방향이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노력들은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공공공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먼저 모호하게 사용되는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여 향후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국내 공공공간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고 현재 공공공간의 구성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해 향후 진행해야 할 연구 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개념을 살펴보고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의 범위,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였다. 이제까지

도시공간을 공유지에 근거한 공적 공간과 사유지에 근거한 사적공간으로 나누고, 이 가운데 ‘개방적인 공적 공간’과 ‘개방적인 사적 공간’을 합쳐 공공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공간적 특성과 소유에 따라 공간의 성격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면서 도시공간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와 함께 공공공간에 대한 확장된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이 갖는 다양한 속성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 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이라 잠정적으로 정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공간의 조성과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공간 관련 법규 및 계획체계를 살펴보고,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과 추진 사업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관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공급, 체계적이지 못한 공공공간 관리와 운영 방식,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 계획의 부족 등을 확인하였다.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공공공간의 개선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공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찾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외 우수한 공공공간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사례, 공공공간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한 사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사례, 통합적 계획과 지원체제를 구축한 사례, 지속적 관리·운영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사례.

이러한 국내외 공공공간 관련 사례의 유형은 단순히 구분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도시 공공공간의 향상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향이며, 동시에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 연구의 주제이다.

이 연구는 공공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초적인 개념정립,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와 조직,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현황 분석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에 비해 공공공간의 질적 평가와 분석, 이용자의 만족도나 이용실태, 실제 공공공간 조성 및 운영 관리자에 대한 조사 등과 같은 실질적인 실태 파악에 대해서 다루지 않아 이 연구의 한계라 말할 수 있다. 또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 2

### 정책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개선과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공공공간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공간 활용에 대한 다각적 고려와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공간의 범위 확장과 개념의 다양화
- 공공공간 이용 가치의 극대화
- 파트너십에 의한 공공공간 조성
- 통합적 계획 및 지원체제 구축
- 지속적 관리 및 운영 교육

향후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추진 전략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공공공간은 유기체와도 같다. 즉, 공공공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혈관과 주요 장기로 이루어진 정교한 조직체로서 지속적인 생성과 성장, 소멸과정을 통해 도시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러한 유기체의 특징은 한 군데가 아무리 왕성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다른 한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리고 공공공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도시 또한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공간을 다룰 때는 정치적 성과품으로 기록될 수 있는 단위 프로젝트 중심, 일회성 이벤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전체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시의 체질 개선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1

공공공간 관련 법규

· 부록2

지자체 공공공간 관련 사업 목록

( a u r i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4, 「한평공원 만들기」

견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6, 「우리가 함께 만든 성서 한평공원」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2001,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성각

공공작업소심심; 전주청소년문화예술교육단, 2007, 「하늘정원 만들기」

김기호; 문국현, 2006,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

김아연, 2006, "지하세계의 미학", 「LAnD」, 도서출판 조경

김영종, 1995, 「행정철학」, 법문사

박영사 편집부, 1989, 「정치학사전」, 박영사

울신지역혁신아카데미, 2007, 「살고싶은도시 울산만들기 토론회 자료」

서울그린트러스트, 2006,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원문화」

서울그린트러스트, 2008, 「2007 우리동네숲 리포트」

서울그린트러스트, 2008, 「2007 우리동네숲 조성사업 최종보고서」

서울시정연구원, 2001,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

이유주현, 2007, “공공성이란 가치의 실현”, 「텍스트로 만나는 조경」, 나무도시

이희승, 1997,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찰스 월드하임 저, 김영민 역, 2007, 「랜즈케이프 어바니즘」, 도서출판 조경

황기원, 1994, “도시어메니티” , 「서울 21세기 구상 워크숍」

## 2) 연구보고서

도시발전연구소, 1994, 「부산어메니티플랜 요약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도시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유희도로 공간을 활용한 녹지 확충 방안 및 보행환경 개선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시범가로 시행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보행우선지구제도 운영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해외 대도시의 공개공지 제도 운영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보도설치기준 국제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서울시민의 모바일 생활양식과 공공공간의 변화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서울특별시, 2001, 「기성상업지 환경개선 도시설계 : 주민과 함께하는 거리 가꾸기」

서울특별시, 2004,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 디자인」

이강오; 윤유미, 2008, 「우리들의 고향 서울을 위하여」, 서울그린트러스트

한국도시설계학회, 2006, 「기업과 함께하는 가로경관과 도시문화 향상을 위한 건물 전면 공간 활용방안 연구」

### 3) 학위논문

강욱, 2003, 「현대도시에서의 공공성(Public) 및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재해석을 통한 디자인 접근에 관한 연구:현대 도시에서 확장된 의미로서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기환, 2005, 「현대 건축에서 공공영역 구축방식과 도시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세용, 1997, 「도시공공공간의 쾌적도의 정량적 분석 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익, 2006, 「도심부 가로 보행공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찬규, 1990, 「도시오픈스페이스 체계의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인호, 2005, 「도시 집합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영역의 양상-장-장치-사람을 매개로 보는 공공공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장원, 2002, 「도시가로 보행자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종우, 2000, 「공공 공간의 도시적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연, 2006,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공간시설 구성에 관한 연구 :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지, 2003, 「도심 복합용도 건물 내부광장의 공공성 분석에 관한 연구: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비, 1998, 「도시건축공간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 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미, 1997, 「도시 건축물의 공공 공간 디자인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숙현, 2002, 「도심의 공공 공간으로서의 보행자전용가로 모형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석, 1994, 「건축 외부공간의 공공성분석을 통한 협력형 도시공간설계 접근방안: 서울시 고층 오피스빌딩의 공개공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민정, 2007, 「서울시 고층 주거복합 단지 내 공개공지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학술지논문

- 김광현 외 3명, 2002, “현대주거의 공공 공간의 유형과 공동체 성격에 관한 연구: 유로판 5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8(5), pp.65-72
- 김기호, 2003,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설계: 프로젝트 단위의 민간 비영리 조직 설립의 필요성”, 「환경논총」, v.41, pp.79-98
- 김다은; 김영옥, 2005, “전통마을과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 비교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81-289
- 김대익; 이을규, 2000, “공공건축물 외부공간의 지원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6(10), pp.11-20
- 김도년; 배웅규, 2003, “기성시가지 상업지의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기법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9(9), pp.61-68
- 김세용, 1998, “도시 공공공간의 쾌적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4(12), pp.195-203
- 김세용, 1999, “도시설계지구의 공개공지관련 인센티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5(8), pp.141-149
- 김세용; 양동양, 1997, “도시공공공간의 쾌적성 형성인자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3(6) pp.141-150
- 김세용; 양동양, 1997,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32(1), pp.53-68

박선영; 최종현, 2003, “도심 공공공간의 확장/변화 과정과 공간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46-355

서인호, 2004, “도시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사적 영역의 형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4(2), pp.797-800

손종우; 김광현, 1999, “공공 공간의 도시적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9(2), pp.433-438

양석우, 2007,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3(6), pp.209-221

양승정; 박용환, 2005, “길의 구조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v.21(7), pp. 39-48

윤영환; 이기의; 박봉우; 조현길, 1990, “한국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민가정원양식”, 「한국조경학회지」, 18(2), pp.95-110

윤지혜, 2005, “도시공간에서의 실내공개공지의 필요성과 공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창립60주년 기념) 논문집」, v.25(1), pp.385-388

윤한섭; 김성홍, 2003, “테헤란로 고층사무소 건물 저층부의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19(3), pp.3-10

이경생; 이영수, 2006, “도시의 내부화 요소와 커뮤니티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321-324

이석정; 차주영, 2000, “에쓰링엔시 중앙역 상점거리 디자인”, 「도시설계」 v.1, pp.98-108

이영웅, 1995, “공적공간의 개념과 정비 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30(5), pp.5-26

이운용; 김민경; 이정형, 2007 “미국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BID에 관한 연구-다운타운 텐버 BID를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95-204.

이정형; 김진욱, 2005 “가로블록 구성방식에 따른 가로공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1(8), pp.177-186

이주영, 2007, “도심재생을 통한 현대 공공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25-238

이훈길; 이주형, 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pp.527-540

임종엽, 2006, “가변형 거주공간에서 나타나는 공공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2(11), pp.29-36

장경철 외 2인, 2006,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공간 확충에 대한 연구 - 독립적인 전문설계조직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22(12), pp.249-258

조대성 외 4명, 1989,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지각 이용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심지 소규모 공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5(3), pp.15-27

## 5) 정기간행물

- 강동진, 2005, “광복로의 광복 : 아름답고 활기찬 광복로 가꾸기 국제현상공모”, 「도시설계학회 Urban Review」v.9, pp.13-18
- 김정후, 2007, “케이브와 21세기 영국 공공공간 정책의 시사점”, 「국토」, v.313, pp.104-116
- 윤혁경, 2007, “주민참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확보», 「건축」, v.51(9), pp.38-39
- 이호열, 2007, “영주 선비촌과 김해 가야의 거리”, 「건축」, V.51(5), pp.41-45
- 정석, 2007, “한국도시공간의 디자인 실태와 개선방향”, 「국토」, v.309, pp.27-38

## 6) 기타

- 김세용, 1999, “공개공지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경실련 주최 세미나 발표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발표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근린생활권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발표회
- 서울특별시 주택국, 2006,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 울산광역시, 2005, 「태화강변 경관계획수립 종합보고서」

## 2. 해외문헌

### 1) 단행본

Anastasia, L., 1993, “Privatisation of Public Open Area” ,「Town Planning Review」,  
v.64(2)

Atelier Parisien d'Urbanism, 2002,「Charte D'aménagement des Espaces Civilisés」

Benites, Cecilia; Clare Lyster eds., 2005, 「306090 09, Regarding Public Space」,  
306090, Architectural Journal, v.9

Boyer, Annie, 2001, 「Aménager les Espaces Publics」, Le Moniteur

Broadbent, Geoffrey, 1990, 「Emerging Concepts in Urban Space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CABE, 2003, 「Make Space」

CABE, 2003, 「New Localisms and Community Engagement: What It Means for  
Public Space Quality」

CABE, 2003, 「Parks and Squares: Who Cares?」

CABE, 2004, 「Manifesto for Better Public Spaces」

CABE, 2004, 「The Value of Public Space」

- CABE, 2005, 「Making Design Policy Work」
- CABE, 2007, 「It's Our Space: a Guide for Community Groups Working to Improve Public Space」
- Carr, Stephen, 1992, 「Public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se, John; Margaret Crawford; John Kaliski eds. 1999, 「Everyday Urbanism」, Monacelli Press
- Dixon, John Morris ed., 1999, 「Urban Spaces」, Visual Reference
- DREIF/DIT, 2002, 「Elaborer un Plan Local de Deplacements」, Codra
- Gehl, Jan, 2001, 「Life Between Buildings」,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 Gehl, Jan; Lars Gemzoe, 2000, 「New City Space」,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 Glazer, Nathan; Mark Lilla, 1987, "The American Public Space", 「The Public Face of Architecture」, The Free Press
- Huchison, Ray ed., 2000, 「Constructions of Urban Space」, Jai Press
- Jackson, J.B., 1984, "The origin of Parks",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Yale University Press
- Kayden, Jerold S. 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John Wiley & Sons

- Krier, Rob 1979, 「Urban Space」, Rizzoli,
- Lang, Jon, 1994, 「Urban Design: The American Experience」, Van Nostrand Reinhold
- Lim, Carol, 2003, 「River of Life The Quays to Good Life」, URA
- Low, Setha, 2006,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Routledge
- Lyoncapitale, 2002, 「Lyon, ville lumiere」, Lyoncapitale
- Marcus, C.C., and Francis, C. eds., 1998, 「People Places; Design Guidelines for Urban Open Space」, John Wiley & Sons
- Miller, Kristine F., 2007, 「Designs on Public-The Privates Lives of New York's Public Spac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arbonu, Roger, 1997, 「La Lumiere Urbanine」, Le Monteur
- Ota, Yukio, 1989, 「Sign Communication Design」, Kasiwashobo
- PPS, 2000, 「How to Turn a Place」
- PPS, 2000, 「Placemaking with Project for Public Spaces」
- Rubenstein, Harvey M., 1992, 「Pedestrian Malls, Streetscapes and Urban Space」 John Wiley & Sons
- Starkman, Nathan 1993, 「Paris Projet」, No. 30-31, Editions BRES

Texier, Simon, 2006, 「Voies Publiques」, Picard

URA, 2002, 「Old World Charm」

URA, 2002, 「Parks & Waterbodies Plan and Rustic Coast」

URA, 2002, 「Urban Villages and Southern Ridges & Hillside Villages」

Zukin, Sharon, 1995, 「The Culture of Cities」, Blackwell Publisher INC

## 2) 학위논문

차주영, 2005, 「Statbild Bei Nacht Als Gestaltungsaufgabe」, 슈트트가르트대학 박사학  
위논문

## 3. 웹사이트

<http://3-meals.com/wp-content/uploads/2007/06/chinatown.jpg>

<http://maps.google.com>

[http://www.jimlei.com/images/photo\\_ir006.jpg](http://www.jimlei.com/images/photo_ir006.jpg)

[www.centralparknyc.org](http://www.centralparknyc.org)

[www.bryantpark.org](http://www.bryantpark.org)

[www.marunouchi.com](http://www.marunouchi.com)

[www.nyc.gov/html/dcp](http://www.nyc.gov/html/dcp)

[www.pps.org](http://www.pps.org)

[www.rockefellercenter.com](http://www.rockefellercenter.com)

[www.ura.gov.sg](http://www.ura.gov.sg)

summary

## A Study on the Concept and Current Issues of Urban Public Space

Lee, Sang Min  
Tchah, Chu Young  
Lim, Yoo Kyoung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Recently, people have begun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public space and the role of public sector in urban space. Furthermore, effor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quality. However, the concept or scope of public space still remains obscure and unclear. Accordingly, it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stud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based on that, identify the current status, thus establish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e purposes of the study can be rough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studies on public space and establishment of relevant policies by clarifying the obscur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by clearly defining the scope. Secondly, to analyze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on public space, and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public space being created, operated and managed, thereby diagnosing the problems. And lastly, based on that, to present directions to future studie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pace.

### 2. Concept and Scope of Public Space

Public space includes an open space within a land lot and the inner space of a building, as well as outer spaces such as pathways and squares. In other words, a private space in terms of ownership can be regarded as a public space if used by the general public. In this sense, public

space is an urban space realizing the public interest. Here, the public interest is a relative concept, defined according to the sense of values of the members of a society since it represents values that are judged to be desirable and beneficial to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it is noted that the main actors and functions of public space significantly changed over time from the modern to the contemporary age.

As the society becomes complicated and diverse, urban space is increasingly required to carry out multiple functions. In particular, public space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ex due to a number of different interactions involving a variety of people.

Basically, to understand public space, urban space has been divided into a public space based on the land for common use, and a private space based on the private land. Of them, an 'open public space' and an 'open private space' have been understood as public space. However, recently, it is noted that the nature and scope of a space significantly differ depending on spatial characteristics and ownership, and this causes diverse types of public space to emerge. Hence, a flexible system is required under which urban space can be comprehensively planned and managed while being kept self-regulating. Coupled with this, an extended definition is required for the public space.

While admitting to the difficulty in coming up with a simple definition, the study is based on the tentative definition of the public space as a 'space that is open to the public (openness),

provides convenience and benefits to the public (public services), and triggers a variety of activities and communication (intermediary and dynamics).'

### **3. Public Space-related Systems and Current Status**

Laws dealing with public space are categorized into urban infrastructure-related, building-related and housing complex-related laws, which are immense and complicated. The complexity and inefficiency pose obstacles to create an integrated urban space and landscape. In particular, the laws are fundamentally limited in cross-referencing, consequently making it impossible to create an integrated public space.

In terms of planning, all the plans including urban master plans, urban management plans and landscape plans do deal with public space. However, they fail to go beyond basic directions or concept, and does not approach public space at the entire city level or take into account the linkage between different spaces or facilities at all.

With the inten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 space nationwide, the study has analyzed public space-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results reveal several problems as follows: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the supply of public space is uniform and unilateral led by the state.

To be specific, most of the public space is being created through pilot projects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projects unilaterally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public space is an environment where people lead their daily life, and therefore, the current state-led form of project promotion is limited i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space.

Secondly, the methods of managing and operating public space are not systematic. Recently, several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y are trying out an integrated and scientific management.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ore advanced management system for unifying the ordering parties for public project implementation, for instance. In addition, given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growing for a majority of projects, it is essential to streamline the method of participating citizens in the projects.

And lastly, the lack of integrated planning for public space is problematic. It is considered that it is time to prepare integrated planning for public space by local governments, which can connect pilot projects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private-led small spaces, instead of project expansion. In additio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by diverse players to have continuity, it is important to provide guidelines and make a list of the facilities at the urban level.

#### **4. Case Studies of Public Spac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 a view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untry's urban public space, the study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emplary cases of public space development.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as follows:

First, the study investigates the cases that have successfully extended and diversified the concept of public space: the open public land of New York, the New State Art Museum of Stuttgart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pedestrian road expansion and networking, and the waterfront development of Singapore which has newly created a public space throug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econdly, the study examines the cases that have succeeded in maximizing the use value of public space: the square in front of the City Hall of Paris which is differently utilized every season, the Espaces Civilisés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the Boulevard Clichy-Rochechouart street of Paris geared towards co-existence of different users, and the Cafe Street of Jeongja-dong, Bundang that has been naturally created by the merchants from the neighborhood.

Third, the study explores the cases of public space creation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Bryant Park and the Rockefeller Center of New York developed with private capital, the Marunouchi of Tokyo where an open public land has been created through public-private

consultations, and the commercial street in front of the Main Station in Esslingen a.N.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Fourth, it looks into the cases of integrated planning and supporting system construction: public space-related policies and planning of Lyon, the governance system of Lyon City, and the supporting systems of the CAFE of the U. K., and the PPS of the U.S..

And lastly, as the case of consistent management, operation and education, the study reviews the BID of the U. S., and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ew York Central Park. Also, it examines the education system of the CAFE SPACE that are aimed to secure participants and attract active participation.

The implications from the case studie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space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ontemporary cities, there exists much public space that does not come under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In order to flexibly accommodate the space, what has to be done first is to build a consensus on public space, and then improvement of existing systems.

Second, public space should be planned and designed taking into account various aspects, and in particular, it should entail diverse programs and physical planning to reflect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Third, public space develope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on the rise in recent years. The degree of utilization and consistency of management and operation can be greater than the state-led public space.

Fourth, integrated planning for public space should be prepared based on policies for the future image of a city, and on concrete strategies for the implementation, which should be reflected on the management of the city on a phased basis. In addition, in order to materialize the policy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verse supporting systems.

And lastly, in recent years, many cities are introducing citizen-led management and operation programs in order to overcome the drawbacks of the state-led management and operation. Additionally, a variety of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programs are being established in order to publicize the significance and need for public space, and attract citizen participation.

## **5. Summaries and Policy Suggestions**

The study is intended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scope of public space that is currently used vaguely, analyze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involving public space, and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for public space management and operation. The purpose is to diagnose the problems and present basic directions to improving urban public space.

For achieving fundamental improvement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public space, it is crucial to establish the concept that match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lay the foundation for multi-dimensional consideration of public space utiliz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of different actors. To this end, the study intends to present the follow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public space scope, increase of the public space use value to a maximum, public space creation through partnership, integrated planning and supporting.

**keyword : Urban Public Space, openness, publicity, public-private partnership, integrated planning, supporting systems**

부록 1.

## 공공공간 관련 법규

# 1.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규

## 1)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2007.1.1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li> <li>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li> <li>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li> <li>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li> <li>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기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li> </ol> </li> <li>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li> <li>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li> <li>나. 관정·공원·녹지 등 공간시설</li> <li>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공시설</li> <li>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li> <li>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li> <li>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li> <li>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li> </ol> </li> <li>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li> <li>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li> </ol>	<p>제2조 (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05.9.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레도·식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 학원</li> <li>2. 공간시설 : 관정·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li> <li>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통저장 및 송유설비</li> <li>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li> <li>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li> <li>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도시설</li> <li>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li> </ol> <p>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관정은 다음 각호 1. 도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일반도로</li> <li>나. 자동차전용도로</li> <li>다. 보행자전용도로</li> <li>라. 자전거전용도로</li> <li>마. 고가도로</li> <li>바. 지하도로</li> </ol> <p>2. 자동차정류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여객자동차터미널</li> <li>나. 화물터미널</li> <li>다. 공항차고지</li> </ol> <p>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3. 광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교통광장</li> </o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p> <p>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p> <p>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p> <p>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p> <p>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p> <p>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p> <p>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p> <p>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p> <p>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0. 삭제 (2006.1.11)</p>	<p>나. 일반관광지</p> <p>다. 경관관광지</p> <p>라. 지하관광지</p> <p>마. 건축물부설관광지</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3조 (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lt;개정 2006.3.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 있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운하·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li> <li>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운동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회정장·공동묘지·납골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li> </ol>

## 2) 도시공원 및 녹지

###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li> <li>나. 도시자연공원구역</li> <li>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li> </ul> </li> <li>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li> <li>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 또는 광장</li> <li>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li> <li>다. 휴게소·긴 의자 등 휴양시설</li> <li>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흥시설</li> <li>마. 테니스장·수영장·군도장 등 운동시설</li> <li>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li> <li>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li> <li>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li> </ul> </li> <li>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li> <li>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li> </ol>	<p>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p> <p>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규도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p> <p>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합될 수 있도록 해당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오락, 재해방지·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3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p> <p>④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적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도시공원의 경계는 급경사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p>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다음 각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li> <li>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li> <li>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li> <li>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li> <li>5.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li> <li>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li> <li>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li> <li>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주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li> </ol>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이를 조성한다.</p>
<p>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는 다음 각 목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li> <li>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li> <li>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li> </ul> </li> <li>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li> <li>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li> <li>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li> </ul> </li> </ol>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공원</p> <p>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p> <p>②제1항 각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2)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p> <p>나. 도시자연공원구역</p> <p>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p> <p>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p> <p>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p> <p>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로 또는 광장</p> <p>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p> <p>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p> <p>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p> <p>마. 테니스장·수영장·공도장 등 운동시설</p> <p>바. 식물원·동물원·수목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p> <p>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p> <p>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p> <p>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p>	<p>제25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p> <p>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p> <p>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 (3)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 · 잔디 · 꽃 · 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p> <p>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 · 물 ·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 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p> <p>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 분수 ·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 미끄럼틀 등 유흥시설</p>	<p>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는 법 제3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p> <p>1. 주로 공장 · 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 소음 · 진동 · 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동향과 지형 ·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은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p> <p>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 등 특히 조용한 환경이어야 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을 심는 등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 "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대책 또는 사람 · 말 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 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 에 의한 나무 또는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2. 주로 철도 · 고속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 소음 ·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지형 · 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p> <p>가. 해당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마. 테니스장·수영장·국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관·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p> <p>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p> <p>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해당원인시설 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다. 고수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라.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전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형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해당지역 주변 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 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할 것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정시설(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지목의 규정에 의한 조정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면 적 이내로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녹지공간과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결녹지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결녹지는 다음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2)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3)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기포(기포)공원이 되도록 할 것 나.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하고 녹지 물(도시계획시설면적분의 녹지면적을 말한다)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②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③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보호지구로 지정된 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관련한 지역 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관련한 지역의 경우 4.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p>

제35조 (녹지의 세분)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선형)의 녹지

#### (4)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는 시·도청이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라 한다.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지역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간변화에 관한 사항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축(축)과 망(망)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도시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5)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 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있는 전체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해당도시공원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p> <p>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p> <p>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로 또는 광장</p> <p>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p> <p>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p> <p>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p> <p>마. 식물원·동물원·수목관·박물관·아외음악당 등 운동시설</p> <p>바. 테니스장·수영장·공도장 등 운동시설</p> <p>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p> <p>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p> <p>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p> <p>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p> <p>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p>	<p>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p> <p>2.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일 것</p> <p>3.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 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 미만일 것</p> <p>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p> <p>1.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p> <p>2. 편의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장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p> <p>3. 편의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p> <p>4.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p> <p>5.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p> <p>6. 운동시설 중 볼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자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면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p> <p>7.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p> <p>8. 교양시설 중 보육시설 : 1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p> <p>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p> <p>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문화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회관·보육시설 및 운동시설은 해당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p> <p>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⑦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운동시설 중 볼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인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lt;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li> <li>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li> <li>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li> <li>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li> <li>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제가 정하는 시설</li> <li>6. 도토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계시설</li> <li>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li> <li>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li> <li>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제가 정하는 시설</li> <li>10. 유선위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li> <li>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li> <li>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li> <li>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li> <li>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li> <li>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li> <li>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li> <li>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li> </ol>	<p>제6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의 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의 시설</li> <li>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의 시설</li> </ol> <p>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전문개정 2006.11.9]</p>
<p>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6.4.28&gt;</p>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화장과 조화되는 화장·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p> <p>④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9.27)</p> <p>⑤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p>	

### 3) 도로

#### (1) 일반도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제9조 (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12.3, 2005.10.7)</p> <p>1. 사용 및 형태별 구분</p> <p>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p> <p>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p> <p>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p> <p>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미터(길이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p> <p>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p> <p>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규모별 구분</p> <p>가. 광도</p> <p>(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p> <p>(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p> <p>(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p> <p>나. 대도</p> <p>(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p> <p>(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p>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축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축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도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연석의 양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면과 곡선으로 접속처리가 될 것

3.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예관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구분	보도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의 도로	1.50
간선도로	3.00
집산도로	2.25
도시지역의 도로	1.50

④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도의 폭에 다음 각호의 폭을 더한 값으로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주변지장을 등으로 인하여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1>

1.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 : 1미터

2. 노상시설이 가로수외의 시설인 경우 : 0.5미터

## (2) 보행자도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정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녹지·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행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절한 위치에 화강질·공중진화·우관함·긴의자·차량시설·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공원장·휴식공간·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정차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시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기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류도로법」에 의한 유류도로 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9. "보도"라 함은 여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길가정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길가정자리 부분을 말한다. 11.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2.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9.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정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정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정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통학·신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21조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 표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第11條 (자전거駐車場の設置・ 운영) 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용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2006.7.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4) 기타

### (1) 광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49조 (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5.7.1>
-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정(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 (3) 주간선도로의 교차점인 경우에는 점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 다. 주요시설광장
-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1)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 (3) 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 나. 근린광장
- (1)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할 것
  -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3) 시·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시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제51조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것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고·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저감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절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간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간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주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를 시용할 것

## (2) 공공공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간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평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 (3) 하천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①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계획홍수량(재방·댐·저류지·침투조절지·방수로 등

하천법시행령	하천법
<p>의 홍수범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한 홍수량으로서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들에 필요한 양(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에 말한다. &lt;신설 2004.7.20&gt;</p> <p>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라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lt;개정 2004.7.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li> <li>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 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li> <li>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li> <li>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li> </ol> <p>제6조 (연안구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구역 또는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구역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관리청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중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저류지가 필요한 지역에 연안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4.7.20&gt;</p>	<p>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5.7.13&gt;</p> <p>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01.1.16, 2004.7.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점,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li> <li>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li> <li>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이하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축의 토지를 말한다))</li> <li>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기동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li> </ol> </li> </ol> <p>(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동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 · 하구둑 · 제방 · 호안 · 수제 · 보 · 갈문 · 수문 · 수로터널 · 운하 · 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li> <li>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 · 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li> <li>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 · 수위 · 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찰 · 측정 ·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li> </ol> <p>②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li> <li>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li> <li>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li> </ol> <p>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공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p>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4.1.20&gt;</p> <p>③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lt;신설 2004.1.20&gt;</p> <p>④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p> <p>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04.1.20&gt;</p> <p>⑥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lt;개정 2004.1.20&gt;</p> <p>⑦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 (4)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p>제118조 (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li> <li>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li> </ol> <p>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lt;개정 2004.1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li> <li>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li> <li>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지동차문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li> <li>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li> </ol>

## (5) 위원회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위원회)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7조 (위원회의 결정기준) 위원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1.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계곡·호수·하천·비대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위원회의 소음권에 주거지·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위원회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9. 위원회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제58조 (위원회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위원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05.7.1>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4. 위원회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의 범위인에서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위원회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인에서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6. 위원회조성계획에 의한 위원회 총면적의 일부면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당 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 ② 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회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 유희시설 : 빗데리카·스키이씨아를·미니스포츠키·밤바카 등 주행형시설, 다림쥬·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번지점프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화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 과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아구연습장·탁구장·공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고·잔고·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 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누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아우회장·청소년수련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룡장·예식장·마관장(외발매스)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장·전열관·조각·아외음악당·아외극장·온실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 편의시설 : 전망대 · 매점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악감상실 · 일반목욕장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 사잔관 · 악국 · 간의의료시설 · 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로 · 주차장 · 상도 · 쓰레기처리장 · 관리사무소 · 화장실 · 화장실 · 안내표지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 ③유원지인에서의 안락침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 · 주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 ⑤유원지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 · 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 2005.7.1>

## (6) 운동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종합운동장(국재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

- 제92조 (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 · 유통상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건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 · 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시 · 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제93조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 · 군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할 것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 가. 관중석
    - 나.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 창고 · 매점 · 안내소 · 조명시설 · 급수시설 · 배수시설 · 방수시설 · 각종 표지판 · 쓰레기장
    - 다. 편의시설 : 주차장 · 휴게실 · 매점 · 휴게음식점 · 탈의실 · 욕실 · 화장실
- ②운동장에는 운동장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③다음 각호의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의 경우에는 당해 수익시설을 관중석 하부공간 또는 지하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12.3, 2005.7.1>

1.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2.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1. 공연장, 집회장(예식장·회의장), 전시장(미술관·과학관·기념관)
  2. 선수진료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3. 상점, 할인점·전문점 또는 소품센터. 다만, 제3항제1호의 운동장중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장의 경우에는 매장면적(할인점·전문점 또는 소품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4. 유스호스텔,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다만, 관광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운동장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12.3, 2005.7.1>

## 2. 건축물 관련 법규

### 1) 공개공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li> <li>2. 상업지역</li> <li>3. 준공업지역</li> <li>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회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li> </ol>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5.7.18, 2006.5.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판매회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각인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문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li> <li>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li> <li>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lt;개정 1999.4.30&gt;</li> <li>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간이지·파고리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li> <li>④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li> </ol>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lt;개정 1999.2.8&gt;</p> <p>[제67조에서 이동 &lt;2007.10.17&gt;]</p>	<p>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lt;개정 1995.12.30, 1999.4.30, 2006.5.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li> <li>2. 삭제 &lt;1999.4.30&gt;</li> <li>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li> </ol> <p>⑤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2000.6.27, 2003.11.29, 2005.7.18&gt;</p>

## 2) 대지안의 조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제32조 (대지안의 조정)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정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p> <p>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99.2.8]</p>	<p>제27조 (대지안의 조정)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정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개정 2002.12.26, 2003.6.30, 2005.7.18, 2005.10.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li> <li>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li> <li>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공장</li> <li>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li> <li>5. 대지에 영문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정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정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li> <li>6. 축사</li> <li>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설건축물</li> <li>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li> <li>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li> </ol> <p>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정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lt;개정 2000.6.27, 2005.6.30, 2005.7.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전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li> </ol> <p>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p> <p>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p>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p>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 ·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 · 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p> <p>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 · 승강장 등 철도운영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p> <p>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p> <p>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p> <p>[전문개정 1999.4.30]</p>

### 3)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①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 하천 · 철도 ·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개정 2007.10.17>	

### 4)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 3. 주택단지 관련 법규

#### 3) 녹지 및 휴게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p>제29조 (조경시설등)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토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피토틀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와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lt;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gt;</p> <p>②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8.8.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00세대까지는 1개소 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할 수 이상</li> <li>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것</li> <li>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0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lt;신설 1994.12.30&gt;</li> </ol>	<p>제55조 2항 (경로단 등/부속정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t;개정 2006.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li> <li>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직업 등을 위한 공원의 다목적실 [일반 거주지역의 교양(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li> <li>3.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li> </ol>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
<p>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p> <p>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li> <li>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번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li> <li>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li> </ol> <p>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p> <p>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2) 어린이 놀이터, 유아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외에 접하여 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러나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05.6.30, 2005.12.9>

1. 1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매 세대당 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2.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세마을유치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축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 ④어린이놀이터는 그 폭을 9미터(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6.8>
- ⑤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도와 내구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6.8>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 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제47조 (어린이 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제47조 (사업지역들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징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9.29, 2002.12.26, 20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제55조 4항 (경로당 등/ 유아놀이터)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0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에 보육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3조 (주민운동시설 등) 제53조 (주민운동시설) ①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상륙수를 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택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0미터(창문이나 출입구 등이 없는 축벽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9.29]

## 4. 기타

### 1) 경관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p>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이를단고 제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li> <li>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li> </ol> <p>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li> <li>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li> <li>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선 있는 요소를 기지도록 유도할 것</li> <li>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li> </ol>	<p>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동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li> <li>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li> </ol>

#### 제2장 경관계획

#####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담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p>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p> <p>제3장 경관사업</p> <p>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시설을 복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li> <li>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li> <li>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li> <li>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li> <li>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 <li>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li> </ol>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p>	<p>확보되도록 할 것</p> <p>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p> <p>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p> <p>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9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형·지세(지세), 수계(수계) 및 식생(식생) 등 자연적 여건</li> <li>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li> <li>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li> <li>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li> </ol> <p>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녹지, 가로, 수변공간(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li>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li>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1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li> <li>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li> <li>3.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정심의회</li> <li>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li> <li>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li> <li>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li> </ol>

부록 2.

## 지자체 공공공간 관련 사업 목록 (인구 30만명 이상, 2007년도 기준)

# 1.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

## 1) 서울특별시 (10,181,166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청계천 문화 프로젝트 추진-영화광장 조성 : 관수교 아래 공간	관수교 상판 하부에 전통식 스크린 설치(8m×3m) 독립영화, 여성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영상 등 상영			
청계천 문화 프로젝트 추진-청계광장 주말키페 운영 : 청계광장-삼일교(0.88km)	문화적으로 디자인된 휴게시설 설치 지원 운영시간 : 토요일 14:00 ~ 일요일 22:00, 공휴일 10:00 ~ 22:00			
청계천 문화 프로젝트 추진-판자집 테마존 조성 : 두물다리~무학교 구간	청계천의 역사 체험교육장, 관광기념품 판매소, 간이 카페 등			
도심 재창조-남북 4대 중심축 조성-역시문화거리 조성(경복궁 ~ 신창사 ~ 숭례문) 세종광장 조성	세종광장 조성 (2006 ~ 2008) - 광화문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세종로에 광장 조성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 이전 추진) - 청계천의 보행활력을 세종로를 따라 경복궁까지 연결 - 3가지 안에 대한 폭넓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 적대안 선정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활성화담당관 1축정비팀	02)2171-2622	
도심 재창조-남북 4대 중심축 조성 문화관광거리 조성 (인사동 ~ 관철동 ~ 명동)	종로구 관철동 일대의 '피아노 거리' 시설물 개·보수 및 거리공연 활성화 심각공원 조성 및 삼각천 복원 (2008 ~ 2010) 심각동 인구 휴식공원 조성, 장교동길 서쪽 보도 확장 심각공원 남측 삼각천을 실개천으로 복원 후 청계천과 연결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활성화담당관 2축정비팀	02)2171-2624	
도심 재창조-남북 4대 중심축 조성-3축 : 녹지문화거리 조성(종묘 ~ 세운상가 ~ 남산)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2008) : 189,000㎡ - 종로에서 청계천방향으로 녹지 확보(폭 70m, 길이 90m) 세운 2,3,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2013) - 종로에서 을지로까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연장(폭 90m)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재정비1담당관 3축정비팀	02)2171-2614	
도심 재창조-남북 4대 중심축 조성-4축 : 동대문일대에 디자인·패션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대호로 ~ 동대문 ~ 국립극장)	동대문운동장 공원과 사업 (중점사업12 차조) - 청계천과 연계한 휴식, 녹지, 문화공간 조성 - 동대문운동장 내 서울성과 복원	균형발전본부 도심활성화기획관 도심재정비2담당관 4축정비팀	02)2171-2691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심내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 총무로	- 주변상권(동·서)활성화를 위한 흥인문로 지하공간 연결 총무로 : 한류문화의 명소로 조성 총무로 : 영화인의 거리 조성 : 옥외영화 전시관, 명예의 전당, 유리도로 조성 총무로 : 영화 테마파크 조성 : 미래영상체험실, M시네마, DVD를 등 (2007 ~ 2009) 중구 북창동 일대를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거리로 조성 - 주차장, 공원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2007 ~ 2008) 관광·쇼핑·문화의 국제적 명소'로 육성 도심에서 남산으로의 접근로 개선 도심순환버스 노선 신설, 팔각정 접근 무빙워크 설치	경쟁력강화본부 문화산업담당관 02)2171-2434		
도심내 아름다운테마거리조성 북창동관광특구 테마기로조성	(2007~2010) 신형녹지의 녹음량을 확충하여 GreenWay 조성 (2007~2010) 학교공원화 근린생활공원 조성 생활권 주변 테마공원 조성 공원이 없는 곳에 '1동 1미를 공원' 조성(2007) 동대문운동장 부지 공원 조성 89,100㎡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기 획관 도시활성화담당관 1축 정비팀 02)2171-2622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기 획관 도시활성화담당관 2축 정비팀 02)2171-2624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기 획관 도시활성화담당관 2축 정비팀 02)2171-2624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기 획관 도시활성화담당관 1축 정비팀 02)2171-2622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 교 량관리부 1팀 02)3708-2382 푸른도시국 조경과 02)3707-9650		
도심내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 명동관광특구 기로화정 업그레이드	남산 접근성 개선			
경복궁-경희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보행 네트워크 구축	한강레크리이션스			
신형녹지의 녹음량을 확충하여 GreenWay 조성 (2007~2010)	학교공원화			
근린생활공원 조성	생활권 주변 테마공원 조성			
공원이 없는 곳에 '1동 1미를 공원' 조성(2007)	동대문운동장 부지 공원 조성 89,100㎡			
동대문운동장 부지 공원 조성 89,100㎡	종로5가, 동대문운동장, 장충단공원간 보행녹지축 개선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482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미 공병단 이전부지 수변공원 조성(42,900㎡)	시설안전국 건축부 4팀		
도봉 식물생태원 조성	52,800㎡ 산림생태원, 희귀식물원, 식용식물원, 약용식물원, 자생꽃식물 등			
신월정수장 폐쇄부지 생태공원 조성	138,600㎡ 전문가 합동 현황조사 및 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			
고대 역사유적 탐방로 조성	풍납·몽촌 토성, 아차산 보루군 등 고대 역사유적지 연계 추진			
걸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성동구 등 6개소)		디지털서울문화산업부 부본부 도시경관담당관 경관사업팀	02)6361-3943	
하천변 녹화 : 16개 구역 600,000㎡ (종달청, 우이천, 불광천, 안양천 등)				
대학로~남산 보행녹도 조성				
서울 거리 르네상스				

## 2) 인천광역시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심권 웰빙 녹지 조성 및 학교 생태숲 조성	- 중앙가로 녹지, 푸른마을 쉼터, 담장 및 옥상녹화 등 공원, 녹지 조성 59,400㎡ - 시가지 녹화테마 녹색길, 남동정수장 수변공간 등 국공유지 및 유휴공간 최대 활용 29,700㎡ - 학교 생태숲 사업 60개교 72억원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지역간 균형있는 공원, 녹지 확충	공원 조성 계획 12개소 14,292㎡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공사 추진	5개 수계, 창포꽃 하늘거리리는 공촌천 등 6개 하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GB내 시민휴식 공간화 사업	연수구 선학동 38번지 일원 외 3개 지구 4,070,000㎡ (4,062,300㎡)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수도권해양 생태공원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각국(자유)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인천 중구 송학동 1가 11-1번지 일원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근대건축물 보존 및 주변지역 활성화		도시재생국	032)440-2800	
신포~월미문화의 거리간 상징보행축 조성		도시재생국	032)440-2800	
부평묘지공원을 환경친화적 테마공원으로 전환 (도심속 50만평)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032)453-7038	

### 3) 대구광역시 (2,496,115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신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가창교 참신동(12.4 km)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 둔치 친수 문화공간 조성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53)803-4371	
금호강 종합개발계획 수립	동구 시북동 다사읍(41.4km) 조깅코스, 자전거도로, 잔디광장, 산책로, 편의시설조성 등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관련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프로그램 추진	담장허물기 확대 등 도시녹화(106억원) 담장허물기 사업(69개소, 14억원) 도시숲 조성(6개소) 및 가로수, 푸른옥상 조성 등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53)803-4371	
공원 조성	9개소, 50억원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53)803-4371	

#### 4) 대전광역시 (1,466,158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테마거리 조성 및 활성화 추진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균형개발과		
쾌적한 숲길 관리	도시생활권 숲길정비 : 2개노선	공원관리사업소	042)581-4801	
도심공원 조성 및 푸른 숲 관리 도시림 경관조성		환경녹지국 푸른도시과	042)600-5532	
중촌 '시민공원' 조성		환경녹지국 푸른도시과	042)600-5532	
유성 '시민의 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환경녹지국 푸른도시과	042)600-5532	
30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 대대적 추진		환경녹지국 푸른도시과	042)600-5532	
3대 하천 편익시설 확충 및 치수기능 강화		환경녹지국 생태하천사업단	042)600-5857	
3대 하천 생태복원 실시계획		환경녹지국 생태하천사업단	042)600-5857	

#### 5) 광주광역시 (1,407,798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심 5대 공원 조성	옛도시공원과 우산공원	공원녹지과	062)613-4221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광주역-동성중간 7.9km	공원녹지과	062)613-4221	
국군광주병원 부지공원 조성	108,900㎡	공원녹지과	062)613-4221	
중심사지구 자연환경 복원	건물 91동 철거후 생태 복원(85,800㎡)	공원녹지과	062)613-4222	
제1하수처리장 자연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062)613-4221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 사업추진	동구 용연동-서구 유덕동 19.15km	건설행정과	062)613-4651	
영산강 활동강 생태환경 정비		건설행정과	062)613-4651	
녹지네트웍크 구축		공원녹지과	062)613-4200	

• 부록 2. 지자체 어린이공간 관련 사업 부록 •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금남로 프로젝트 추진		문화정책관실	062)613-3443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문화정책관실	062)613-3443	
예술의 거리 특성화		문화정책관실	062)613-3443	
경관 형상 시범지구 조성	금남로, 충장로, 예술의 거리, 신규택지개발지구 등	건축주택과	062)613-4831	
문화예술회관 야간 경관 조명 사업 등 야간 경관 사업 21개		건축주택과	062)613-4820	
특색 있는 디자인 조명 시설 설치	북구 일곡동 신송 단독주택가, 청풍쉼터, 지산유원지	건축주택과	062)613-4820	
육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및 육외광고물 간판위치 지정	충장로 1-3가는 시범거리, 신규택지개발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	건축주택과	062)613-4833	
사직문화예술공원 중외 문화예술벨트 조성				

## 2.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 1) 경기도 용인시 (766,569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중앙공원 조성사업	582,670㎡	도시공원과	031)324-4420	
역북1공원 조성사업	60,873㎡	도시공원과	031)324-4420	
역북2공원 조성사업	97,926㎡	도시공원과	031)324-4420	
만골공원	81,868㎡	도시공원과	031)324-4420	
마북공원 조성사업	38,734㎡	도시공원과	031)324-4420	
상현1근린공원 조성사업	21,199㎡	도시공원과	031)324-4420	
소실봉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216,108㎡	도시공원과	031)324-4420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옹근시민 체육공원 조성	처인구 삼기동 산 24-22번지 373,210㎡ 테마공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등	사업개발과	031)324-4512	
기흥 호수공원조성	기흥구 하갈, 공세, 고매동 일원 2,665,670㎡ 생태공원, 여가운동시설, 문화시설	사업개발과	031)324-4512	
자연휴양림 조성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21-1번지 일원 1,622,705 ㎡	도시공원과	031)324-4420	
성복촌 테마형 하천 조성		하천과	031)324-3802	
정평천 생태하천 조성		하천과	031)324-3802	
금학천 환경개선사업		하천과	031)324-3802	
오산천 환경개선사업		하천과	031)324-3802	
경인천 환경개선사업		하천과	031)324-3802	
젊음의 거리 조성	기흥구 동백지구 호수공원 일원 빛의 거리, 음악분수, 야외무대 조성	도시건축과	031)324-6460	
주요도로변 경관림 조성	17번, 42번, 45번 국도변 500ha	도시공원과	031)324-4420	
학교숲 조성사업(19개교)	숲 조성, 휴게쉼터, 자연학습로, 산책로 등	산업환경과	031)324-8371	

## 2) 경기도 안산시 (734,713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삼고섬은도시민들기사업 <광덕로, 철로변 테마공간 조성사업>	광덕로 및 인충녹지와 연계한 포괄적 계획수립			
선진국형의 새로운 공원문화 창출 <호수공원>	상록구 사동 1509번지 일원 약 649,224㎡ - 인공호수, 체육시설, 문화시설, 전망대, 중앙광장, 공연시설 등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담당	031)481-2710	
서해안의 청정 생태환경 보고 <인공습지공원>	상록구 사동, 본오동 약 393,959㎡ 환경생태관, 야생화 꽃길, 휴식시설, 조류탐조대 등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담당	031)481-2710	
시민들의 편안한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명소	상록구 성포동 42,475㎡	복지과	031)481-2410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노적봉 폭포공원〉	인공폭포(높이 123m, 폭133m), 상징광장, 정미원 야외결혼식장 등			
도시공원의 확충으로 시민휴식 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곡공원 재조성(복합평면화) 8,221㎡ 진입광장, 벽천, 암벽등반장 등</li> <li>- 시민공원 보원공사 : 보인들 산책로 설치 등</li> <li>- 한마음공원 조성 : 단원구 고잔동 산5-1번지 (49,800㎡)</li> <li>- 완충녹지 및 가로변 잔디 훼손지 보식공사 외 : 17개소</li> <li>- 서안산 IC 진입로변 가로환경 조성 : 소나무 외 3종 70,00본</li> <li>- 매송 IC 진입로변 조경 보완 : 이팝나무 외 4종 20,000본</li> </ul>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성담당	031)481-2710	
가로변 녹지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확대 설치</li> <li>- 역세권 자전거 보관대 일제정비</li> </ul>	녹지과	031)481-2410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시설 구축		건설과 자전거문화 담당	031)481-2439	

### 3) 충청북도 청주시 (626,679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청북어린이공원 확장, 개신동 구 배수지 소공원 조성	2개소/ 29억원(07~08) 07년/실시설계	공원녹지과	043)220-6331	
우암산·부모산 생태공원화사업	경관조림 및 향토수종 식재, 숲 가꾸기 사업 등	공원녹지과	043)220-6331	
사적2공원시범사업추진	사적동산 126-9번지 일원 휴식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다목적공간 등	공원녹지과 신림담당	043)220-6331	
올랑천 가꾸기 사업	수변관찰로 조성, 저수로 호안정비, 여울 설치 등 1.6㎞	하천관리담당	043)288-6643	
무심천 생태복원화	자연형 호안정비, 하종도, 사행수로 관찰데크 등	하천관리담당	043)288-6643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정비	무심천 징평교 ~ 미호천 환경사업소 하천둔치	하천관리담당	043)288-6643	
명암호수 주변 웰빙 휴식공간 조성	명암호수 준설, 산책로 및 시민휴식시설 설치, 주변 조경공사, 보트장 설치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목록공원 수변공원 조성	부지 258,369㎡ 주차장조성, 시민휴식공원사업추진 10억원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43)220-6331	
시내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474km, 자전거 전용도로 17km	방재담당	043)269-8438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설치 15개소, 안전펜스 외 5종 517개소			
축구공원(FP)조성	상당구 용정동/부지50,930㎡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43)220-6331	
도시 숲 조성 5개소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43)220-6331	
중앙공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설치 오픈	문화관광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	공원녹지과 공원담당	043)220-6966	
학교 공원화 4개소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43)220-6331	

#### 4) 경기도 안양시 (624,280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병목안 시민공원 개장	만안구 인왕9동 (체석정 부지)30,624평 2000. 11-2006. 5 인공폭포, 잔디광장, 사계절정원, 편의시설 등	녹지공원과	031)389-2410	
석수체육공원 개장	만안구 석수동(쓰레기 매립지)23,536평 2000. 4 - 2006 축구, 야구, 배드민턴, 농구, 롤러, 족구장	녹지공원과	031)389-2410	
인양예술공원 조성	주거환경개선(택지조성, 도로개설 등) 자연공원조성(벽천광장, 인공폭포 등) 주차장 확충(236대 → 500대) 소형댐 건설(32,000톤) (2002. 9)	녹지공원과	031)389-2410	
인양천 살리기 사업	33.2km (인양천 본천 및 5개 지천) (2001 ~ 2010) 수질개선, 간천화방지, 자연형하천 조성 등	재난안전과	031)389-2375	
삼상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량 : 0.77km	재난안전과	031)389-2375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2007. 4 ~ 2010. 3) 4.68km	재난안전과	031)389-2375	
증영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우체국사거리 ~ 인양여고사거리(1.15km) 90동 464점포 (2005. 10 ~ 2007. 2)	예술도시기획단	031)389-2142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로시설물 예술화 시범사업	공동구 환기구, 분전함 등 (2006.5 ~ 12)	예술도시기획단	031)389-2142	
공공예술프로젝트 개최[APAP 2007]	국내외 작가 작품실치, 국제 심포지엄 등 (2007. 5 ~ 10)	예술도시기획단	031)389-2142	
"Anyang Art City 21" 기본계획 수립(2002. 10)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예술도시기획단	031)389-2142	
아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2006. 8 ~ 2007. 2 대상별 테마설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5) 경상남도 창원시 (509,535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옥외광고물 시범 거리, 건물 지정 -중앙광로, 신월로, 용지로	- 표준디자인 책자 발간을 통한 건축별 광고모델 선정 - 건물별, 거리별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옥외경관 개선	도시디자인과 광고물담당	055)212-3332	
생태하천복원(환경부 1단계 시범사업) -남천, 창원천, 기음정천(L=18.43km)	수질개선, 생태복원, 친수기능 조성(2005-2009)	재난관리과 자연하천복원담당	055)212-3734	
주남저수지 세계적 환경브랜딩화 추진	- 탐방시설 조성(2007-2008)	환경수도과 주남저수지담당	055)212-2792	
자전거전국 만들기	68개노선 214.28km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담당	055)212-3632	
테마공원 조성	(2006) 용지공원-음악분수, 오버브리지, 시립어린이공원-공룡테마공원	공원개발팀 공원조성담당	055)212-3732	
	(2007) 상남미관광장-음악분수, 테마광장			
	(2008) 봉림지귀공원-생태공원			
	(2009) 응남 월림공원-근로 자레포초공원			
	(2010) 대상공원-캐릭터공원, 기음정공원-기업사랑테마공원, 심동녹지공원-장소년휴양공원, 벽전			
정미공원 조성	창원대로변 특색있는 경관 조성 가음정동 31번지 4,750평	녹지조성담당	055)212-4331	

## 6) 경상북도 포항시 (505,008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그린-포항만들기 녹색따뜻하기 사업 전개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양덕 쓰레기 매립장)		도시녹지과	054)270-3224	
동빈내항 운하 건설로 생태복원		전략사업추진본부 동빈내항복원팀	054)270-3730	
포항 상정거리조성 가로경관 디자인 개발사업	- 오도로, 산업로, 관문로 - 오도로 환경친화적 보행자도로 경관 디자인 등 1.5억원 신청 (시비 부담 25%) 산업자원부 주관 (디자인진흥원)	테레노바 건축디자인담당	054)270-3743	
공공디자인개선사업 협약체결(디자인진흥원) 및 용역사업 시행	2007. 7 ~ 2008. 2	테레노바	054)270-3743	

## 7) 서울특별시 양천구 (501,717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오목근린공원 개선사업	- 목1동 921번지 21,470.4㎡ - 2007.12월 ~ 2008.11월 - 공원 전체 리모델링(분수시설 정비, 파고라 등 노후 시설물 교체)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계남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 양천구 신정3동 산61-3번지 일대 - 2007.11.26 ~ 2008. 1.25 - 팔각정자 등 29종 설치, 개쉬땅나무 등 11종 11,307주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파리공원 시설 개선 사업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정수공원 외 68개소 소규모 정비 사업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양천공원 재정비 사업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 부록 2. 지자체 어린이공간 관련 사업 부록 •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공사 발주	- 목동로데오거리(신정동 등촌로 ~ 제물포로) L=380m, W=30m - 2008. 1 ~ 5월 - 자선축소, 보행로 확장 및 포장, 이벤트 장소(야외무대)설치, 루미나리에 등 경관조명 설치, 수목 식재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Green Parking' 입장허물기사업 추진	- 양천구 전지역 150가구(225면) ※ 추진실적 : 150가구 337면 조성완료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어린이공원 73개소 현대화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도심 실개울 조성공사	- 목동청소년회관 옆(제물포로 지하상부) L=320m, W=8~14m - 2007.12월 ~ 2008. 5월 - 연못 및 실개울, 벽천설치	도시디자인국 공원녹지과	02)2620-3570	
칼산 근린공원 조성	- 양천구 신정7동 산75-21번지 일대 약 120,596㎡ - 2007. 5. 2 ~ 12.15 - 정삼 등산부 전망대, 전망데크, 간강지압보도,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도시디자인국		

### 3.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 1) 경상남도 김해시 (453,728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신도시 공원정비	36개소(근린공원9,어린이공원27)377,851㎡	도시관리과	055)330-6521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 주요도로변 (주거지, 상업지, 학교주변, 진입관문 등)	도시디자인과	055)330-3626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인제대학교 앞 ~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사거리	도시디자인과	055)330-3626	
심정동 도심 속 오솔길 조성사업	심정초등학교 및 심정중학교 주변	도시디자인과	055)330-3626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	어방동 대우빌딩 ~ 삼방고 ~ 칠암문화센터	도시디자인과	055)330-3626	
공원 리모델링 사업	2개소(삼방동 문화공원, 내외동 내동공원)	공원녹지과	055)330-4411	
김해의 숲 조성사업		공원녹지과	055)330-4411	
불암 어린이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055)330-4411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삼계동 산4-1번지 일원 2,772천㎡	공원녹지과	055)330-4411	
장유능동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121번지 일원 242,760㎡	공원녹지과	055)330-4411	
장유비위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223번지 일원 45,464㎡	공원녹지과	055)330-4411	
장유대청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299번지 일원 77,089㎡	공원녹지과	055)330-4411	
생림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일원 9,380㎡	공원녹지과	055)330-4411	
반룡산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일원 1,849천㎡	공원녹지과	055)330-4411	
임호공원 조성사업	김해시 외동, 흥동 일원 852,660㎡	공원녹지과	055)330-4411	
도시공원 정비 관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82개공원	공원녹지과	055)330-4411	
아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지정	아간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선집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경관조명으로 도시미관 향상 기여 - 2008. 1 ~ 8 - 대상건축물 공공건축물, 대형건축물(5층 이상 3,000㎡ 이상), 주요 도로변에서 가시권내 위치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지정, 시설물별 아간경관 기법, 투광기 설치 방법 등, 도시경관 전문가 및 아간경관조명 전문가 자문 2008. 8. 1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일부터 시행	도시디자인과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	- 어방동 대우빌딩 ~ 삼방고 ~ 칠암문화센터 보도 및 가로환경시설을 정비, 교량 리모델링, 녹도조성, 아간경관 조명, 수변공원 리모델링, 전선지중화 등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 주요도로변(주거지, 상업지, 학교주변, 진입관문 등) 콘크리트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도로시설물, 가로환경 시설물 등 미관저해 요소, 옹벽, 담장 등의 디자인 개선 디자인이 도입된 벽면녹화 등 시범디자인 공간 조성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중로길) 조성	생활주변 콘크리트 옹벽, 담장, 쓰레기 투기장 정비, 마을안내사인 주변정비 등 가로환경시설을 개선, 진입로 환경개선 및 뱀지화단 조성 등 주민휴식 공간 마련 - 추진방법 리.홍반: 마을단위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대상지 선정 시 : 행정, 재정, 기술 지원 주 민 : 사업추진 협의 및 시공관리 등 운영			
	-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지역브랜드 창출 및 걷는 것이 즐거운 간판 시범거리로 조성 - 2008. 1. ~ 6. - 260m(66개 업소) - 간판 계시대 및 간판 설치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408,698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당산공원 재정비	당산 근린공원 (11.154㎡): 구의 랜드마크 확보	공원녹지과	02)2670-3756	
문래 근린공원 개선	친환경적 시설로 도심환경 개선 23,661㎡	공원녹지과	02)2670-3756	
마을 미당 조성	도림2동 154-4호 111㎡, 신길6동 4,302㎡	공원녹지과	02)2670-3756	
준공업 지역 내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문래동 6가 25-1 1,954㎡	공원녹지과	02)2670-3756	
13개 어린이 공원 현대화	자유어린이 공원 등	공원녹지과	02)2670-3756	
지천거도로신설	(연장1.08km)별밀길, 당재길	공원녹지과	02)2670-3756	
안양천 자연생태복원	목동교-양화교 2.5km 안양천 조류서식 공간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안양천 조성	공원녹지과	02)2670-3756	
안양천, 도림천 환경개선	호안블럭과 둔치 포장 보수 등	공원녹지과	02)2670-3756	
천수공간 조성	신길동 426-4 주민체육센터 앞 신길광장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방음벽과 자투리땅 녹화 사업	문래동 4-5가 도림천로 방음벽 6개소 대림삼거리 교통신 등 5개소			
친환경적 유수지 조성과 체육시설 정비	도림2동, 대림3동, 신길 일취저감 시설, 매쉬펜스, 화장실 설치, 수목식재 등 (세물포로 2000m)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중심도로로 개선	공원녹지과	02)2670-3756	
길고실은 녹색거리 조성	(5.5 km) 노들길변 가로녹지 대방역-양평동 인공폭포	공원녹지과	02)2670-3756	
녹색가로변 조성	(세물포로, 양평로, 당신로) 가로수 병열 식재로 도심 지내 열섬화 현상 예방			
가로 숲 조성	통화로 확보(6개교)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관광 명소화 기반 조성			
신길-여의도간 셋강 문화인도교 설치	생태복원 및 휴식공간 제공 여의도 셋강 63빌딩 앞-국회의사당 4.6km 평균폭 130m 총면적 518,000㎡			
다목적 수변 자연생태 공간 조성		가로경관과	02)2670-3776	
영등포 젊음의 거리 조성				
공공디자인거리 시범 조성	문화관광부, 영등포구 주관 구청(한대해상-당신공원-친수공간) 도로양측 총길이 400m, 폭 30m 표지판, 산책로, 벤치 등 공공시설을 개선	가로경관과	02)2670-3776	
여의도 걷고싶은 거리 정비	여의도 공원-여의나루역 1,200m	가로경관과	02)2670-3776	
학교 공원화	영신초, 영문초, 영림초, 당산중	공원녹지과	02)2670-3756	

### 3) 경상남도 진주시 (333,554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상평녹지대	7,040㎡	농업기술센터 녹지공원과	055)749-5576	
남강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	170,000㎡	농업기술센터 녹지공원과	055)749-5576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 계획 수립	9.67km, 2단계 추진, 생태습지원, 저수호안정비	건설도시국 건설과	055)749-5409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초전공원 조성	45,000㎡, 하늘정원, 생태주차장 등	농업기술센터 녹지공원과	055)749-2430	
금호지 근린공원 조성사업	30ha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계획 및 착공	농업기술센터 녹지공원과	055)749-2430	
문산천(1.86km) · 영천강(2.1km)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 공사착공(2007. 4)	건설도시국 건설과	055)749-5409	
관광테마거리 조성	아간경관조명, 음악분수대와 연계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217,332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추진	목상어린이공원 외 1개소 2007. 3 ~ 5	도시녹지과	042)608-5103	
도심속 쉼터 쾌적한 유지·관리	동춘당공원 외 17개소 2007. 2 ~ 4	도시녹지과	042)608-5103	
중리동 철도변 공원녹지화 사업	중리동 355-7번지 일원 12,285㎡/3,716평 쉼터 3개소, 화장실 1개소, 주차장 1식, 운동시설 13조 수목식재(교목 3,000본) 등	도시녹지과	042)608-5103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	읍내동 4거리 옆 철도부지 법면약 4,500㎡(폭15m, 길이 300m)	도시녹지과	042)608-5103	
열린공간 덩장댐에기 사업 추진	화정초등학교, 대덕구청 2개소 덩장철거, 시설물살치, 수목식재 등	도시녹지과	042)608-5103	
대청호수 주변지역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대청호수와 접하고 있는 자연부락 전체 포함	도시녹지과	042)608-5103	
살고싶은 도시민들기 사업 추진	금강변 로하스(OHAS)밸리 조성사업 대청댐 금강수계 일원 2007 ~ 2008	도시녹지과	042)608-5103	
하천정비사업 추진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 한 하천수질 유지와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건설과	042)608-5202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추진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이용 다양한 디 자인의 불법변보호방지시트를 설치하여 불법변보호 부작 방지 및 품격높은 도시미관 조성 송촌동 우임로주변 ~ 한밭대로	건설과	042)608-5202	

## 4.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

### 1) 충청북도 제천시 (136,398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제천축구공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관리센터 조성 부지 내에 축구공원을 건립, 협도시설에 대한 장정이미지 부각</li> <li>- 축구공원 조성으로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유도</li> <li>- 전국대회 유치로 축구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li> <li>- 충북 제천시 신동 625번지 일대(동약골)</li> <li>- 사업량 : 축구장 3면, 관리 및 사무실 500㎡, 주차장 및 공원 조성</li> </ul>	행정복지본부 문화체육팀	043)641-5740	
쌔지공원 (도심소공원) 50개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정신의 풍요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변화</li> <li>- 자연속에서 살려고 하는 도시민의 욕구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위락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li> <li>- 규모 : 50개소</li> </ul>	미래경영본부 도시관리팀	043)641-5210	
런닝로드(running - road)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자연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화 도로 조성</li> <li>- 생활체육의 다변화를 통해 행복한 시민생활 도모</li> <li>- 2007 - 2009</li> <li>- 32km</li> </ul>	미래경영본부 도시관리팀	043)641-5210	

### 2) 경상북도 영주시 (116,965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친환경 서천 조성	생태공원, 잔디광장, 생활체육시설			
그린퍼킹시책 추진	내집앞 주차장맞기 사업(1,800만원, 120면)			
특색있는 가로수 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티나무 가로길 조성(동부파출소~상망육교) 단 풍나루 가로수 식재(아지동~순흥지동) 소나무 숲 조성(서천교~제민루) C입구 녹지대 조성 등</li> </ul>	산림복지과	639-6310	
공공기관주변 공원화 사업	2007조성대상 : 5개소(학교3, 공공기관2) 담장철거, 녹지공간 조성			

## 5. 인구 10만명 이하 지자체

### 1) 인천광역시 중구 (91,417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해안일주 자전거도로 정비		건설재난관리과	032)760-7456	
공항신도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				
학교 공원화	5개소	도시개발과	032)760-7502	
푸른마을 섬터 및 아름다운 도심 조성	14개소	도시개발과	032)760-7502	
공항신도시 공원 녹지 정비		도시개발과	032)760-7502	
도보관광(탐방) 코스 확대운영				
차이나타운 아외문화 공간 조성		도시개발과	032)760-7502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 공간 확장 : 96억 2,200만원	북성동 1가 98단지 일원(공유수면 내) 폭30~40m 길이200m(5668㎡) 2004. 5 ~ 2006. 5 (2년간)	도시개발과	032)760-7502	
근대건축물 및 주요건축물 아간경관 조성 : 4억 7,500만원		도시개발과	032)760-7502	
차이나타운 2단계 개발사업	2001 ~ 2004 중구 선린동·북성동·항동 일원 36,000㎡(약10,890평)	도시개발과	032)760-7502	
재래시장 활성화	2002 ~ 2005 3개소 재래시장 (신포, 신흥, 연인어시장)			

### 2) 강원도 속초시 (87,583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살고싶은 도시 추진팀	033)639-2714	
중앙 재래시장 활성화		살고싶은 도시 추진팀	033)639-2714	

### 3) 경기도 과천시 (60,482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용마골 근린공원 조성				
막계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				
구리안길 보도 설치공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관문사거리-부림삼거리 700m			
대공원 나들길 정비	부림동 사무소-대공원 입구			

### 4) 충청남도 금산군 (57,552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금산천 보행자 전용교량 설치(길이40m, 폭3m)	2007년 준공 목표 추진, 금산천과 조화되는 아간 조명 등 금산의 명물화	건설도시과	041)750-2691	
유흥공간을 활용한 쉼터공원 조성 확대 추진	도로변 공가 및 지투리 땅 활용 주차공간 및 소규모 쉼터 조성(안자적 계획으로 추진)	건설도시과	041)750-2691	
지전거 이용도로 확대		건설도시과	041)750-2691	
자연친화형 생태하천 조성(2개소)	- 불향천 길이1.0km, 기사천 길이0.5km 친환경 하천 개선 - 생태계 서식처 조성, 친수공간 조성, 하천제방 안전성 확보 등	건설도시과	041)750-2691	
이야기가 있는 웅담샘 복원(15개소)	웅담샘 유래 안내판 설치,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살고싶은 금산 기구기 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 기초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 정비	건설도시과	041)750-2691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수립	4개소 40,424㎡	건설도시과	041)750-2691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조성	옥외광고물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건설도시과	041)750-2691	
양진 메릴정 공원화 사업	금상면 양진리 381번지 일원	환경지원과	041)750-2534	

• 부록 2. 지자체 어린이공간 관련 사업 계획 •

### 5) 부산광역시 중구 (50,722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웅두산 공원 주변 지역 정비				
지갈치 연안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대교-지갈치시장-충무동 물양장 해안 1,330m</li> <li>- 남항주변의 불량한 해안정비로 남·북항 연결 해안도로와 친수공간 조성: 조망, 악취의 정소, 물고기 분수 조형물, 고래조형물, 자갈치거리 조성</li> <li>- 부산의 상징성 및 해안광장 명소화로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li> </ul>			
광복로 시범기로 사업	문화관광부 사업 광복로·PIFF광장 일원 - 광복로 : 길이750m, 폭15m (광복로 입구-창선상가) - PIFF 광장 : 길이240m, 폭15m (PIFF Zone 소핑물-부산극장4관) 2005. 1 ~ 2008. 2. 사업내용 : 간판, 가로시설물 토털 디자인 개념으로 종합개선 광복로 거리 갤러리 조성	시범기로추진단	051)600-4672	
가로변 녹화	가톨릭센터앞 화단정비 외 3개소			
선어회 문화 거리 조성				
보수동 북개 주변 미니 대학로 조성	영락사거리-홍교사거리 430m 대학로 보도정비 및 특화, 쌈지공원 조성 등			

### 6) 강원도 영월군 (41,783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신성장동력추진단	033)370-2885	
아름다운 간판 가구기	9개읍면 -시범거리: 영월 12리 장릉거리 (사업비 총 5,000만원)	도시개발과	033)370-2056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사업	광장조성(3,073㎡), 조각분수 및 경관조명설치 총 20억원 소요	도시개발과	033)370-2074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영월관문 절개지 공간 재창조 계획	경관시설물 및 경관조명 설치 총 15억원 소요	도시개발과	033)370-2074	
살기좋은 지역민들끼리 공모 선정: 사랑과 정이 있는 sweet hometown 영월읍	2007-2009 150억원 투자 농촌의 편안함과 아름다운 고향을 느끼는 가족형 마을	도시개발과	033)370-2838	
도시부활프로젝트	4개 사업 광장, 쌈지공원, 조각공원 등	도시개발과	033)370-2074	

## 7) 전라남도 무주군 (25,417명)

사업명	사업내용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태권도 공원 조성	2007-2013 70만평			







(auri



**( a u r i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tel 031-478-9600  
fax 031-478-9609  
[www.auri.re.kr](http://www.auri.re.kr)